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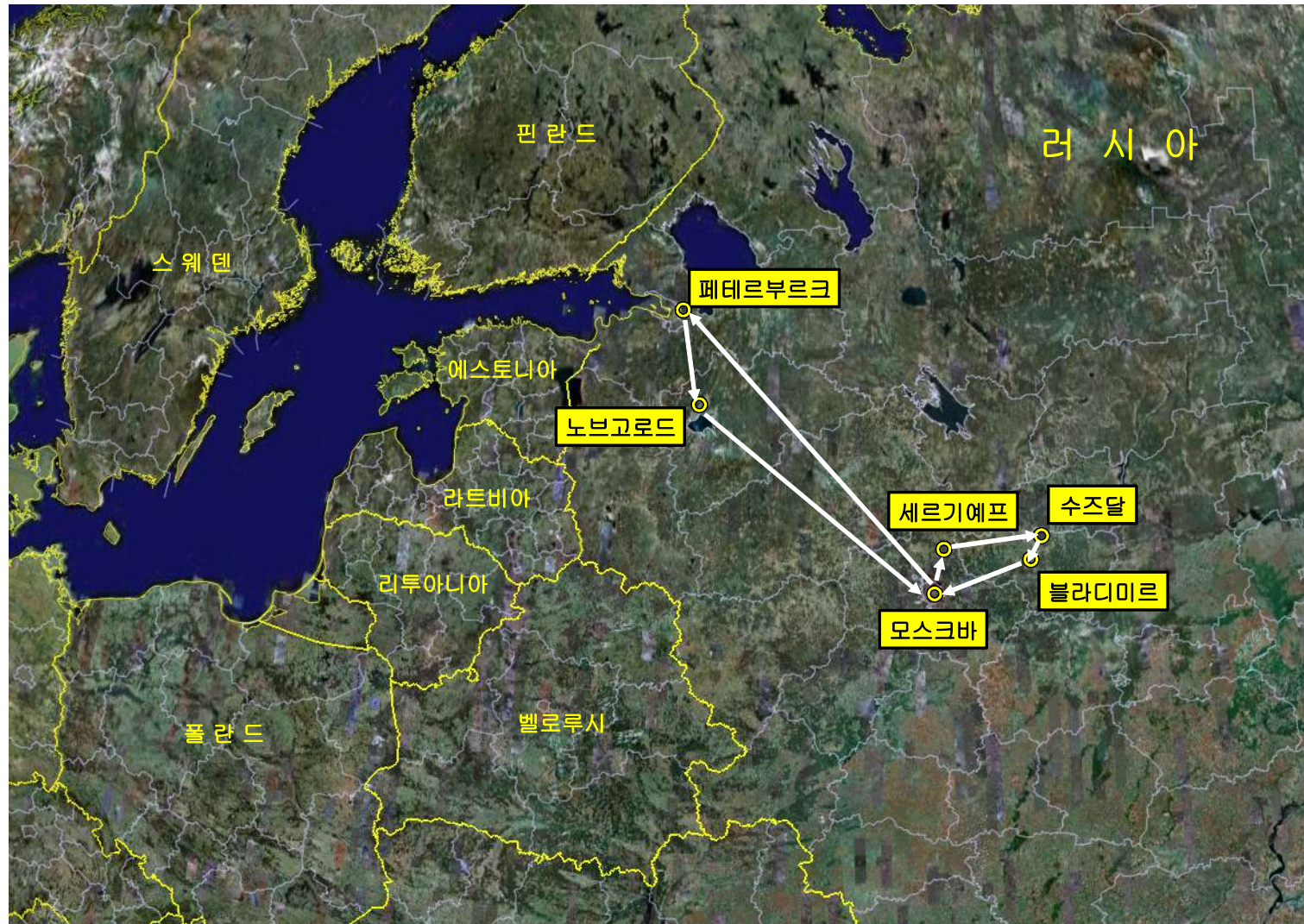
찬미(讚美)의 땅, 러시아



2007년 8월1일 - 2007년 8월11일
박길란(parkkaze@hanmail.net)

여행 일정표

날짜	장소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
제1일 8/3 (금)	인천 모스크바	SU 600	12:50 17:15	인천 국제공항 출발 모스크바 도착 후 호텔 투숙 호텔: IZMAYLOVO ALFA HOTEL
제2일 8/4 (토)	모스크바	전용버스	전일	조식 후 모스크바 시내 탐방 크레믈린궁(트로이츠키야 탑, 12사도원, 대포의 왕, 종의 왕, 우스펜스키 사원 등), 무명용사의 묘, 붉은 광장, 바실리 사원, 레닌 묘, 구세주 성당, 고리끼의 집 답사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IZMAYLOVO ALFA HOTEL
제3일 8/5 (일)	모스크바 세르기예프 수즈달	전용버스	전일	조식 후 세르기예프로 이동하여 트로이체 세르기예프 대수도원, 우스펜스키 사원, 삼위일체 수도원, 성 다니엘 수도원, 고르츠키 수도원 답사 후 수즈달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TOUR CENTER HOTEL
제4일 8/6 (월)	수즈달 블라디미르 모스크바	전용버스	전일	조식 후 크레믈린 요새, 리스팔로첸스키 수도원, 로제스트벤스키 사원 등 수즈달 명소 답사 블라디미르로 이동하여 황금의 문, 우스펜스키 사원, 네들리 사원 답사 후 모스크바로 이동 모스크바 도착 후 호텔 투숙 호텔: IZMAYLOVO ALFA HOTEL
제5일 8/7 (화)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SU 839 전용버스	08:15 09:55 오후	모스크바 출발 상트 페테르부르크 도착 이삭 성당, 네프스키 거리 탐방, 알렉산드로 네프스키 대수도원, 카잔 성당, 스몰니 수도원 답사 호텔: ST. PETERSBURG HOTEL
제6일 8/8 (수)	페테르부르크 근교	전용버스	전일	조식 후 페테르부르크 근교 탐방 여름 궁전, 예라테리나 궁전, 파블로프스키 궁전 답사 호텔: ST. PETERSBURG HOTEL
제7일 8/9 (목)	노브고로드	전용버스	전일	조식 후 노브고로드로 이동하여 유리예프 수도원, 목조 건축 야외박물관, 야로슬라브코트, 성 소피아 사원 답사 페테르부르크로 귀환 후 호텔 투숙 호텔: ST. PETERSBURG HOTEL
제8일 8/10 (금)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전용버스 SU 854	전일 22:00 23:40	조식 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작품 감상, 순양함 오로라호, 로스트랄 등대, 페트로 파블로프스키 요새 등 답사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페테르부르크 출발 모스크바 도착 후 호텔 투숙 호텔: IZMAYLOVO ALFA HOTEL
제9일 8/11 (토)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전용버스 SU 599	전일 21:35	조식 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모스크바의 지하철 타보기, 노보데비치 수도원, 아르바트 거리, 레닌 언덕 답사 공항으로 이동 모스크바 출발
제10일 8/12 (일)	인천		11: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2007년 8월 2일 (출발 전일)

내일이면 러시아로 간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그것도 관광 목적으로)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 일수 있다.
러시아는 첨예(尖銳)한 이데올로기의 정점에 있었던 나라였다.
지금도 그 흔적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각인 되어있고 그래서 남북, 대치상태에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주의> 탄생의 국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색다른 감회(感懷)에 젖어보는 여행 전날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움 트고, 무럭무럭 자라는 청소년시기에 소련은 이 지구에 존재하지 말아야 했던 사악하고 부도덕한 나라였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성토 할 때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것으로 교육받고 컸다.

대학 때는 마르크스, 자본론 이라는 말만 꺼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간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가깝게는 1983년, 300여명을 태운 우리의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킨 용서 할 수 없는 악마의 화신 같은 나라였다.갈 수도 가고 싶지도 않았던 <철의 장막>속 나라였다.

그런데 그리스를 가서 아름다운 정교회 교회들을 보고, 러시아 정교회 성당들이 보고 싶어졌다. 동로마 비잔틴 문명을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면서 키워온 정교회 문화가 궁금했다.

또 올 겨울, 하얼빈을 갔을 때 중국답지 않은 도시 경관에 놀랐다.
러일전쟁(1904년~1905년)에서 일본에 패하기 전까지 10여년 남짓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하얼빈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쪽 귀퉁이를 이식해 놓았다. 특히 고골 거리는 매서운 한겨울의 정취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격렬하게 러시아가 보고 싶어졌다.

러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선 대문호들의 작품들을 뒤적였다.
러시아 문학 작품 ! 휴 !
고교시절. 지적 허영심으로 그들의 책을 접했지만 읽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끔찍했다.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없이 지루하게 긴 이야기에 메마르고 고루한 문장들은 사람의 진을 뺏던 기억만 남겼다.

그런데 이 나이 들어 다시 읽어보니 와~우 우선 친절하다.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사람의 뇌수를 콕콕 찌르고 지루한 문장들은 나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상냥하기까지 했다.
현대 작가들의 감각적이고 독선적이며 깔끔하기만 문장에 익숙해 한 줄 한 줄에 나의 사고를 채워야했던 피곤함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친절하게 긴 문장으로 설명해주었다.
그러면서 투박하지만, 찌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인간의 심오한 원초적 생명력을 감동 깊게 전해주었다. 오랜만에 책읽기 자체를 즐기는 10대 소녀로 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여행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 확보가 힘들어 두 번이나 날짜가 변경되었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조차 즐거웠다.

8월 3일 (제 1 일)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로

공항에 모인 일행은 TC 안순배씨 까지 21명이었다.
부부가 5쌍이고 그 외는 모두 여성 동지다. 대부분 선생님 같아 보였다.
홍선생 부부를 보니 무지 반갑다. 몇 주 전에 같이 밥도 먹었건만.... 홍선생과는 이집트 여행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이제는 완전히 나의 단짝이 되었다.
작년 여름, 파키스탄 라호르부터 중국 서안까지 오는 멀고도 험한 여행을 함께 하면서 마음까지 교감하는 친구가 되었다.
<현명하기가 같으면 서로 알아주고, 견해가 같으면 서로 들어주며, 뜻이 같으면 함께 어울린다. 同明相見, 同音相聞, 同志相從>란 선인의 말씀을 홍선생을 통해 제대로 느끼는 행운을 맛보고 있다.
남편들도 잘 통해 여행과 상관없이도 보고 싶어 가끔 만나 저녁을 먹곤 하는 사이가 되었다. 테마세이투어를 통해 홍선생을 만났으니 이 또한 고마워 할 일이다.

예정대로 12시 50분에 비행기는 출발했다.
비행기는 러시아제답게 아주 전투적으로 생겼다.
천정이 어찌나 높은지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화물 항공기를 개조한 것 같았다. 좌석의 간격도 넓어 여유는 있었지만 비행 내내 심하게 흔들리고 소음이 심해 10시간 동안 마음이 편치 못했다.
비행기를 신뢰하지 못해 불안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잠도 오질 않는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은 십자수까지 놓고 있는데 말이다. 여학생은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다며 아주 흥분해 있었다.
나와 똑같은 10일 일정인데 유럽일주 여행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일정표를 보니 기가 찼다.
하루도 비행기 타지 않는 날이 없고 5개국을 축지법으로 돌아다녔다.
로마, 비엔나, 프라하.... 비행기에서 내리는 곳에 점만 찍고 떠나기 바빴다.

오늘도 모스크바가 끝이 아니라 국내 편으로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간다. 도착 예정이 밤 12시 경이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반나절 있다가 오후에는 공항으로 이동해 비엔나로 간다. 누가 이런 스케줄을 짰는지 모르지만 괜히 내가 화가 났다.
아직 어려 보이는데 왜 이런 여행에 참가했는지 내심 안타까웠다. 그 돈으로 한 나라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오는 배낭여행을 했으면 좋을 것을.....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절대로 소화 할 수 없는 전투적 여행인 것만은 확실했다.

드디어 6,600km 정도를 날라 모스크바 상공으로 진입했다.
메안다링이 심한 모스크바 강이 큰 팔을 벌려 자신의 사랑스런 모스크바를

꼭 끌어안고 있다. 엄청난 몸부림 속에 무사히 내린 모스크바에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시간 정도면 여행 경험상 그리 긴 시간도 아닌데 온 몸이 쭈시고 피곤하다. 그런데 날씨까지 죽을상에 으슬으슬 춥기까지...

입국 수속을 하면서부터 내가 범상치 않은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한다.

도대체 줄이 줄지를 않는다. 한 술 더 떠, 3명 중 1명은 줄에서 비켜서 무조건 기다리란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라고 물으면 당장 어딘가로 끌고 갈 것 같은 직원들의 고압적인 모습에 하염없이 서 있어야 했다.

그들의 눈매는 소름끼치게 무섭다. 모두 분위기에 질려 불평스러운 표정조차도 짓지 못하고 기다렸다.

지루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려 나오니 좁은 콘베이어 벨트에 너무 많은 짐을 올려놓아 가방들끼리 몸싸움을 해 패잔병들이 여기저기 나가 떨어져있었다.

직원들이 주변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한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흥미로운 이 나라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의욕도 더 생긴다. 결국 오후 4시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서기까지 2시간 이상 걸렸다.

우리를 마중 나온 가이드(이철수)는 바싹 마르고 키가 큰 30대 후반내지는 40대 초반 아저씨였는데, 긴 장발의 퍼머 머리가 인상적이다. 걸모습과 달리 목소리도 다부지고 눈빛에 카리스마가 넘친다.

공항을 벗어나 조금 달리니 자작나무 숲이 드문드문 이어지면서 러시아에 온 것이 실감난다.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도로는 어느 방향으로든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퇴근하는 차와 주말을 보내기 위해 교외의 별장(다차; 작은 개인 주말농장)으로 가는 차들이 엉켜 모두 멈추어 서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 회색빛 하늘은 음산한 기운으로 모스크바를 내려보고 있었다.

모스크바 인구는 천만이 넘고 주변의 위성도시와 농촌의 인구를 합하면 5천만에 가깝다. 러시아 전체인구 1억5천만 명 중 1/3이 이 도시에 몰려있으니 매일 매일 교통 대란이 일어나지 싶다.

평일의 평균 시속이 12km 정도인데,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시속 3km도 되질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딱 걸려든 것이다. 길도 막히는데 고장 난 차들도 많다.

대부분 러시아의 국민차라고 칭송받는 <지글리>와 <라다>다.

이 나라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한 차는 거의 30년 이상 된 차종이다.

지루한 가운데서도 거리 입간판에 우리의 삼성, LG, 현대, 기아를 선전하는 것들이 많고 서 있는 차들 중에 반짝거리며 돌보이는 우리차를 보고 있자니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뻐근하다.

모스크바 거리에서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육교와 주차장이었다.
둘 다 추운 날씨가 만들어낸 산물인데 육교는 바람과 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 원통형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아이들 놀이터에서 많이 본 모양이다. 주차장은 아주 허술해 보이지만 정부에서 나누어 준 것으로 컨테이너 비슷한 형태로 차 한 대 씩 들어 갈 수 있게 되어있고, 견고한 자물쇠가 달려있다.
긴 겨울, 영하의 날씨와 눈으로 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얼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현재는 급격히 자동차 수가 늘어 이런 주차 시설로는 감당을 못해 도시에서의 주차도 큰 사회적 문제란다.

겨우 도심에 들어와 식당에 도착했을 땐 9시가 넘었다.
너무 피곤해 입맛도 없다. 호텔에는 11시를 넘겨 들어왔다. 호텔 역시 내 방까지 올라가는 절차가 참 러시아적이다.
호텔 시설은 빠짱꼬장 사용과 잠만 잘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으로 우람하게 크기만 했지 여행객의 낭만과 이국적 분위기는 철저히 무시한 무식한 건물이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표를 받아(방 번호가 적혀있음) 감시원에게 보여주고, 방이 있는 층에 내려 또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표를 주면 내 방 키로 바꾸어 준다.
그러니 층간의 이동은 원천봉쇄 되어 있다. 외출을 하고 싶으면 들어올 때의 역순으로 하면 된다.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일상화 된 나라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불쾌하기보다 재미있다. 협소하고 소박한 방이지만 짐을 부리자마자 우리는 씻지도 못하고 뺏어버렸다.

8월 4일 (제 2 일) 돌의 장막, 크레믈린은 성스럽더라

손가락 움직일 기운도 없어 잠을 잤지만 씻지 않아서인지 계속 가위에 눌린 듯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밤 2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누우니 정신이 좀 든다.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아무래도 비행기의 소음과 심한 흔들림 탓인 것 같다.

창 밖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다. 하늘이 짹짹 쪼개지고 등대의 서치라이트 같은 강한 빛이 폭격처럼 쏟아져 내린다. 이 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한 환영치고 너무 거칠고 세다. 러시아적이긴 하지만 말이다.

오늘은 하루 종일 모스크바 시내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9시부터 움직여 크레믈린으로 갔다. 다행히 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음산한 얼굴을 하고 있다.

기온도 낮아 모두 몸을 움츠리고 이런 날씨가 계속 될까봐 걱정이다. 우리는 그 옛날 총 주교님만 드나들 수 있었다는 트로이츠카야탑 밑의 삼위일체 문으로 들어갔다. 크레믈린에는 6개의 탑문이 있고 방벽의 상징적 탑까지 총 20개의 탑이 있다.

크레믈린은 모스크바에 있는 내성에만 붙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도시에 있는 내성은 모두 크레믈린이다.

몽골어의 <요새>라는 말에서 기원했단다. 그리스의 <아크네폴리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공서나 종교기관, 궁전, 종루 등이 몰려있는 도시 속의 작은 도시로 군사적 요새이기도 하다.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은 처음 목조 방벽에서 시작해 1327년, 우스펜스키(성모승천)성당(이때는 목조 성당이었음)이 세워지면서 석조 성채로 바뀌었고, 몽골 지배 시(1240년~1480년)에는 최고 권력기관인 막부가 있었다. 그러다 몽골의 압제에서 벗어난 15세기 말부터 이곳에 대공과 귀족들이 거주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다.

성문을 들어서자 왼편으로 화려한 문양의 대포들이 도열해 있다. 1812년 나폴레옹이 이 도시에 쳐들어 왔을 때, 그들로부터 노획한 대포란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들어 가면 부드러운 노란색, 대통령 궁이 정적 속에 서 있다. 도로 한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일반 관광객은 접근금지다.

우리는 세 개의 성당이 몰려있는 오른편으로 이동했다. 먼저 우스펜스키 성당으로 들어갔다. 5개의 황금 купол(양파 모양의 러시아 정교회 지붕의 돔)을 가진 성당은 외관부터 복구의 정취가 묻어난다. 두터운 벽돌이 육중하고 튼실해 보였다.

아치형 문을 통과해 들어섰을 때, “와우 ! 아 !”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어느 한 곳 허술한 구석이 없는 완벽한 찬미의 장소였다.

장중하면서도 화려하고 어둡고 깊은 채색의 성화들은 고귀한 심미(深美)감으로 전율이 느껴졌다.

“이곳이 종교 미술의 정점으로구나!” 하고 외치고 싶었다. 터키 소피아 성당이나 유럽 쪽 성당에 비하면 내부 공간은 좁고 음습하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던 절대자에 의탁하고 싶어지는 본성이 천천히 그러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할 말을 잃은 신의 자녀들은 모두 경건하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교회 성당을 들어서면 회중석(會衆席)이라는 예배 장소가 보인다.

보통 교회에서 보는 의자는 없다. 모두 서서 예배를 본다.

양 벽면과 기둥에는 프레스코화와 나무 판에 그려진 종교 도상을 담은 그림, 즉 <이콘>으로 장식되어있다.

중요 이콘 앞에는 초를 봉헌하는 곳이 있다. 회중석의 정면에는 회중석과 각종 성물을 보관하는 지성소를 구분 짓는 이코노스타스(ikonostas), 즉 이콘의 벽이 있다.

이 이코노스타스가 정교회의 최대 볼거리며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다.

주로 3~4단 정도의 목조 벽으로 1단에는 사제들만 드나들 수 있으며 지성소로 통하는 황제의 문이 있다.

그 문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예수, 성모의 이콘이 장식되어 있다. 2단은 대체로 성서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3단부터는 성인, 존경받은 성직자, 의인 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우스펜스키 사원은 러시아 정교회의 본당이기에 특별히 5단으로 되어있다.

몽골의 압제를 종식시키고 슬라브 민족이라는 결집을 끌어낸 이반3세(이반대제. 재위: 1462년~1505년)는 상징적 일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진으로 붕괴된 우스펜스키 사원을 재건 시켰다.

1479년, 이반3세의 청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이탈리아 건축가, 알베르티 피오라반티(alverti fioravanti)는 러시아 전역의 정교사원의 건축 양식을 돌아보고, 블라디미르의 우스펜스키 성당을 모방해 이 성당을 건설했다.

황제는 이 성당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피오라반티가 본국으로 돌아가 똑같은 사원을 짓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다.

그는 결국 죽어서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

이 사원은 종교적 행사뿐만 아니라 황제 대관식, 장례식 등으로 이용되었다. 황제와, 왕비가 사용한 특별 권좌도 이 사원의 큰 볼거리다.

아주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은 목공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

아르한겔스키 사원(대천사 미카엘)은 우스펜스키 사원보다 외관은 좀 더 세련된 모습이며 아치형 창과 지붕이 인상적이다.

이 사원을 지은 알레비시오(alevisio)의 고향, 베네치아의 바다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정서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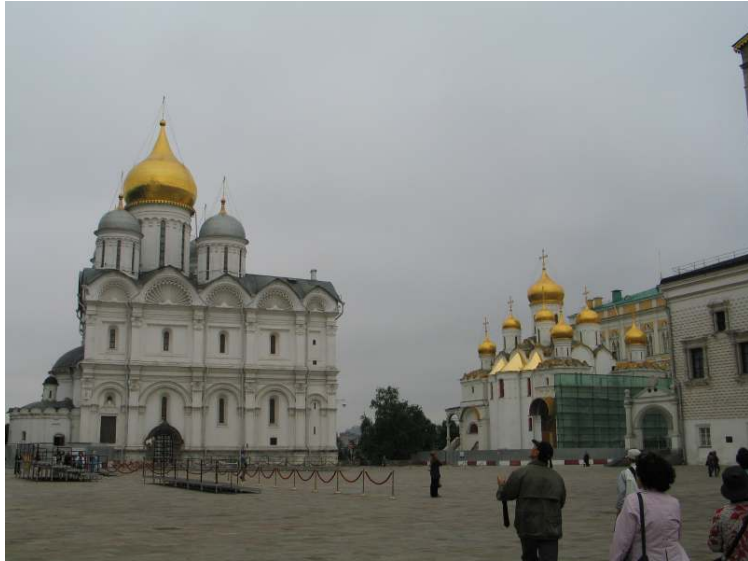
사원 내부의 성화는 우스펜스키 사원과 비슷하지만 더 좁고, 성스러운 느낌은 덜했다. 이곳은 역대 대공과 황제들의 납골 사원으로 현재 46기의 묘가

있단다.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데 남자 3명, 여자 2명이 나와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아카펠라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어두운 내부 공기를 뚫고 성당 가득 울려 퍼졌다.

갑자기 만난 이벤트가 놀랍고 감격스러웠지만 생각보다 감동스럽지는 못했다. 인원이 적어서인지 20% 부족한 느낌이었다.



<아르헨겔스키 성당>

988년, 러시아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인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공후(재위:980경~1015)는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블라디미르는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정하기 2년 전에 세계 각처에 사신도 보내고 또 사절단을 받아들여 각 종교들의 장점을 들었다.

그 중 가장 재미있는 일화는 이슬람교도들과의 이야기이다.

블라디미르는 성격이 호탕하고 그만큼 호색한이었다. 처첩이 800명에 이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일과였단다.

이슬람교도들은 왕에게 “마호메트는 교인들이 죽어서 내세에 오면 미녀 70명씩 주십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말에 혹한 왕은 솔깃했지만 계율 중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슬라브족에게 술은 기쁨이다. 그 즐거움 없이 현세를 살아내지 못한다.” 라고 거부 했단다.

실지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보드카를 뺀 러시아를 생각 할 수 있을까?

그리스 정교의 전례에 참가했던 사신이 돌아와 말했다.

“이 세상에 그리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했나이다.”

“내 몸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나이다.”

“신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느낌이었나이다.”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다른 어떤 종교 전례와 비교조차 불가능하더이다.”

라고 고했단다.

이 사신을 매료 시켰던 것은 정교회 성당보다 성당에 울려 퍼진 음악, 즉 <아카펠라>였다.

기계가 만들어낸 음이 아니라 신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원음, 신을 찬미하는 원초적 본능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음악이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로 거듭나고, 특히 전례를 지배하는 음악은 러시아 땅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슬라브 민족의 음악적 재능은 종교 음악에 민속 음악이 더해져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 부족함은 어쩔 수 없지만 성가는 습한 공기 속에서 깊은 공명으로 울려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다.

성당을 나와 비 내리는 크레믈린의 정원을 걸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봄날의 꽃밭처럼 생명과 활력으로 넘쳤다.

길고 긴 겨울을 버티는 수목답게 한 걸 같이 그 기개가 하늘을 찌른다.

인류 최초로 우주여행을 한 유리 가가린이 심었다는 상수리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이제 겨우 어린 티를 벗고 이곳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공산주의 체제 시절의 <크레믈린>은 듣는 것만으로도 경직되고 세상의 모든 공포를 만들어내는 <철의 장막>, 그 중심지라고 생각했다.

이런 고풍스러운 정서가 서린 아름다운 장소라고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없다. 전쟁의 상징인

대포들이 줄지어 서있어도 내가 본 크레믈린은 인간 심성의 보들보들한 속살을 자극시키는 감성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을 와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또 하나의 세상보기 경험이었다.

오랜 세월 정확한 지식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지독한 편견인지....



<크레믈린 정원>

정원에 서서 이반 대제의 종루를 중심으로 한 성당 군(群)을 바라보고 있자니, 100여년 전(1896년) 이곳을 방문했던 민영환 선생님이 생각났다.

민비가 살해되고 시시각각 조여 오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항,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종의 특사로 민영환 선생은 니콜라이2세 대관식에 맞추어 이 나라에 왔다.

10시간 만에 날아온 나에 비해, 50여일 걸린 민영환 선생님 일행의 여정은 정말 눈물겹기까지 했다.

대관식은 바로 이 우스펜스키 사원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나 민영환 선생님은 대관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성당 내에서 남자는 모두 모자를 벗어야 하는데, 이 곳곳한 조선 선비는 끝까지 갓 벗기를 거부하셨다.

우리 정서로는 의관을 정제(整齊)함이 예의였으니 기개 높은 이 양반은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분명 분개하고 허탈해 하시면서 나처럼 이 정원에 서서 금빛 찬란한 성당을 입맛 다시며 바라보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정말 내가 서있는 자리가 민영환 선생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라고 믿고 싶어져 앞서가고 있는 안순배씨까지 불러 사진을 찍었다.

잠시 문화적 충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신 민영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떠올랐다.

건륭제를 뒤따라 열하에 들어간 우리 사신 일행은 건륭제의 명으로 그곳에 와있던 판첸라마를 만나야 했다.

사라진 명나라와의 신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청의 군주에게 예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죽을 맛인데, 이제 유교도 아닌 티벳불교 수장에게 머리를 조아려야하니 난리가 났다.

그러나 황제의 명은 지엄했으니 사절단 사신은 판첸라마를 만나야 했다.

사신은 꺾을 내서 판첸라마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척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그 꼴을 보면서 ‘참, 촌스러운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 아직도 세계정세가 어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구닥다리 예의 높에 빠져 외국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관리들이 한심했던 것이다.

또 판첸라마가 우리 사신들의 무사귀환을 빌며 준 금불상을 엉겁결에 받아 들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 꼴도 보셨다. 숙소로 돌아온 관리들은 대책회의 끝에 압록강에 불상을 빠트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 불상은 국내로 드러왔다가 성균관 유생들의 데모로 결국 없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민영환 선생님보다 100여년 더 이전의 사람이셨지만, 이미 외국 문물을 보는 눈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너그러웠던 것이다.

나라면? 아이고 ! 갓만 벗었을까, 상투까지 풀라면 풀었을까?

연암 박지원 선생님 같은 높은 안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 좋은 구경거리를 어찌 포기 하겠는가?

우리는 크레믈린을 나와 걸어서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붉은 광장으로 가기로 했다.

비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크레믈린을 감싸고 있던 해자(壕字)는 완전히 말라 모스크바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변해 있었다.

공원의 예쁜 꽃들과 크레믈린은 멋지게 어울려 있어 이런 낭만을 가질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부럽다.

크레믈린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들은 거의 역사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또 거대하고 고색창연하다.
유명한 볼쇼이 극장은 수리 중이라 정수리 부분만 조금 내놓고 싸구려 포장지에 싸인 선물처럼 서 있다.

극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마르크스 동상은 아직도 어느 세상인지 분간도 못하고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눈가득 카리스마를 뽐고 있다.

고급스런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를 통과해 지하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다.

건물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우주선을 탄 듯 한 현대식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고급 식당인지 종업원의 몸가짐이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더 더욱 처음 먹는 러시아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어 모두 얼굴이 환해졌다.

신선한 샐러드와 고운 빛깔의 토마토 스프는 환상적이었다.

스프 가운데 동동 떠 있는 마요네즈 비슷한 고메타나 소스를 푸니 새콤해지면서 구수한 깊은 맛이 났다.

메인 요리는 감자와 소고기를 볶은 것이다. 이것도 알맞게 익은 감자가 살캉거리며 씹히고, 고기도 부드럽고 기름기도 적당해 아주 맛있다. 올리브기름에 소금, 후추로만 간한 것 같은데...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다.

러시아 정식은 거의 이런 코스로 나온단다. 스프는 재료에 따라 야채, 고



<크레믈린 성벽과 해자공원>



<식당> (사진: 안순배)



<토마토 스프>

기, 생선 스프가 되고 메인 요리는 재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감자는 거의 따라 나온단다.
안순배씨한테 매일 이런 요리만 먹여 달라고 애교를 떨었더니 걱정 말란다.

즐거운 점심을 먹고 나오니 꽤 굵은 비가 내리고 있다. 비도 피할 겸 굼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타원형의 투명한 천정으로 환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건물은 1890년대에 지어졌다지만 3층 건물에서 1,2층에는 현대식 상점들이 촘촘히 들어 차 있고, 세계 유명 브랜드는 다 있는 듯 했다.
절대 일반 서민들이 쇼핑 할 수준은 아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우리 같은 외국 관광객과 주말이어서인지 구경나온 러시아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결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커플도 많이 눈에 띈다. 백화점이라기보다 영화 세트장 같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있으려니, 여기도 저기도 온통 남녀가 끌어안고 키스! 키스!..... 또 키스!



<굼 백화점 내부> (안순배)

그것도 짧은 입맞춤이 아니라 아주 포르노를 찍는다. 참 적응하기 힘든 정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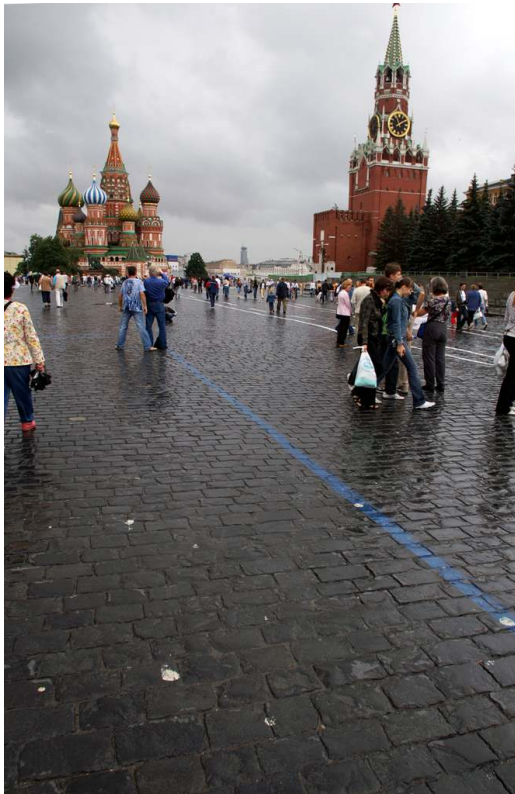
비 내리는 붉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
그러나 비가 소음을 다 먹어버려 박제가 되어버린 풍경처럼 보인다.
시공간을 넘어 손을 대면 사라질 것 같은 신기루 같은 정취가 낭만적이긴 하다.

붉은 광장 !!

러시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모두가 제 1의 목표로 삼는 곳!
크레믈린 성벽과 바실리 성당, 굼 백화점, 역사박물관, 우크라이나 호텔 등에 둘러싸인 광장은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아름답다.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색채감으로 동화 속 세상 같은 초현실적 존재이다.

칸딘스키의 그림 같다.

그림으로 시각 언어를 찾아 헤맨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추상, 공간의 환영(幻影)성, 우주를 담고자한 형태의 연속성 등이 이 붉은 광장에도 다 녹아



<붉은광장> (안순배)

있다. 정말 러시아 조형예술의 최고봉이다.

TV에서 혁명 기념일 날, 공산당 간부들이 열 지어 행진하는 군인들에게 의례적인 박수를 보내고, 또 동원된 시민들의 무표정하고 경직된 얼굴이 크로즈업 되던 붉은 광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광장을 메운 사람들만 부산하게 오갈 뿐 붉은 광장은 평화롭다.

내가 생각한 붉은 공산주의 이념이 가시처럼 돈쳐 있는 광장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에 붉은 광장인 것이다.

슬라브 민족에게 붉은 색은 대지의 풍요이며 평화의 힘이고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그러니 이 광장은 러시아의 심장인 것이다.

바닥을 덮고 있는 검은 포석은 비를 흠뻑 머금고 반짝거려 더욱 운치 있다.

바실리 성당도 우리를 실망 시키지 않았다.

성당은 붉은 광장 주변 건축물 중 백미다. 이반대제는 주변의 카잔한국을 합병한 기념으로 1555년~1561년에 걸쳐 이 성당을 지었다.

사원 한가운데 약 47m의 종루모양의 팔각형 쿠폴이 있고, 그 주위에 8개의 양파모양 쿠폴이 있다.

비잔틴 양식과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이 합쳐져 이 나라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태어난 러시아 정교회 건축의 정수이다.

비잔틴 양식의 특징은 지붕을 다 덮은 거대한 돔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년 중 0도 이하의 겨울이 6개월이나 계속되면서 내리는 눈의 무게까지 감당해야하는 건축 양식으로서 부적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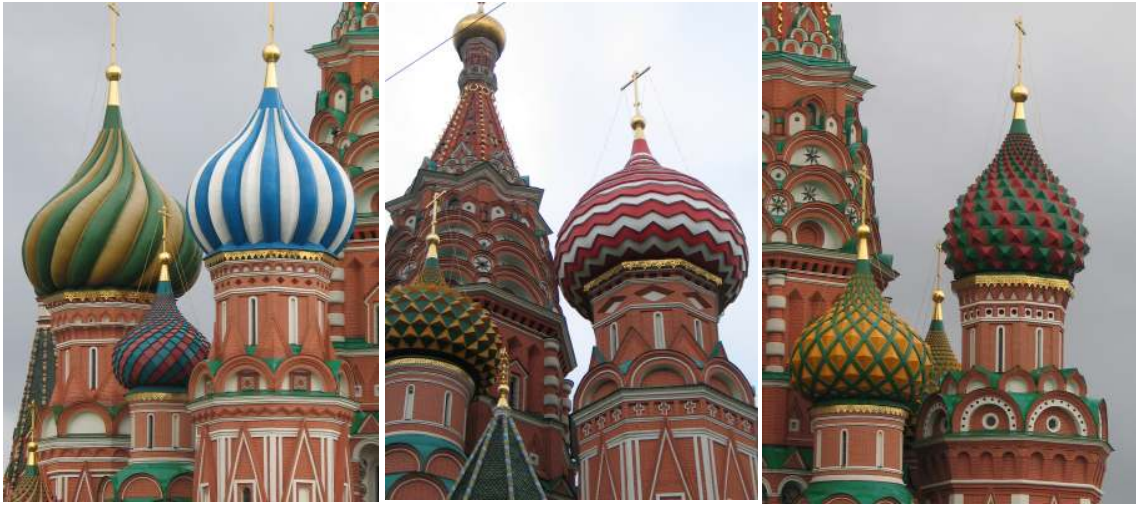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바실리 성당의 지붕 양식이다.

특히 바실리 성당의 쿠폴은 다양한 형태, 색감, 배치 등으로 러시아인들의 예술적 취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보아도 불규칙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체를 다 담아도 조각조각 쪼개어 담아도 이 성당 사진은 프로가 아니어도 예술사진이 된다.



<바실리 성당>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긴 줄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지만 내부 구경을 선택했다.

성당 내부는 외관에 비해 허술하고 좁고 낡았다.

이 성당의 450년 세월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쿠폴 하나하나가 방이 되는지 작은 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다.

그 방들은 예배실로 많은 이콘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성당에서 내 관심을 끈 것은 통로에 그려진 꽃 그림이었다.

이슬람의 모스크를 장식하고 있던 꽃들이 빈틈없이 그려져 있다.

연속된 배열과 문양, 색감이 오리엔탈리즘 그 자체다.

꽃은 모든 신들의 처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지만은 아주 흥미롭다.

어느 예배실에서 고운 아카펠라 미사곡이 흘러나왔다.

남성의 청아한 목소리는 여행자의 낭만적 감성을 일깨워 아련한 추억처럼 젖어든다.

“주여 ! 당신은 참 행복한 분입니다.”



<바실리성당 내부벽화>

바실리 사원 앞에는 1612년 폴란드 침공 때, 의용군을 조직해 목숨 받쳐 싸운 로마 검투사 복장의 미닌과 포자르스크 동상이 서있다.

동상 옆으로 높은 울타리 안에 3단의 돌 기단이 있었다.

꼭대기 기단에 동그란 흠이 파져있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 작은 흠에 동전을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자기야 ! 왜 저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

“글쎄 이곳에 돈을 넣으면
행운이 오나?”

“그러면 우리도 던져야지 !”
호주머니 동전을 다 털었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내심 나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처럼 동전을 던지면 다시 모스
크바에 올 수 있는 행운이 따
른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찾아보
니 전혀 딴 사람 허벅지 굵는
생각이었다.



<스텐카라진의 처형장소>

그 장소는 황제가 포고문을
읽고 죄인들 판결문을 읽었던 장소지만 가장 큰 의미는 라진의 난(1670
년~1671년)을 일으킨 스텐카 라진의 처형 장소였다.

15세기 중엽 농노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농노들이 자유를 찾아 러시아 변방
으로 숨어들어 역시 권력에서 밀려난 변방 수비대와 도망친 죄수 등과 힘을
합쳐 집단을 형성했다.

다양한 하층민들은 처음에는 수렵, 어로, 약탈 등으로 살았지만 점차 기세
가 커져 중앙정부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스텐카 라진이었다. 이들은 사회의 아웃사이드였으
나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 개척의 선두주자였으며 우크라이나 독립전쟁
의 주역이기도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복음이며 신화였던 라진은 러시아 민요와 서사시
에도 자주 등장한다. 점점 기세등등해진 이 집단은 라진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반란을 일으키니 그 수가 20만이 넘었다.

그러나 반란은 실패하고 라진은 이 광장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 끝에 사
지가 찢기어 죽었다. 우리가 행운을 빌면서 동전을 던지고 놀았던 곳은 영
똥하게 라진의 처형 장소였다.

라진이 죽은 뒤에도 러시아 민중들은 힘들 때마다 그가 부활해 자신들을 구
해 줄 거라고 믿었다. 오늘날의 러시아인들도 동전을 던지면서 마음속으
로 그를 추모하고, 또 그의 부활을 기원하는가 보다.

“어쨌든 주변에 러시아인만 있더라니....”

이반4세가 성 바실리 성당을 건설한 포스닉의 눈을 뵈어서라도 이 세상에
똑같은 성당이 세워지는 것을 용서 할 수 없었다는 건축물은 너무도 아름답
게 신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

왜 이 세상의 보석 같이 빛나는 건축물들은 한 결 같이 누군가의 피맺힌 눈
물과 한이 서려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이는 비장미까지 엿볼 수 있는 거겠지....

바실리 성당을 뒤로 하고 대기 중인 버스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가다 보니 시내와 크레믈린을 연결하는 석조다리가 나타났다. 다리 위 가로등에 걸린 핸드폰 선전 깃발을 보고 “아 ! 이 다리가 그 유명한 LG 다리구나!”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LG핸드폰이 아니라 삼성 ultra 2 핸드폰이다.

“아니, 삼성 다리도 있나?”
들어 본 적 없는 삼성 다리다. 한국인으로 LG이면 어떻게 삼성이면 어떠랴. 자랑스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전승기념관으로 가기위해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달렸다. 비 내리는 모스크바는 좁고 습해 괜히 우울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은 낡고 너무 거대해 획일화되고 통제되었던 사회주의 잔영이 깊게 배여 있다. 애정을 주고 싶어 미치겠는데 도대체 그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단 한 채의 개인 주택도 없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독립된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대단한 나라다.



<모스크바 시내의 아파트>

들로 꼭 찼다. 들러리들과 악대까지 동반해 흥겹게 결혼을 즐기고 있다. 하필 축복받는 장소로 피 냄새 배여 있는 이곳일까 싶지만, 저들은 전승에만 의미를 두겠지...

사회주의 체제 때, 의무적으로 이곳에 와 혁명전사로 열심히 살면서 자식 많이 낳고 나라에 충성을 맹세했던 관습이 지금도 남아있나 보다.



<삼성 울트라2 광고판>

참 꽃집이 많다. 경직된 도시가 유일하게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에 꽂은 예쁜 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을 것이다. 퇴근길에 시민들은 모두 꽃한 다발을 사들고 저 공룡 같은 집으로 들어가 꽃에 얼굴을 묻으며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나보다.

전승기념관 입구는 하얀 면사포를 쓴 신부들과 싸구려 택시도로 한껏 멋을 낸 신랑



<행복한 신랑신부>(안순배)

어찌되었던 그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니 나도 즐겁다.

기념관 건물은 지상 2층으로 반구형의 좁고 길게 만들어진 특이한 건축 양식으로 정면에서 보면 건물 자체가 추모의 벽처럼 보였다.

이 기념관의 백미는 1층 호국 추모실이다.

깊숙한 어두운 방 끝 정면에 하얀 모자상이 부드러운 조명을 받고 있다.

죽은 아들은 앙상한 가슴을 들어내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예수처럼 누워있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모자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황 빛 조명을 띄엄띄엄 받고 있는 샹드리에를 지나야 한다.

가는 체인 끝에는 눈물 모양의 크리스탈이 달려 있다. 그 수가 2,500만개가 넘는다는데 2차 대

전 당시 사망한 러시아의 아들들을 상징한단다.

눈물의 자국들을 올려다보며 걸으니 본능적인 아픔이 느껴져 숙연해진다.

모자상은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지는 못했



<추모실 샹드리에> (안순배)



<모자상> (안순배)

다. 그러나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 낯선 이곳의 모든 영혼에게 추모의 한 마디씩은 가슴으로 하게한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특별한 추모의 설치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러시아 민족의 특질을 보여주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아주 훌륭한 예술품을 감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쟁 영웅들의 이름으로 벽면 가득 채워진 2층 승리의 방도 러시아의 자력이 느껴졌다.
 이곳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은 이 방 분위기만으로도 애국심이 고취되지 싶다.
 이 위대한 조국을 지켜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결의? 머 그런 것 말이다.
 방 가운데 턱 버티고 서있는 영웅을 보라 !
 무적의 배트맨 모습 아닌가?

기념관을 나와 기념탑으로 갔다.
 167.5m의 탑은 하늘을 찌른다.
 탑에는 2차 대전 당시 나치를 무찌르고 차지한 도시 명이 나열 되어 있고, 꼭대기 부분에는 황금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다.
 탑의 전면 앞에는 말 탄 게오르기 상이 토막 낸 용을 밟고 서있다.

어느 나라나 전쟁기념관이 있다.
 그 기념관의 의미는 대체로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전승기념관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전쟁은 절대 안돼 !’ 가 아니라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일어났고, 앞으로도 우리는 강하게 살자!’ 가 이 기념관의 의미 같아 입맛이 쓰다.



<기념탑의 게오르기상>

다시 시내로 돌아와 모스크바 강에 떠 있는 선상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서커스를 보러 갔다.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유흥 문화라 2시간 동안 주리를 틀고 있었다.
 겨울이 길고 긴 나라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가 발달했고 이런 서커스도 그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자녀들을 대동한 많은 러시아인들로 극장은 만원이었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스포츠는 아름답지만 인간의 몸을 학대하는 저런 묘기는 슬프다. 더 더욱 나보다 힘센 동물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대



<서커스> (안순배)

놓고 길들여 야생성을
말살시킨 저 잔인
한 야비함은 경멸한
다.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사자가 강아지처럼
벌벌대는 것을 보는
건 고통에 가깝다.

호텔로 돌아오니 10
시 30분이었다.

8월 5일 (제 3 일) 종교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환상을 갖게 하는 곳, 수즈달.

오늘은 세르기예프 빠사드를
거쳐 수즈달까지 간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하늘은 여
전히 무겁다.

일요일이라 9시에 출발했는데도
막힘없이 도심을 벗어나 러시아
의 전원적 모습을 보게 되었다.

소박한 목조가옥이 줄지어 서있
고 푸른 들을 보니 숨통이 트이
는 기분이다.

1시간 남짓 온 것 같은데 벌써
도착이란다.

성 세르게이 트로이체(삼위일
체) 대수도원의 종루와 양파 지
붕들이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늘빛보다 청아한 우스펜스키
사원의 양파 돔은 너무 신선해
눈부시다.



<성 세르게이 트로이체 대수도원>
(안순배)

이 수도원은 14세기 성자 세르
게이(1314~1392)의 작은 오두막
집에서 시작해 오늘날과 같은 대
수도원으로 발전했다. 성 세르게
이가 이곳을 찾아들었을 땐 러시
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던 힘든 시기였다.

키예프 공국 시절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는 일시에 황폐해지고 국민적 자존
심도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점령지의 종교 활동에 너그러웠던 몽골의 정책으로
정교회만큼은 삶이 고단한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더욱 발전했
다. 특정한 종교관을 갖지 못한 몽골은 교회와 수도원에 면세 특권을 부여
하고 재산도 보호해 주었다.

또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준 대가로 많은 재산을 기증하여 몽골 지배 말기에는
경지의 1/4이 교회 소유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과도한 세금, 징병 등으로 고단한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수도원이 생기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주변에 마을이 형성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도시 세르기예프 빠사드이고, 그 중심이 성

세르게이 트로이체 대수도원이다.

성 세르게이는 수도원 안에 병원, 학교도 세우고, 목각 공방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이 도시의 러시아 전통 인형, 마뜨료시카를 비롯한 목각 공예품은 지금도 유명하다. 번성한 이 수도원은 러시아 정교 수도원의 본산과 같은 성지가 되었으며 성 세르게이는 금욕과 자비와 연민을 베푼 시성으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세르게이는 또 신비스러운 예지와 지혜로 사회적 명성까지도 얻었다. 이런 능력으로 권력가도 가까워져 그의 사후 러시아 정교회는 짜르를 지지하며, 종교적 영감을 주는 세속적·정치적 의미와, 또 그 권력을 멀리하고 세상사와 단절하여 정신적 수양을 목표로 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종교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16세기에 세워졌다는 수도원 성벽은 군사 요새보다 튼튼해 보였다.

우리는 우스펜스키 문으로 들어가 성문 세례요한 성당을 통과해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성문 성당 벽의 프레스코화가 범상치 않다.

수도원의 공사 장면부터 역대 왕들의 방문까지 종교적 색채가 짙은 그림들이 신의 처소로 들어온 예의를 잊지 않게 한다.



<성문 성당의 예수>

수도원은 많은 사람들로 상당히 붐볐다.

오늘이 일요일이라 대부분 신자로 보였다. 젊은이는 보기 힘들고 거의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다. 관광객은 우리와 일본인들 한 팀 뿐이었다.

수도원은 명성대로 꽤 넓었다.



<성문성당의 성모>

우스펜스키 사원을 중심으로 트로이체(삼위일체)사원, 스몰렌스야키 예배당, 종루, 성수터, 황제의 영빈관, 신학교 등이

소박한 정원과 어울려 은자들의 특별한 구역임을 암시하듯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머리 수건을 쓴 소박한 여인들이 수도원 내에 있는 모든 성화에 입을 맞추고 경배를 드린다.

우리는 성 세르게이 시신이 안치된 삼위일체 사원으로 갔다. 수도원 내 9개 성당 중 가장 먼저(1422년) 세워진 건물이다. 수도원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긴 줄을 만들고 있었다. 줄 선 신자들은 성 세르게이 관을 가깝게 보고 친구(親口)하기 위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같은 여행객은 줄을 무시하고 입장 할 수 있었다.

성당 내부는 2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입구의 작은 방은 이콘의 전시실처럼 사방 벽이 온통 성화로 가득 차있다.

여러 이콘 화가들의 작품인지 안드레이 루블료프의 삼위일체 이콘과 비슷한 작품만도 여러 점 있다.

이 작은 방을 통과하면 회중석이 나온다. 위엄 있고 화려한 성소는 순식간에 사람을 압도했다.

장식이 화려하다 못해 현란하기까지 한 이코노스타스는 절대적 권위의 힘이 느껴졌다. 만유를 주관하는 예수의 몸이며 정신이고 말없는 설교였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신의 찬미대(讚美臺)였다.

모스크바 크레믈린의 우스펜스키 사원에서 받았던 감동이 또 다시 밀려왔다.

루블료프의 이콘이 주는 부드럽고 섬세한 선과 색감이 주는 따뜻한 감성은 느낄 수 없었지만 정신적 영성의 세상에서 깃털처럼 떠 있는 듯한 공간적 부유를 느꼈다.

비잔티움의 과도한 장식주의에서 탈피했다지만 어떻게 이 보다 더 장식 할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가 아니라 위대하다.



<삼위일체 성당의 이코노스타스>

이 수도원이 또 유명한 것은 러시아 최고의 이콘화가 루블료프(1370~1430)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세르게이의 시성에 감화된 루블료프는 이곳에서 성당 내부 장식을 맡아 작업했다.

러시아 정교회를 이해하는데 루블료프는 중요한 키워드다. 그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는 이코노스타스의 확장이다.
 원래 비잔틴 정교의 성당 이코노스타스는 상징적으로 지성소와 회중석을 구분 짓는 형태로 그 높이가 낮아 반신상의 성상화로 이루어졌는데, 루블료프가 이코노스타스 높이를 극대화 시켜 지성소와 회중석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각 성상들을 전신화 시켰다.
 이로 인해 지성소는 더욱 신비한 장소로 부각시키고 이코노스타스는 성스러운 표면의 확대를 가져와 예술적 표현의 극대화가 가능해졌다.
 이코노스타스는 루블료프에 의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성당 내부 장식의 의무적 부분이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루블료프의 이콘에 의해 비잔틴 정교 이콘과의 차별성이 이루어졌다.
 초창기 이콘은 비잔틴 정교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해 강렬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극적이고 엄격함을 강요했다.
 인물의 대비나 구도도 엄격해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루블료프는 부드러운 색감과 선, 단순한 색 사용, 자연스러운 조화로 시적이며 음악적인 영혼의 전율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를 심판자라기보다 용서하고 구원 해주는 온유한 자로 그렸다.

루블료프 최고의 걸작은 <성 삼위일체>다.



<성문세례요한 성당의 삼위일체>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아들 출생을 고지하며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묘사가 원형의 구도 속에 러시아 정교의 중요한 기본교리인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가 가장 조화롭게 나타나있다.

세 인물이 균등한 비례로 표현되어 완전한 화합을 상징화 했다는 평을 듣는다.

이런 이론적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 안정감 있고 무엇보다 가운데 앉은 성자, 그리스도의 질은 푸른빛 옷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평화롭다.

이 삼위일체 이콘이 처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성당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영원한 보존을 위해 모스크바의 트레짜콥스키 미술관으로 옮겨 보관 중이다. 성당에는 전혀 다른 삼위일체 이콘이 걸려있었다.

수도원을 들어오다 보니 성문 세례요한 성당 벽에 루블료프의 삼위일체 그림이 모사되어 있었다.

우리 부부는 성당의 장식뿐만 아니라 세르게이의 관에 입을 맞추며 무언가를 간절히 간구하는 신자들도 오래도록 서서 구경했다.

삼위일체 성당을 나와 식당과 세르기 교회가 붙어있는 건물로 갔다.

이 교회는 건물 외관이 특히 아름다웠다. 코린트식 기둥의 부조가 분부시게 아름답다. 기둥 전체가 포도 넝쿨 같은 식물 부조로 장식되어 있고, 벽면에는 원색의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져 있다. 식당의 커다란 그림도 인상적이다. 구약성서의 내용인데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등이다 교회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었다.



<세르기 교회>

이 교회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같은 구조로 넓어 수도원에서 실질적인 예배를 보는 장소 같았다.

200여명이 넘는 신자들은 모두 서있고, 창 쪽으로도 남녀 신자들이 서서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교인들을 뚫고 앞으로 갔다.

황금빛 옷을 입은 사제는 앞으로 나오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

교인들은 주로 나이 든 여자였고 소박한 시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사제의 축복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러다 사제 앞으로 나아가면 대부분 눈물을 흘렸다.

조용한 슬픔을 온 몸으로 나타냈다.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입에서는 “가여워라. 가여워라....”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지만 내 맘이 그랬다.

대단한 존재 앞에 서있는 나약하고 조그마한 인간에 대한 연민 같기도 하

고, 낡은 옷이 주는 시각적 안쓰러움인 것도 같고, 벅차오르는 영적 감정을
 힘들여 참고 있는 모습이 서럽기도 했다. 나도 목이 메어왔다.
 의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신자들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음
 으로 계속 읊조렸다. 시를 낭송하듯...
 나중에 알았지만 “주여 !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 당신께 맡기겠나
 이다!” 라는 말이란다.
 오만하고 배은망덕한 우리 인간이 누구 앞에서 저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출
 수 있단 말인가? “주여 ! 당신은 위대하고 참 행복한 분입니다.”
 지루하고 한심한 설교 없이 전례만으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여 인간이 체
 험 할 수 있는 극상의 미에 도달하게 한다.
 음악, 건축, 성화, 촛불, 향냄새,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저 겸손한 인
 간.....
 러시아 정교회 전례는 성스러운 종합 예술이었다.



<간구가 애절한 여인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나구?
 “아 ! 내가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극적인 감화에 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어리지도 않고 또 이기적
 이다. 그리고 나의 이 넘치는 사랑을 어찌 한 분으로 한정 하겠는가?
 나는 모두 모두 칸막이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며 살란다.

갑자기 기골이 장대한 붉은 얼굴의 사제는 어떤 암시도 없이 <황제의 문>
 으로 사라져 버렸다. 금빛 망토만 한 번 번쩍하고 말이다.
 그래도 신자들은 어떤 흐트러짐 없이 “주여 !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를
 외친다. 우리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수도원 가득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종소리는 높은 종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세르기 예배당과 우스펜스키 성당
사이에 있는 두호프스카야 성당의 지붕 종루에서 울리고 있었다.
사제는 여러 개의 종 사이를 오가며 온 몸으로 종을 치고 있었다.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있었다.
솔직히 종소리 자체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사제의 포퍼먼스에 빠져 그의 몸
움직임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특별한 음색을 갖지 못한 종소리는 단조로웠다.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 호젓한 신학교 앞 오솔길을 걸었다.
한 마디로 설명 할 수는 없지만 맛있고, 따뜻하고, 풍성한 성찬을 받은 느
낌이 가슴에 밀려왔다.
웬지 삶이 고마워, 생명이 아름다워, 신랑 손을 꼭 잡고, “자기야 ! 고마
워!” 라고 속삭였다.
신랑도 “나두.. 그런 뜻에서 우리 아무도 없는데 뽀뽀나 할까?”
“아이구 ! 내가 참았어야 했거늘”

어린 시절,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년 이 수도원에 순례
를 왔었다.
그런 성스러운 경험이 있었기에 온갖 인간적 약점과 모순적 생활 속에서도
그는 신앙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에
서 영생을 얻었다.

점심은 수도원 앞에 있는 예쁜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러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목공예 마을답게 사람 피부빛 같은 따뜻한 느낌의
목조 건물이었다. 실내 장식도 동화 속 과자 집처럼 아기자기 했다.
음식도 훌륭했다. 스프가 우리나라 뚝배기 비슷한 사기그릇에 담겨 나왔다.
여러 가지 야채랑 소고기를 끓여서 만들었는데 일반 스프보다 걸쭉했다.
후후 불어야 할 정도로 따끈한 것이 아주 친근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오래오래 정성들여 끓인 것 같다.
한국 사람은 따뜻한 음식에 태생적인 애정을 느끼지 싶다.

오늘의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수즈달로 향했다.
수즈달로 가는 길은 참 평화롭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북동쪽에 12~17세기의 고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도시
를 연결하면 거의 원 모양이 된다.
그 도시들은 지금도 중세 러시아의 모습을 간직하고 오래 된 성당, 수도원,
건축물들이 몰려있어 <황금의 고리>라고 불리 운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가장
러시아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수즈달로 가는 길에 만난 러시아의 전원풍경> (안순배)

스위스나 뉴질랜드처럼 신선한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진 않지만 자작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황금빛 밀밭은 소박한 농부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훈훈한 정서가 있다.

터키의 콘야 평원과 비슷하다. 그러나 콘야 평원보다 하늘이 가깝게 떠 있고 맑은 강이 흘러 더 낭만적이다.

또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멋을 낸 그들의 목조 가옥과 다차들이 성당의 쿠파들과 어우러져 밀레의 <만종> 같은 분위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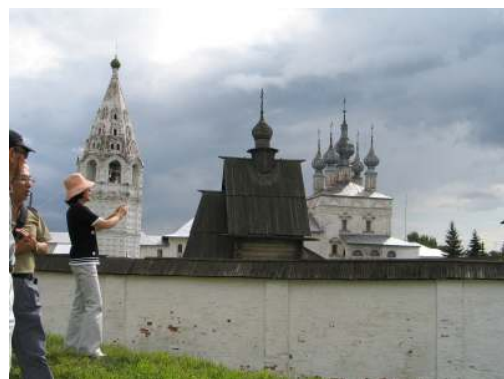
들판에는 소박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쉽다면 우람한 팔뚝의 러시아 어머니들이 이 풍경 속에 밭일을 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일 하는 사람은 볼 수 없고 강가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낚시꾼만 볼 수 있었다.

황금 고리의 중세 도시 중 하나인 유리예프 폴리스키에에서 과일을 사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작은 고도는 현재의 역사에서 잊혀진 듯 쇠락했고, 사람들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삶의 의욕을 잃은 얼굴들이었다.

한 때는 이 도시 시민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었을 커다란 수도원은 폐허 직전의 모습이지만 옛 기개는 느낄 수 있었다.



<쇠락한 수도원 풍경>



<자전거의 낭만>

정원의 붉디 붉은
꽃들만 생명의 운
회를 짐작케 한
다.

수즈달에 도착
하니 4시 30분 쯤
되었다. 저녁 식
사는 6시에 하기
로 했으니 홍선생
부부와 주변 산책
을하기로 했다.
그 때, 안순배씨
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자전거 타실 수

있으세요? 이걸 타고 한 바퀴 도시죠!”

“자전거? 멋진 생각인데....”

다행히 홍선생도 자전거 맹은 아니었다.

1시간에 100루블(4,500원 정도)을 지불하고 자전거 위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다. 20년 만에 타는 것이라 어설프고 약간의 공포심까지 든다.

일본 유학 가 있을 때는 하루도 자전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친근한 것인
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더니.....

몇 바퀴 돌고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도로로 나서 달리니 속도감이 주는 짜릿한 본능과 주변의 경치에 취해 금방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수즈달 !

어찌 이리 고요할까?

시간도 가만가만 흐르고 고양이조차 낮게
날아다닌다.

소리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카멘카 강도 이곳 풍경에 녹아 성서의 말씀
대로 흐른다.

50여개 사원의 쿠플들은 햇빛을 받아 침묵
속에 빛난다.

대기는 평화로운 정적에 싸여 고른 호흡을
하며 그분의 존재만을 느끼고 있다.

나폴레옹의 추억을 담은 수도원 종루는 보



드라운 저녁 햇살을 받아 담홍색으로 물들고,
리조포로젠스키 성당의 하얀 몸체는 정직과 순결의 입김으로 더욱 성스러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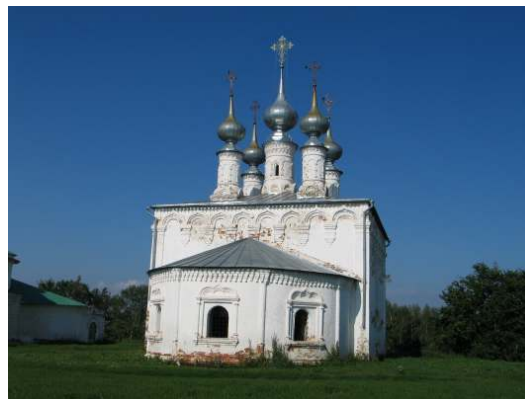
이 세상 어디에 수즈달 만큼 신과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여 각별한 신앙의 창조가 넘치는 곳이 있을까?

모든 자연은 성호를 긋고 몸을 낮추어 초를 켜고 찬미의 시를 읊는다.



바람과 함께 춤추며 가는 신랑은 그림이 되고
뒤따라오는 흥선생 부부는 시가 된다.
흥선생은 자전거와 언제 그렇게 사이가 좋아졌는지
앞어지고 뒤집어지면서 몸을 비빈다.

그런 마누라 뒤따라오면서 동현아빠,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고 있다.
언제든지 나를 잡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아 ! 그래서 자전거는 연애 선수구나.
아 ! 그래서 자전거는 낭만이고 문학이구나.



수즈달은 러시아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인 키예프 공국(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였으나 12세기 말, 키예프 공국이 분열되면서 짧은 기간 블라디미르-수즈달 공국에 속해있었다.

그 후 14세기, 수즈달 공이었던 유리 돌고루키에 의해 공국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옮겨지면서 이 도시는 독자적인 힘을 잃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문화 중심의 도시로 남게 되었다.

18세기 말에는 1,000호 정도의 도시에 100여개의 교회가 있었다니 온 도시

의 하늘은 교회의 쿠파와 종소리로 가득했을 것이다.
지금도 교회 수만 반으로 줄었을 뿐 신의 도시로서의 영광은 계속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만난 많은 교회들은 전부 손질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당으로서의 역할은 끝나고 유적의 의미만 간직한 곳이 많았다.
그래도 교회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성스러운 기운이 곳곳에 흐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호텔로 돌아왔다가 식사 후, 다시 마을 산책을 했다. 우리가 머무는 호텔과 마을 사이에는 조그마한 그러나 운치 있는 나무다리가 있었다.

우리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고 불렀다.

지붕은 없지만 소박한 정서가 비슷했다.

모두에게 너무 사랑받은 다리는 깊은 밤, 쏟아지는 별과 은빛 강물과 반짝이는 백양나무, 잔소리장이 갈대에게 피곤을 하소연 했을 것이다.

밤 9시가 넘었지만 밤은 쉽사리 오지 못하고 있다.



<호텔 뒤 나무다리>

8월 6 일 (제 4 일) 중세의 얼굴 뒤에 현재의 몸을
숨기고 있는 곳, 블라디미르



<수즈달의 새벽 물안개>

5시에 눈을 떴다.
짧은 밤을 보낸 하루가 물안개를 데리고 내 창 앞에 서있다.
호텔 방에 앉아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즈달의 새벽이다.
우리는 짐을 정리해 놓고 산책에 나섰다.
신선하고 향기로운 대지는 밤과 낮의 경계선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그녀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말없이 걸었다.
어느 시인은 ‘눈을 밝으면 귀가 트인다(오탁번)’ 더니 새벽 물안개는 느리고 촉촉한 세상의 사랑을 깨운다.

1시간 정도를 걸어 <메디슨 카운티 다리>로 왔다.
먼저 와 있던 일본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어제 우리를 보았단다.
A여인 - “최근엔 어딜 가나 한국인들을 보게 되는군요.”
B여인 - “이제 한국도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요?”
다정하고 친근하게 한 소리지만 왠지 심정이 상한다.
우리보다 무엇이든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자신들의 우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6년을 일본에 살면서 그들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더 많이 보았다.
특히 그들의 예의바른 행동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과 대화 할 때, 저런 종류의 말투는 꼭 들어있다.
수없이 당했지만 또 씹쓸해 진다.
하기야 예민한 족수를 세우고 그런 걸 감지한다는 자체가 콤플렉스 일 것이다.

아침을 먹고 걸어서 수즈달 구경에 나섰다. 어제 우리 4명은 자전거로 돌아다녔지만 다른 분들은 호텔 가까운 곳에서 산책만 하셨다.
수즈달은 자그마한 도시라 큰 버스로 이동하기는 좀 우습다.



<소박한 예술이 묻어있는 집>

소박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술적 감각이다.

이런 면이 도스토예프스키로 하여금 <프랑스 사람들의 낭만적 기질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소수의 소유물이지만, 러시아 민족의 낭만은 현실적이고 실제적 목적에서 발견하는 것이며 아름답고 고귀한, 좋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 것 아닐까?

햇살을 담백 받은 카멘카 강의 수초들은 모네의 수련처럼 떠있다.



물론 구석구석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발로 걸어야 수즈달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어느 한 곳도 놓치기 아까운 풍경 때문이다.

집들은 대부분 낡은 목조 가옥이지만 창을 중심으로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해 장식해 놓았다.

그 옛날 우리가 창문을 장식한다고 종이를 오려 여러 문양을 만들어 붙였듯이...

그 문양이 집집마다 개성이 있다.

러시아를 오기 전에 푸시킨의 <루살까>라는 시를 읽었다.
루살까는 슬라브 민족의 대표적 민중 고유의 정령으로, 강이나 호수에 사는 물의 요정이다. 긴 머리를 가진 미모의 요정은 물가에 앉아 노래와 춤을 추며 남성들을 유혹한다(그리스 신화의 <사이렌>과 비슷함).

호숫가, 깊은 참나무 숲 속
 수도사 언젠가 정진하고 있었네.
 언제나 엄격한 일과(日課).
 근행과 기도라 노동.
 겸손한 삶으로 노인 이미
 자신의 무덤도 파놓았네.
 갈망하는 죽음에 대해
 성인들게 기도만 할 뿐.

여름 어느 날, 쓰러져 가는
 오두막 문지방 옆에서
 이 은자 하느님께 기도 드렸네.
 참나무 숲 어둠에 뒤덮이고
 호수 위로 차 오르는 안개
 구름 속의 붉은 달
 고요하게 하늘을 부유하네.
 수도사는 수면을 응시하네.

건잡은 수 없이 겁에 질려
 영문도 모르는 채 바라보는데...
 물결이 일렁이더니, 보야하니
 갑자기 또 다시 잠잠해지는 거라...
 그런데 별안간... 한밤의 그림자처럼
 날렵하고, 언덕의 첫눈처럼 새하얀
 알몸의 처녀가 나타나
 말없이 물가에 앉아 있었네.

늙은 수도사를 쳐다보며
 축축한 머리카락을 빗질하는데.
 성스러운 수도사, 겁에 질려
 루살가의 아름다움 바라보았네.
 루살가 그에게 손짓하고
 재빨리 고개 끄덕이는데...
 갑자기 별똥별처럼 잠에 취한
 묵밀으로 숨어버렸네.

우울해진 노인네, 밤새 잠 못 이루고
 하루종일 기도조차 하질 못했네.
 건잡은 수 없는 생각과 함께
 처녀의 기적 같은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네.



(사진 안순배)

참나무 숲, 또다시 어둠의 옷 입고
구름 따라 달이 흐르는데,
별안간 항홍도록 새하얀 그 처녀
또다시 물위에 앉아 있었네.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저 멀리서 희롱하며 입맞춤 하네
애들처럼 물장구치며 놀다가
깔깔거리다가 웅다가
수도사를 부르며, 나지막하게 신음하
데...

(수도사님, 수도사님! 제게, 제게 오세
요!...)

그러더니, 별안간 투명한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사방은 온통 고요에 잠겼네.

사흘째 되는 날, 정열에 휩쓸린 은자
매력적인 물가 가까이 앉아
아름다운 처녀를 기다리고 기다렸네.
참나무들 사이로 그림자 드리우고...
여명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데도
수도사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네
애들이 본 것은 물 속의
흰 수염뿐이었네.

-푸시킨-



(사진 안순배)

시를 읽은 느낌?

물론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진부하고 유치한 구석도 있
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즈달의 카멘카 강가를 걷고 크레믈린의 언덕에 올라
서니 이 시가 생각 생각났다.

시의 아름다운 정경은 허상도, 과장도 아니었다.

이렇게 존재하고 시의 아름다운 운율도 흐르고 있다.

“아 ! 그 시를 적어왔어야 했는데...”

이 경치에 흠뻑 빠져있는 우리 일행들이 더 행복해 했을 텐데...”

크레믈린 광장에는 간이 시장이 서 있었다.
주변 농가 여인들이 농사지은 채소와 유제품을 팔고 있었다.
우리는 벗찌 내지는 오디 비슷한 열매를 샀다. 그다지 맛있지는 않았다. 짬만드는 열매인가보다.



<아침시장>

수즈달에서 가장 멋진 푸른 쿠폰을 가진 보고로디츠아 로지에스트벤스키 대성당으로 갔다.

거대한 종탑이 인상적이다. 성당은 보수 중이라 어수선했다. 이 성당은 수즈달 최고의 성역으로 주변 성당들의 본당 역할을 하는 곳이다.
19세기의 주교, 아르세이의 묘도 안치되어 있다.
왕이 오면 머문 영빈관 건물도 있어, 벽엔 푸틴 대통령이 왔던 기념사진도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아카펠라를 들려준 남성 4인조>

전반적으로 장엄함은 떨어지지만 격조 높고 단아한 실내악을 듣고 있는 듯 했다. 이콘의 액자에 유난히 금박 장식이 많다.
남자 4명이 아카펠라를 들려주었다.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듣는데 가장 훌륭했다. 우리 모두는 숙연해졌다.

이 성당 최고의 볼거리는 <황금의 문> 자라티에 부라타이다.
13세기 작품으로 나무 위에 반원형 나무틀을 만들고 바둑무늬로 구획을 지어 검은 칠을 한 다음 동판을 붙였다.

성당은 본당답게 이코노스티스가 5단이다.

16세기에 그려졌다는 프레스코화는 순수 자연물감으로 그려졌다는데, 느낌이 따뜻하고 온화했다. 천정에는 예수의 일생이 그려져 있다.



<황금의 문>

이 동판 위에 금으로 성경 그림과 장식 모티브를 그렸다.
 많이 훼손 되었지만 러시아 유일의 금 문장 문이다.
 15세기 경, 권력의 중심이 모스크바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 했던 지를 알려주는 상징이다.

성당을 나와 강 건너 편에 있는
 목조 박물관으로 갔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
 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용인 민속
 촌이다.
 그 중심에 프레오블라젠스카야 성
 당(1756년)이 있다.
 러시아 목조 성당의 원형이다.

아름답고 아주 특이한 건축물이
 지만 목조 건물의 단점인 영구성
 은 전혀 없어 보였다.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온 몸으
 로 받아들여 수시로 보수를 받아
 야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무를 연꽃잎 내지는 생선 비늘
 처럼 하나하나 깎아 쿠파를 만들
 었는데, 그 정교함이 대단하다.
 신을 찬양하는 러시아인들의 소박
 한 신앙심과 상상력이 느껴졌다.



일반적인 농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목조 가옥(이즈바)에 들어가 보았다.
 이즈바는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에 홈을 파 잇는 방법으로 지은 아주 단단
 한 통나무집이다.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내부는 원룸 형이다. 농사짓는 것 말고
 는 대부분의 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눈의 하중을 피해 지붕의 경사는 급하고 창문은 집 덩치에 비해 굉장히 작
 아 집안은 항시 어두웠을 것이다. 못을 쓰지 않는 이유는 비나 눈으로 못을
 박은 자리가 쉽게 썩기 때문이란다.
 집의 가장 중심은 벽난로(삐치)가 있는 주방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운치
 있는 벽난로가 아니라 집안의 1/4정도를 차지할 만큼 크다.
 벽난로에서 모든 음식이 만들어지고 벽난로 안에서 생선, 고기, 버섯 등을
 말리거나 훈제시켜 저장 음식을 만든다.
 또 벽난로 위는 집안 최고 연장자의 잠자리가 된다.
 벽난로는 실제적인 생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 집의 훈이
 다. “삐치가 잘 놓여있구만.” 하는 의미는 그 집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다는 뜻이란다.

<프레오블라젠스키야 목조성당>

빼치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구석이 <아름다운 구석> <붉은 구석>이라는 성스러운 장소다.

러시아인들은 나무가 교차하는 구석은 신성한 힘과 악의 힘이 교차하는 곳으로 악귀를 몰아내기 위해 이콘을 걸어두고 종교적 힘을 빌렸다.

그래서 이콘이 걸린 구석 앞에 식탁을 놓고 신께 축복을 받고 또 신을 찬양한다.

러시아의 어느 가정이든 이 <아름다운 구석>은 꼭 있다.



<아름다운 구석>

집 내부에서 가장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아이들의 잠자리이다.

아이들 침상은 한쪽 벽에 선반처럼 걸려 있었다.

그 높이가 거의 천정에 맞닿아 30cm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겨우 기어서 나오고 들어가게만 되어 있다.

집안의 온기만으로 부족해 아이들은 서로 붙어 체온마저 나누었나보다. 얼마나 겨울의 추위가 심하면 저런 잠자리를 궁리 했을까 싶다.

형제간의 우애는 아주 깊어질 것 같다.

또 하나는 도대체 부부를 위한 사적인 장소가 없다. 그런데 저 선반을 가득 채운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났지?

유난히 문턱이 높다.

이들에게 문턱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부정함의 힘을 막아내는 파수꾼이란단다. 또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도 막고....

이런 믿음은 몽골이랑 똑같다.

몽골은 문턱을 신성시까지 해 앉지도 밟지도 않는다. 두 나라 역사의 교차점에서 생긴 공유 문화의 특질인가보다.

목조박물관 구경을 끝으로 이제 수즈달을 떠난다.

수즈달은 시계가 멈춘 것처럼 흘러 옛 중세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슬라브 민족의 정서를 가장 이해하기 좋은 곳이었다. 또한 가슴과 머리를 순하게 하여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은 곳이었다.

수즈달은 <황금의 고리> 도시 중에서도 다행히 철도가 들어오지 않아 옛 모습을 간직하기 쉬웠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앞으로도 이 모습이 계속 간직 될 거라고 믿는다.

러시아의 신앙심이 이 도시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로 향했다.

수즈달에서 블라디미르는 35km 정도 떨어져있어 금방 도착했다.

먼저 점심을 먹고 움직이기로 했다.

식당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있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쯤, 음악이 흘러나왔다.

당연히 이곳 직원이 연주하나보다 생각하고 별 관심 없이 있다, 돌아보니

“앗? 외계인이다.” 안순배씨를 나는 외계인이라고 불렀다.

테마세이투어에서 마 사장님을 제외한 유일한 남자 직원인데, 아직 젖내를 풍기는 청년이다. 그러나 결코 적은 나이도 아닌데 동안이다.

사무실에서 종종 보기는 했지만 여행은 처음이다.

며칠 지내면서 보니 우리 아들놈이랑 똑같다.

꼭 집어 말 할 수는 없는데, ‘이해하기 힘들지만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애정이 가는 그런 것이랄까?’ 가이드로서는 100점을 줄 수 없지만 새로운 여행 리더다.

무엇이든 해보라 권하고 많은 배낭여행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경험담이 즐겁다. 카메라를 여러 대 들고 다니면서 자기 물건에 깊은 애정을 보이는 꼴이 우리 아들이랑 똑같다.

다른 곳엔 별 감각이 없어 보여 조마조마하지만 큰 실수 없이 지나가는 여유도 있다. 전형적인 요즘 아이들의 표상이다.

아들을 보면서 난 항상 ‘저 놈이 외계인이지!’ 하며 쳐다보았는데, 여행길에서 똑같은 아들놈을 만난 것이다.

나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홍선생도 늦잠을 자는 건 아닌지, 아침 식사를 거르진 않는지 유심히 살핀다.

타고난 귀염성이 있어 모두 외계인을 예뻐라 한다.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 포즈를 주문해 귀찮기도 하련만 모두 특별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분으로 즐거워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피아노 연주까지..

“봐 ! 틀림없는 외계인이지!!!! ”

우리 아들놈도 군에 면회 간 아빠 앉혀놓고 나라 안 지키고 연습한 피아노 연주를 해 자기 아빠를 기절시켰다.

네를리 강가에 있는 포크로프 교회로 갔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꽤 걸어야 했다. 그러나 그 길이 근사하다.

강가에 서 있는 그림 같은 하얀 교회를 보면서 탁 트인 평원을 가로질러 간다. 소박한 들꽃을 보면서 걷는 기분이 참 좋다.

교회 주변에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수영을 즐기고 있다.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다.

보수 중인 교회는 작고 소박했다. 우리나라 큰 사찰에서 스님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작은 암자를 두듯 이 교회도 수도사의 기도를 위한 장소 같았다.

그 위치가 묘해 간월도처럼 우기에 강물이 불어나면, 교회는 섬이 되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지로 교회 내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니 <호수 위의 백조> 같았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유명한 것은 교회 외벽에 새겨진 부조 때문이다. 나도 아름다운 교회라서 이곳을 방문한다고 알고 왔는데 부조를 보고 놀랐다. 교회 자체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포크로프 교회> (안순배)

그러나 교회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자, 독수리를 비롯한 상상의 동물과 이 민족의 목각인형에서 볼 수 있는 여자 얼굴의 부조가 특별하다.

상상의 동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폰(사자 몸에 새의 머리를 가진 동물)같기도 하지만 단언 할 수 없다.

또 인물상은 그리스 조각에서 볼 수 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양 갈래 머리에 촌스러운 시골 소녀 같은 얼굴이다.

전반적으로 성스러운 교회의 장식이라기보다 장인들이 소박한 자신들의 끼와 신앙심을 나타낸 것 같다.

저 얼굴의 주인공은 <루살까>나 토속 신앙 속 대지의 어머니<모꼬쉬> 아닐까?



<포크로프 교회의 부조>

그리스 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초기 교회는 주로 이태리, 그리스인들의 주도하에 건립되었다. 그러다 그들이 떠나고, 그들 밑에서 조수 역할을 했던 러시아인들이 직접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이 교회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석조 건물(1160년대 초)이다. 블라디미르에 의해 러시아가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국민들은 혼란과 비탄에 빠졌었다.

지금까지 그들의 정신세계를 받혀준 민간신앙 속 여러 신들을 버려야했기 때문이다. 지독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살아야했던 민족은 그 자연 속에서 잉태한 여러 신을 섬기며 살았다. 인도, 이집트에 수많은 신이

있듯이....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도 쉽게 기독교가 정착한 것은 일반 백성의 민간 신앙을 흡수에 기독교화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상상의 동물과 여인의 얼굴은 러시아인들의 어떤 근원적 신앙심의 표현일 것이다.

가이드 철수씨는 모스크바를 떠나면서부터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기야 이런 곳까지 여행 오는 단체 손님은 테마세이투어 밖에 없으니 몰라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스펜스키 성당을 가기위해 블라디미르 시내로 들어갔다.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황금의 문(1164년 건설)>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섰다. 말만 황금의 문이지 성당처럼 황금의 купол을 가진 평범한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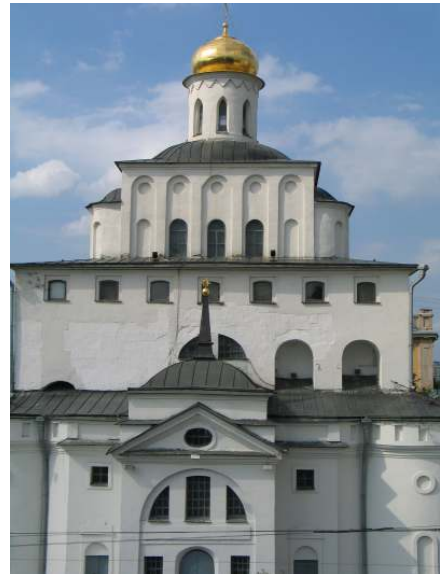
중앙에 높은 아치문이 있어 지금도 차들은 그 곳을 통과해 다니고 있다.

문 위에 유명한<블라디미르 성모상> 복사품이 걸려있다.

처음에는 하얀 석회암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회반죽을 발라 그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문은 블라디미르의 영욕의 세월을 다 지켜본 유서 깊은 역사의 증인이다.

블라디미르 시내를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혼란스럽고 도심은 더 확장되고 싶지만 길을 찾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황금의문>



<블라디미르의 우스펜스키 성당> (안순배)

나즈막한 언덕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우스펜스키 성당(1158년~1180년)은 명성에 걸맞게 아름답다.

모스크바 크레믈린의 우스펜스키 성당을 비롯한 러시아 성당 건축의 어머니는 크리야지마 강을 내려다보며 화사한 햇별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모스크바 우스펜스키 성당에게 본당의 지위를 넘겨주기 전까지 이 성당은 중세 최대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였다.

하얀 석회암의 빛깔이 조금 바래 고졸한 분위기가 있어 바로 옆 화려한 종루와 비교된다. 성당은 몇 년째 유네스코의 기금을 받

아 내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안타깝다. 이 성당에는 안드레이 루블료프가 그린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여러 번 기적을 일으켜 러시아 민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의 성모>가 오랫동안 모셔져 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성모상은 현재 모스크바 트레짜콥스키 미술관에 있다.

성당의 외벽에는 포크로프 교회에서 본 것과 똑같은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은 상당히 축소된 느낌이다.

<러시아 연대기>를 서술한 작가는 이 성당을 지은 이 도시의 실질적 건설 군주, 안드레이 보고롭스키(1111년~1174년)를 솔로몬 왕에 비교하고 이 성당은 솔로몬 신전에 비교했다.

이 성당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자부심과 애정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보고롭스키 동상>

성당은 녹음 짙은 공원까지 끼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었다. 성당 앞에는 보고롭스키 동상이 크리야지마 강을 내려다보고 서있다.

주교를 거느리고 예수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든 말 탄 군주는 너무도 당당해 지금도 블라디미르가 자신의 도시임을 모든 이들에게 각인 시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평원>

언덕 아래 강을 끼고 끝없이 펼쳐진 평원에는 성스러운

저녁 햇살이 퍼져있다.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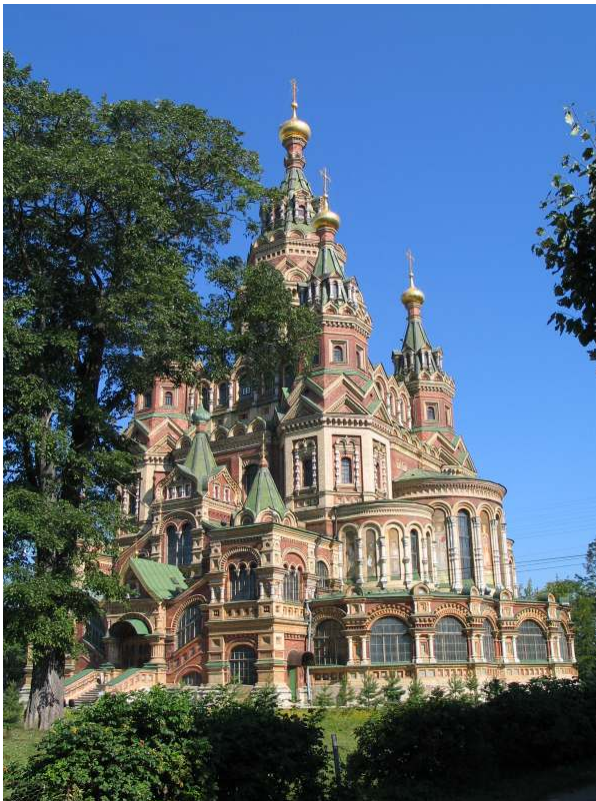
러시아의 도로는 너무 개성이 없어 특별하다. 길을 내는데 방해되는 지형이 없어 전부 직선 코스다. 끝없이 끝없이 직선으로 달린다.

휴게소에서 러시아식 꼬치 <샤슬릭>과 러시아식 팬 케익 <블린>을 먹었다. 꿀에 찍어 먹는 <블린>은 내 취향이지만 두툽한 고기 덩어리 <샤슬릭>은 ..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야외 바에서 맥주를 마셨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시종일관 세상 이야기로 즐겁다.

8월 7일 (제 5 일) 러시아 예술의 전당(殿堂). 상트 페테르부르크

8시 15분 페테르부르크 행 비행기를 타기위해 3시 30분에 일어났다.
모두 비몽사몽. 찬 새벽 공기는 집 떠난 생고생을 각인시킨다.
“억마살 낀 내 팔자야!”
“누가 시키면 이러고 다닐까?”
약 2시간을 날라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비행기창 밖으로 보이는 뿔꼬바제 공항 건물이 아주 특이하다.
핀란드 배 모양이란다. 평원에 떠 있는 배 ! 페테르부르크에 어울리는 상상력이다.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글동글하고 자그마한 처녀아이다. 야무지기까지 하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들꽃이 가득 핀 평원이 나타났다.
아침잠을 빼앗긴 보상치곤 괜찮다.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여름 궁전을 먼저 보기로 했다.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성당>

가는 도중 간이 시장에서 과일을 샀다. 체리를 샀는데 아주 달고 싱싱해 가이드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손이 멈추질 않는다.

일행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시장 건너편에 있는 성당을 구경했다. 기본 모양은 바실리 성당과 비슷하지만 아름다운 쿠폴이 없어서 화려함은 덜하다.

붉은 벽돌, 푸른 지붕, 하얀 창틀, 황금 쿠폴 단아한 모습이 유럽의 성을 연상시킨다.

성당 내의 장식이 특별해 깜짝 놀랐다. 이콘을 제외시키면 이건 틀림없는 모스크다.

성당 벽면 전체가 연속된 꽃문양 일색이고 이즈닉(터키의 유명한 도요지) 타일로 장식된 곳도 있다. 이즈닉의 옛 지명은 니케아다.

니케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처음으로 종교회

의가 개최된 역사적 도시다.

우연히 보게 된 성당이 동, 서 종교 문화가 결합된 곳이라니....

뜻밖의 수확이다.

주차장에서도 보이는 여름 궁전의 쌍두머리 독수리 문장의 황금 첨탑이 대단하다.

궁전에는 이미 많은 인파로 소란스러웠다. 러시아 들어와 처음으로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본다.

여름 궁전의 윗 정원과 아랫 정원을 연결하는 계단이 분수다.



<여름궁전 앞 분수>

삼손 분수다. 분수를 보는 순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황금빛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이 각자의 개성 있는 포즈로 물을 맞고 있었다.

여름 한철, 이 보다 더한 축제가 있을까? 멋지다. 장엄하다. 높낮이가 다른 분수들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 너울거린다.

왕실의 무희답게 도도하다. 도도한 분수는 맨 아랫단 삼손의 호령에 놀라 일시에 몸을 낮추고 바다로 도망친다.

황금의 삼손은 황금 사자의 아가리를 꺾벌려 부여잡고 자신의 괴력을 자랑하고 있다.

미색에 흑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벌하기 위해 영원히 저 자세로 있기로 했나보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삼손 분수>

생각은 다르다. 삼손은 자신들이고 사자는 스웨덴이란다. 삼손의 얼굴 표정이 너무 평온하고 초연해 재밌다.

이 궁전은 표토르 대제(1682년~1725년 재위)가 1714년부터 짓기 시작해 150년 동안 증축해왔다. 크고 작은 궁전 수 만도 20여개가 되며 분수는 140여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분수는 아래 정원에 보석처럼 숨어있다.

우리는 보물찾기하듯 분수를 찾아 걸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는 어찌나 잘 자랐는지 하늘을 찌른다. 신선한 향기 가득한 수목 사이로 실개천까지 흘러 소박한 정취도 느낄 수 있다. 숨어있던 재기 넘치는 분수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불쑥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튀어 나왔다. 그뿐인가? 나신의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도 오솔길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 마을 아이들은 솃제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닌다. 느닷없이 내뿜는 장난꾸러기 분수와 어울려 숲속의 새가 되어 맑은 웃음소리로 지저귀다.

이런 정원에서 어릴 때부터 뛰노니 어찌 자신들의 문화가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세계를 다녀보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건축물이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인간의 손길과 숨결이 차단되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기억만 가진 빛바랜 사진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곳처럼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모두의 행복이 보태지면 건축물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세상 만물은 진행형인 사랑을 받아야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난 경회루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보호라는 명목으로 덩치 값을 못하고 쓸쓸하게 갇혀있는 그를 구하고 싶어 몸을 떨었다.

날씨까지 너무 좋다. 약간 덥기는 하지만....

정원은 우리의 사랑을 호흡해 더 큰 행복 바이러스를 뿜어내고 있다.

점심은 뿃 정원 궁전 지하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번잡스럽고 좁고 음식까지 엉망이어서 안타까웠다.

그러나 점심을 먹고 나오니 더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운전수가 드디어 일을 낸 것이다. 공항에서 만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못마



<개구쟁이 분수>

땅해 죽겠다는 표정이더니 말이다.

버스를 타자마자 현지 가이드 말을 끊어가며 운전 중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한 번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몇 번이고 계속한다. 가이드가 다른 말을 못하게 한다.

모두 짜증스러워 표정이 좋지 않아졌더니 운전수 얼굴이 험악해졌다. 자신의 말을 공손한 태도로 경청해야하는데, 운전대 잡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야하는데 그러질 못해 분해 죽는다.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무표정을 지나 얼굴에 힘이 껍 들어있다. 특히 눈은 좋게 말하면 우수? 쓸쓸함이 배어 있어 보이지만 차가움이 폐를 찌른다. 푸친 대통령의 눈이 보통 러시아인들의 눈길이다. 그런데 화까지 났으니 무시하려해도 신경에 거슬렸다. 그러더니 결국 운전 못한다고 버티는 것이다. 운전수의 주의대로 우리 중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급히 여행사 오너까지 나와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나라 여러 면에서 여행의 인프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관광객이 자신들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는 제비가 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상점, 호텔, 식당, 환전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태도는 불친절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 즉 자본주의적 사고는 움도 트지 않았다. 꼭 자본주의적 사고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 나라의 개성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속이 뒤틀린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였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원을 거닐거나 나무 그늘에서 다정히 담소를 나누고 유유자적이다.

이 여유! 화낸 놈이 더 미칠꺼다.

1시간 정도 지체는 했지만 그 녀석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우리는 멋진 정원을 더 즐길 시간을 벌었다.

“이놈아! 우리의 내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다. 네가 강한 이빨을 가진 줄 알지만 네 밥은 우리가 준단다.”

러시아인들이 서비스 개념이 없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한국인 가이드까지 러시아인화 되어 있는 것은 참 흥미롭다.

모스크바 철수씨도 특전사 출신이라서 기질이 세다고 이해를 해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웃겼다. 규제도 심하고 호통도 친다. 또 얼핏 하면 일정에 없으니 못한다가 입에 붙었다.

그러나 외계인과 우리만 마음 맞으면 해결 될 일이니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귀여운 이 아가씨도 부드럽고 은근히 규제가 많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내로 들어왔다. 공장 이삭 성당으로 갔다.

니콜라이 1세 기마상 앞에 내려 성당을 보니 그 위세가 태산 같다. 커다란

황금 돔은 러시아 정교회 쿠폴의 제왕다운 면모로 사람들을 압도한다.

저 돔을 덮기 위해 100kg이 넘는 금이 사용되었단다. 돔의 형태는 피렌체 대성당과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나의 눈길을 끈 건 입구를 장식하고 서있는 열주, 붉은 화강암 기둥이었다. 125톤이 넘는 우람하고 장대한 기둥은 최고만이 기질 수 있는 품위를 가졌다.

이집트에서는 저 붉은 화강암을 <파라오의 돌>이라고 불렀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보다 더 멋지다.

남성적인 기개에 코린트 장식까지 합쳐진 기둥이 자그마치 72개나 서있었다.

우리는 돌계단을 따라 성당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은 정교한 나선형 돌계단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이삭 성당의 화강암 열주>

페테르부르크는 높위에 세워진 도시기에 언덕조차 없다.

이 도시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성당이 유일하다.

평면 위에 세워진 도시는 네바 강을 끼고 아무런 살내음을 품지 않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어떻게 이곳이 인구 600만을 품은 도시일까? 훌륭한 장인의 손자국 흔적만 가진 미니어처 같다.

성채 같은 건물, 성당의 황금 쿠폴, 피 흘린 역사를 간직한 광장, 이 도시의 주인인 짜르의 기마상, 움직임 없는 네바 강, 내 몸 속으로 들어오는 풍경이 아니라 현실감 없이 자꾸자꾸 멀리, 깊이 사라지는 풍경이다. 훌륭한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훌륭한 것이 문제다.

네바 강 하구에 밀집되어 있는 차가운 금속성 크레인이 가장 살갑게 느껴



<이삭 성당에서 내려다본 페테르부르크>



<이삭 성당 내부> (안순배)

졌다. 웅비하는 현재의 러시아를 상징하는 크레인은 이 도시 인구 수보다 많아보였다.

성당 내부로 들어섰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먹은 것 같았다. 나는 성령의 비둘기가 떠 있는 돔의 정 가운데 서서 길을 잃었다. 낮이 나갔다.

“주여 ! 제가 어떻게 이곳을 표현하면 당신이 만족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보아야 할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무소르그스키가 이곳에서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을 듣는다는 표현이 가장 타당하다. 바흐가 아니라 분명 베토벤이다.

성가가 흐르는 성전(聖殿)이 아니라 영웅의 존재를 알리는 성전(盛典)이다.

우선 광장 같은 크기의 회중석이 사람들 기를 죽인다.

여러 빛깔의 대리석과 공작석, 청금석, 청옥, 제노바석, 반암 등의 43 종류의 보석석이 통째로 벽의 기둥이 되어 천정을 떠받치고 있다.

한 점만으로도 영혼을 감화시킬 수 있는 수백 점의 성화가 내부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천연 돌로 모자이크한 대형 작품들은 찬사가 아니라 존경 받아 마땅하다.

천정을 가득 채운 프레스코화는 신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아 ! 이코노스타스 ! 황금으로 장식되어 눈부시다.

열어놓은 <황제의 문> 뒤, 지성소에서는 스테인 그라스의 붉은 성의(聖衣) 입은 예수님이 축복을 내리고 계신다.

너무 볼거리가 많아 집중이 되질 않는다. 사진 찍는다는 자체가 너무 가소로워 카메라를 달았다. 괜히 따로 돈 내고 촬영권을 샀나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동은 신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인간의 예술성,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에 대한 황홀함이다.
그러나 또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의 허영심이 만들어 낸 공포이기도 하다. 신은 절대 이런 무모한 찬미를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반인반신이라고 믿은 짜르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민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절대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호물호물한 이 저주받은 땅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

본디 이 도시는 높이 위에 나무 말뚝을 박아 세워졌다.
이 정도 건축물의 하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뚝위에 또 얼마나 많은 말뚝을 박았겠는가?
그 수만 개의 목침은 모두 가여운 민중의 노동으로 세워졌다. 표토르 1세부터 시작된 이 도시의 탄생은 그 뒤를 이은 짜르들에 의해 확장되어 갔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입구로의 권위를 위해 화려한 궁전과 문예부흥의 상징적 건축물, 이삭 성당 같은 성소,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소수의 야망을 위해 민중은 죽음으로 힘을 보탤다.
현재의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자존심이며 자긍심의 표상이지만 이 영광은 이름 없이 이 도시에 뼈를 묻은 선조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호화로운 성당이 진정 고단하고 가난한 인민의 구원 장소가 되었겠는가?

이삭 성당은 신의 찬미 장소가 아니었다.
이 도시를 위해 뼈를 묻은 영혼의 추모 장소로 어울렸다.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이 창출한 부에 의해 세워진 이 성당은 러시아 정교 최고의 덕목인 <우밀레니에 - 순명(順命)>에 충실했던 그들의 영혼에 받쳐져야 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다.
이 화려한 성당 한가운데 서서 내 조국 서해의 조그만 섬, 소록도를 떠올리는 나는 정상인가? 나병환자의 조막손으로 만든 <그들만의 천국>, 아름다운 정원의 꽃과 나비를 나는 이곳에서 보고 있었다.

성당을 나와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보는 페테르부르크는 도시 전체가 예술품의 전시장내지는 미술관 갤러리다.
그러나 너무 수준 높은 예술적 풍경과 저 도도한 건축물들은 나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도시는 입 발린 찬사와 칭찬을 바라는 본능을 깊숙이 감추고 나 스스로 유치해지길 바라고 있다.
그건 이 도시도 나도 우리니 우리 둘 다 슬프다.

오늘 일정은 끝났지만 아직 큰 대사가 남았다.
이 나라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음악회나 발레 공연을 보고 싶었다. 연극은 전혀 못 알아들으니 부담스럽고...
여행사에 부탁을 했다. 테마세이투어에서는 어떤 경우든 옵션투어는 없

다. 그 나라에서 꼭 보아야하고 경험해야한다면 거의 다 일정에 들어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자면 비싼 돈을 지불해야한다. 여행
사로서는 높은 여행비 책정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모든 손님이 원하지는 않
는다는 점이다.

곤란해 하는 여행사를 흥선생과 교대로 들볶아 방법을 찾겠다는 확답을 받
았다. 어깨 들어내는 드레스는 아니지만 공연을 위해 신랑 양복과 원피스까
지 짐에 보탬다.

오늘 저녁 발레 공연을 보기로 결정이 났다.
러시아에서 발레 ! 그것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
더욱 흥분되는 것은 에레미타췌 왕실 전용극장에서 <지젤>을 보기로 했다는
것 !

저녁은 대충 먹고 극장으로 갔다.
우리 넷 만 가게 되면, 다른 일행들에게 튀는 행동으로 보일까봐 걱정했는
데 네 분을 제외하고 모두 가시겠단다.
정말 다행이었지만 우리 네 명의 옷이 너무 튀어 미안해 죽겠다. 그래도 모
두 이런 공연을 덕분에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웠다.
이런 것이 진짜 여유일 것이다.
다른 분들 옷차림 때문에 규제를 받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 했는데 다행이
소문처럼 까다롭지 않았다.



<에레미타췌 왕실 전용극장>

극장에 도착하니 우리가 첫 번째 손님이어서 여유 있게 입장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겨울 궁전과 연결되어 있는 극장은 그 자체만으로 큰 볼거리였다.

이 극장은 1783년 예카테리나 여제의 명에 따라 건설되어 2년 뒤에 완성되었다. 건축가 크바렌기에 의해 설계된 극장은 우아함의 극치다.

겨울 궁전과 연결되는 통로 밑으로는 네바 강의 작은 물줄기가 흐르는데 유람선이 다닌다. 창을 통해 보이는 작은 운하 경치는 환상적이다.

극장은 황실 전용 극장답게 소극장 정도의 규모로 소수 인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다.

로마 야외극장을 연상시키는 계단식 관람석이 특징이며, 벽은 붉은 빛 도는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기둥 사이로 아름다운 하얀 조각상들이 둥근 감(龕) 속에 서있다.

무대에는 고급스러운 벨벳 막이 쳐있고 가운데 러시아 왕실문양 쌍두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있다.

우리는 촌스러운 행동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카메라를 눌러댔다. 공연도 보기 전에 이 분위기에 고무되어 너무 행복하다.

공연은 통로에도 사람이 앉을 정도로 대 만원이었다.

이 극장의 명성은 유서 깊은 마린스키 극장보다야 못하지만 러시아 최고의 배우만이 설 수 있는 꿈의 무대다.

공연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있고, 1년 중 6개월 씩 <백조의 호수>와 <지젤>을 번갈아 가며 올린다니 공연을 오늘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큰 행운이었다.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에서 말이다.



<에레미타쥐 왕실 극장 내부>

<지젤>은 낭만 발레의 상징으로 모든 발레리나가 <백조의 호수> 오데트 배역과 함께 평생의 꿈으로 여기는 작품이다.

프랑스 시인 고티에가 독일 전설 속 윌리(willi)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얻어 만든 것이다. 윌리는 결혼식 전날 죽은 처녀의 영혼으로, 춤추기를 좋아해 산 사람을 유혹하여 죽을 때까지 춤추게 하는 숲속의 정령이다.

1841년, 파리오페라 극장에서 초연 되었지만 1860년, 러시아 마린스키극장 예술 감독 마리우스 프티파에 의해 새롭게 각색되어 <지젤>의 표준이 만들어졌다. 그 후 <지젤>은 러시아 발레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젤> (안순배)

이야기 줄거리는 순박한 처녀, 지젤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귀족 알베르토와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들떠있는 지젤이 사는 마을에 알베르토의 약혼녀 바틸드가 다른 귀족과 함께 사냥을 나왔다가 귀여운 지젤에게 춤을 청하고 상으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선물한다.

그 때, 지젤을 흠모하고 있던 사냥꾼 힐라리온이 귀족 앞에서 알베르토의 신분을 폭로해 그 충격으로 지젤은 죽고 만다. 여기까지가 1막이다.

2막은 죽은 지젤이 월리와 함께 숲의 정령이 되어 춤을 추고, 지젤 무덤을 찾아온 힐라리온도 죽이고 알베르토도 춤을 추다 죽을 운명에 처한다. 하지만 지젤의 지고지순한 보호의 춤으로 알베르토를 구한다는 이야기다.

1막이 시작되었다.

지젤은 동양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검은머리의 발레리나로 김연아처럼 귀염성이 있으면서 우아했다.

남자 무용수 발레리노는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가 튀어나온 것 같다. 실감나게 강동원을 능가한다.

신은 남자애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긴키, 긴팔, 긴 다리, 저런 인간도 가능하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다.

1막은 춤에 집중하기보다 이야기 자체에 빠져 발레를 보고 있다는 감동이 오질 않았다.

단조롭고 적은 수의 오케스트라 음악도 불만이었다.

솔직히 이야기 내용은 진부하고 평이하지 않은가?

아 !! 2막 !

상황은 급반전되어 월리의 군무는 황홀했다.

가깝게 그녀들의 들숨, 날숨이 느껴지고 눈송이처럼 날리는 깃털 같은 춤은 소름이 돋았다.

가로등 아래 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를 본 적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쁨으로 춤만 해 오로지 춤만 추며 내려오는 몽환적 아름다움 말이다.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눈물이 되고 진창이 될 줄 알면서도 극한의 비움을 가진 그들의 몸짓은 얼마나 격렬 하던가?

또 주인공 두 남녀의 춤은 어찌나 애뜻하고 사랑스러운지... 1막보다 무

르익은 춤은 가슴 아파 저절로 탄식이 나왔다.

“이런 거구나! 엘리트 문화라는 것이... 상층 문화라는 것이....”

“오감이 다 열려 정신적 소양이 상층 되는 느낌. 내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또 내가 귀한 존재임을 확인 받는 느낌.”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끝났다. 한 여름 밤의 꿈은 끝났다. 꿈은 꿈으로 끝났다. 아련하고 허무하다.



<지젤>

극장을 나왔을 땐,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해는 남아있었다. 네바 강은 하얀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서늘한 저녁 기운이 흥분한 나를 어루만지며 지나간다.

겨울 궁전 처마에 앉아있는 신화 속 주인공들은 태생적 깊은 침묵 속에 냉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오늘 밤은 좀 더 상냥해도 좋을 것을.... 특별한 날인데....”

푸시킨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겨울 궁전 앞 네바 강변에는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황홀한 세상을 맛 본 발레공연을 100여 년 전에 이 도시에 들어온 민영환 선생님 일행도 보았다.

갓을 벗을 수 없어 왕의 대관식도 못 본 우리 조선 남자들이 이 발레를 봤을 때의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질 않는가?

통역관 김득련은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가냘픈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멎기도 하는데, 가녀린 소녀를 학대하다니, 서양 신사들은 참으로 짐승 같은 자들이로다>라고 썼다.

“하하하.... 그래도 눈 떼지 못하시고 끝까지 보셨을걸?”

8월 8일 [제 6 일] 러시아 바로크 양식의 정수[精秀], 에카테리나 궁전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도(상트 페테르부르크 호텔)네바 강가의 우람한 건물 중의 하나다. 창밖으로 오로라호가 내다보이고 멋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짝판이다.

처음부터 호텔로 태어난 건물이 아니고 KGB 본부 같은 분위기다.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 없이 스산하기 짝이 없다.

넓고 어두운 긴 복도를 걸어 갈 때는 기분이 묘해진다. 그런데도 호텔비가 모스크바 2배이고 관광 최성수기인 이 계절에는 호텔 방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란다.

이 도시의 시원(始原),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요새가 있는 <자야치 섬>으로 갔다. 이 거대한 도시의 탄생지 치곤 협소하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에는 정교한 정육각형의 완벽한 요새지만 정면으로 보니 투박한 돌담으로만 보인다.

표토르 대제는 서구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인적 열망으로 모스크바 시대를 끝내고 이 도시로 천도를 단행했다. 처음 이 땅은 노보고로드에 속한 인간의 거주지로 꿈도 꾸지 않았던 네바 강 하류의 늪 지대였다. 그러나 이곳은 핀란드 만을 통해 유럽의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트 해로의 길목이었다.

짜르는 신의 계시라는 미명 아래 바로 이 자야치 섬에 나무 십자가를 묻으며 새로운 도시의 시작을 알렸다. 도시는 물 위에 수많은 말뚝을 세워 저허상 같은 견고한 건축물들을 세웠다. 말뚝 수보다 많은 인명을 제물로 삼으면서.....

역사는 항상 명암을 동반하는 법. 누군가의 희생 없이 위대해질 수는 없다.

러시아는 표토르가 있었기에, 또 목숨 받쳐 노동력을 제공한 인민이 있었기에 구태를 벗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도 표토르의 평가는 오래도록 논란의 대상이다.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요새>

푸쉬킨은 <청동 기마상>에서 표토르 대제가 이 도시를 세우면서 가진 이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생각했다.
여기서부터 스웨덴 인을 위협하리라.
이곳에 도시를 세워
오만한 이웃 나라를 제압하리라.
대자연이 우리에게
유럽을 향한 창문을 열고
바다에 튼튼한 두 발을 디디라 명하였으니
이제 새 항로를 따라 이곳으로
못 나라 선박들이 깃발을 날리며 모여들어
우리는 마음껏 주연을 베풀리라.

몽상적 이 이상은 실현되어 표토르는 러시아의 영웅이 되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의 새로운 선진국에 편입되고 세계역사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표토르 대제 이후 러시아는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이 사회 전반에서 부딪히고 영향을 주었다.
근대화가 이루어져 부와 기술이 축적되어 나라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민 대다수는 농노와 노동자로 묶이고 전통은 야만시 되었다.
종교마저 모스크바 교회는 구태에 연연하는 위선적 신성함으로 매도되고, 멋진 돌들로 치장된 페테르부르크 교회가 진정한 비잔틴 국가의 권위를 이어받은 신성함의 중심이라고 존중 되었다.

우리는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사원의 거대한 첨탑만 밖에서 올려다보았다.
수평적인 이 도시에서 이 첨탑과 해군성 첨탑은 유독 날카로운 수직적인 기세로 인상 깊다.
실지로 두 첨탑은 이 도시를 찾은 모든 사람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두 첨탑은 너무 비슷하게 생겨 구분하는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해야 도움이 된다.

요새 앞 강변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났다.
나체의 모델이 실크 스카프를 도구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좀 이른 시각이라 사람 왕래가 없는 틈을 이용해 화보 촬영을 하나보다.
우리는 요새 구경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솔직히 너무 말라 볼거리도 없었는데 말이다.

투박하고 우울한 요새는 전쟁 수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한 번도 전쟁을 겪은 적은 없다. 18세기 후반부터 정치범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표토르 대제의 아들 알렉세이가 아버지의 개혁에 반대하다 갇혀 있었고, 19세기 중엽에는 도스토예프스키가 8개월 동안 이곳에 갇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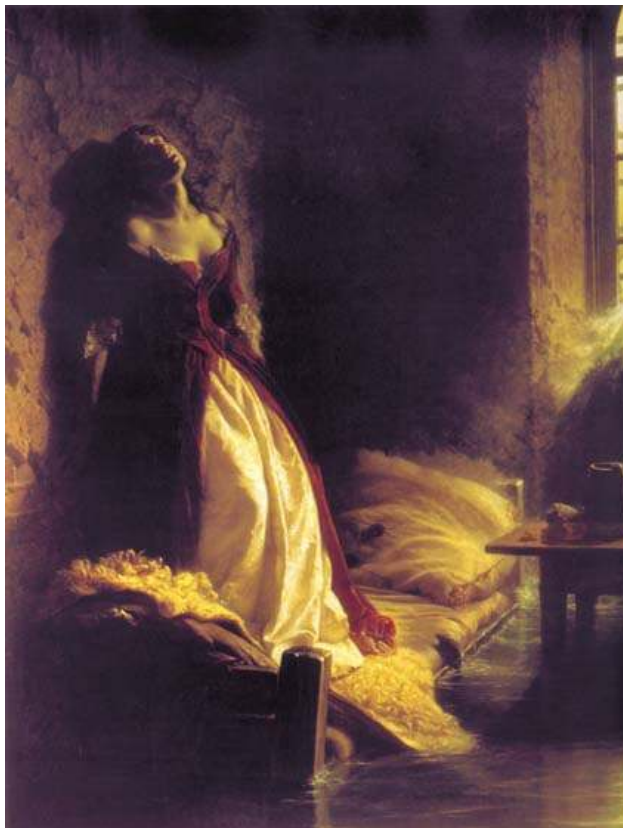
작은 창을 통해 네바 강 물빛과 달빛을 볼 수 있는 낭만적인 감옥일 수도 있었지만, 음산하고 지독한 겨울과 홍수는 죄수들의 명줄을 죄였을 것이다.

이 요새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이 있다.

현재는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콘스탄틴 플라비츠크의 <타라카노바 황녀>라는 그림이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타라카노바라는 여인이 표토르 대제의 딸, 엘리자베타 여제의 숨겨진 딸이 자신이라고 떠돌고 다녀 에카테리나 여제의 심기를 건들었다. 격분한 여제는 이 여인을 유인해 러시아로 데리고 와 이 요새에 가두었다. 그녀는 그 해 홍수가 나서 요새에 갇힌 채 익사했다.

그림은 아름다운 황녀가 흘러들어오는 물을 피해 침대 위, 벽 쪽에 바싹 몸을 붙이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창으로 물이 분수처럼 흘러들어오고 물은 이미 침대 높이만큼 차있다.



<타라카노바 황녀>

물을 피한 쥐들이 침대와 황녀의 몸을 타고 오르려고 하고 있다. 그림이지만 소름이 돋는다. 황녀의 뽀얀 젖가슴과 실크 치맛자락은 너무 아름다워 처연하다.

네바 강의 홍수는 너무 지독해 푸시킨의 시에도 나온다.

사원을 마주보고 있는 표토르 대제의 동상을 만났다. 현대 조각가에 의해 1991년 만들어진 좌상 동상이다.

얼굴은 작고 몸은 긴 기형적인 모습이 아주 특이한 몸의 구조를 극대화해 표현했다. 특히 긴 손가락은 거미 같다.

손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다. 손을 만지면 찢어처럼 손재주가 좋아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단다. 나도 슬쩍 만져보았다. 손재주는 필요 없고 소원만....

러시아인들은 동상의 무릎에 올라앉고 찢어 몸살 나게 한다.

동상의 얼굴은 데스마스크를 본떠서 만들었다는데 카리스마보다 피곤한 노인일 뿐이다.

항상 자신은 국가를 위해 잔혹해야 한다면 자신의 개혁을 정당화 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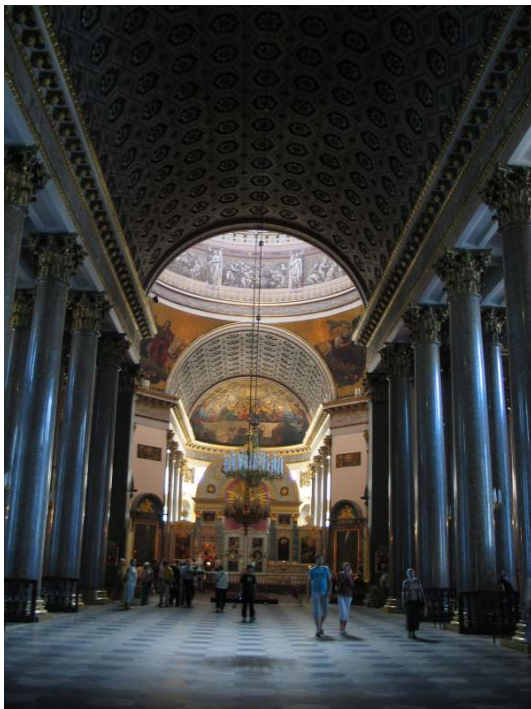
자신도 평생 해군 준장 월급을 받으며 손에 땀이 박히도록 일하면서 근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한 군주이기도 했다.

원로원 광장에는 표토르 대제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예카테리나 여제에 의해, 멋지고 힘찬 청동기마상으로 군주는 1782년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후손들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우상일 뿐이다. 인간 표토르는 이곳에서 자신의 민족을 저리도 사랑하고 사랑 받으며 앉아있다. 이 동상 이야말로 천국에서 바라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요새를 나와 네프스키 대로에 있는 카잔 성당으로 갔다.

농노 출신 건축가 바로니킨이 10년(1801년~1811년)에 걸쳐 완성 시킨 건물이다. 이삭 성당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규모는 조금도 굴리지 않는다.

사원의 전면을 감싸고 있는 석회암 기둥은 200여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이 도시의 모든 풍상을 다 견디어낸 대견함과 신뢰 같은 힘이 느껴졌다.



<카잔 성당 내부의 석회암 열주>



<표토르 대제 동상>

94개의 열주는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노인 같다.

내부에 들어서면 이코노스타스가 까마득할 정도로 멀리 보인다. 긴 회중석에는 바실리카 양식 같은 화강암 기둥이 줄지어 서있다.

이삭 성당에 비해 화려함은 덜하다. 그래서 신의 권위는 더 느껴진다.

카잔 성당은 성소로서의 명성보다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단결된 힘으로 나폴레옹 전쟁(1812년~1813년)을 승리로 이끈 성지로 이름 높다.

이 성당의 완성으로 나폴레옹 전쟁(소 조국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 전쟁 영웅 쿠투조프의 동상이 멋진 모습으로 성당 전면에 서있고, 시신도 안치되어 있다.

성당에는 그 때, 프랑스 군대로부터 빼앗은 군기가 전시 되어있다.

또 이 성당의 볼거리는 러시아 마지막 짜르 니콜라이2세 일가의 이콘이다.

러시아를 알아가면서 참 특이한 민족이라고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다.

어느 민족이나 위대한 조상이 있고, 그들을 기리는 것은 공통된 문화다.

그런데 이 민족은 훌륭한 행적과 상관없이, 또 종교적 순교와 거리가 먼 인물도 성자로 추앙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억울한 죽음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최초의 성인인 보리스와 글렐이다.

이 두 형제는 이 나라에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블라디미르의

아들들이다. 블라디미르 사후 이복형제 스바또뽀끄가 왕권을 잡기 위해 동생들을 죽였다.

동생들은 성서의 구절을 암송하면서 죽음을 태연히 받아들였다.

또 표토르 대제와 권력 다툼을 벌이다 패해 수도원에 유폐되었다 죽은 소피아도 성인으로 모셔진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가족 전체가 저렇게 성스러운 금빛 후광을 쓰고 성인이 되었다.

모두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덕목인 <우밀레니에- 겸손, 자비, 순명>을 실천했기 때문이란단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순교로 여긴단다.

러시아 민족은 기독교 국가 가운데서도 좀 특별한 경우로 종교적 명절 중에서도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큰 행사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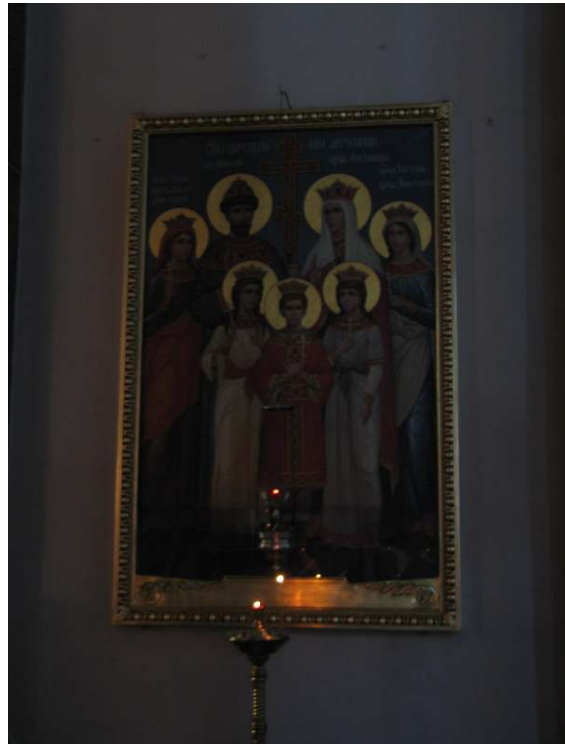
교인들이 부활절에 나누어가지는 계란 공예의 특별한 예술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 만큼 이 민족은 예수가 인류를 위해 순교하고 또, 부활하신 의미를 예수의 탄생보다 높게 두는 것이다.

러시아적인 영성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실지로 러시아 민족의 인내심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이 나라의 역사가 민중의 무한한 인내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까?

2번의 세계대전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이란 이름으로 1000만에 가까운 명분 없는 희생자를 냈다.



<성자가된 니콜라이2세 일가>

그래서 학자들은 러시아를 <피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깝게는 줄도 얼마나 잘 서는가?

공산주의 붕괴되고 이 나라의 경제가 절단 났을 때, 빵 한 개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묵묵히 줄 서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

진눈깨비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있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파블로프스키 궁전>

대리석 흉상이 즐비하고 누구의 기호인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식 장식이 돋보였다.

예카트리나 여제가 후계자, 하벨 1세(1796년~1801년 재위)에게 하사한 건축물로 1782~1786에 걸쳐 완성되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가 1973년에 다시 보수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내부도 다른 러시아식 궁전의 금장식이 많이 배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품위 있고 그윽한 왕실의 고급문화가 느껴졌다.

특히 긴 갤러리 같은 그리스홀은 이 건물의 백미다.

건물 내에 있는 왕실 전용 성당은 작지만 보석처럼 빛나고 성스러운 공간임이 느껴져 인상 깊다. 파스텔 톤 이콘화의 부드러움이 마음의 평안을 준다.

수많은 방에 많은 왕실의 소장품과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지만 거의 모사품 내지는

우리는 성당 구경을 끝으로 페테르부르크를 벗어나 근교에 있는 파블로프스키 궁전으로 갔다. 넓은 정원 속에 자리 잡은 궁전은 지금까지 보아온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과 달리 단아하고 절제된 미가 흐르는 귀품이 있었다.

궁전 전면의 코린트식 기둥과 동형 지붕만 건물의 장식적 요소일 뿐이다.

설계자가 스코틀랜드 사람(찰스 캐머린)이란다.

건물 입구부터 로마 황제들의



<그리스홀> (안순배)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들이란다.
그러나 상류층 문화를 대변하는 예술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궁전의 정원은 600ha가 넘는다.
표토르 대제의 분수공원과 비교해 인공적 설계가 거의 배제된 자연 휴양림 같은 곳이다.
다른 궁전과 달리 왕실의 권위와 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원 속의 한가로운 삶을 즐기기 위한 장소 같다.
왕가의 어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한 여유가 느껴졌다.



<숲속의 망중한(忙中閑)>



점심은 궁전 내 식당에서 먹고 예카테리나 궁전으로 이동했다.
들은 대로 궁전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야무진 우리 가이드가 서있지 말고 주변 숲을 산책하고 오란다.
우리는 40분 정도 삼림욕을 했다.
숲 어디에나 벤치가 있고 산책 나온 시민도 꽤 많다.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여유가 참 부럽다.
러시아에 들어와 느낀 것 중 하나는 어딜 가나 책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책을 멀리해 교양 있는 노인들이 못마땅해 한단다.
그 옛날 사회주의 체제 때, 종교는 억압 했지만 독서와 수준 높은 공연문화
관람은 권장해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 욕구와 교양은 상당한 수준이었단다.

예년에 비해 러시아 물가가 너무 올라 관광객이 줄었다더니 정말 1시간 만에 우리는 궁전 입장을 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어 궁전 건물을 구석구석 살펴볼 시간이 아쉬울 정도였다.
흰색과 라이트 블루의 대비와 화려하고 웅장한 부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건물은 궁전의 제왕이었다.



<예카테리나 궁전> (안순배)

러시아 바로크 건축물의 교과서이며 정수다.

궁전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란스는 목이 꺾일 정도로 힘들어 보이지만 숨은 얼굴 표정은 너무 초연하고 경건하다.

이 궁전은 1718년 표토르 대제의 왕비, 예카테리나 1세(1725~1727년 재위) 때 짓기 시작해 예카테리나 2세 때 완공되

어 예카테리나 궁전이라고 불려진다.

원래 짜르의 영지로 호수까지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장소였다.

이곳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파괴 되었다가 보수되었다.

피해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 아름다운 궁전이 흉물스런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서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왕실 성당은 지금도 보수 중이었다.

이념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고귀한 생명을 잃지만 인간 존엄성의 표식인 예술적 건축물을 덧없이 잃게 한다.

궁에 들어서니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뜻밖에 일본 아리다 도자기였다.

유럽에서 사랑받았던 명대의 청화백자가 아니라 화려한 채색과 금박의 도자기는 이 궁전과 자매처럼 어울렸다.

이 궁전의 화려함은 지독했다.

인간의 광기라고 모독하고 싶어도 너무 매력적이고 이 부(富)는 민중의 피와 땀이라고 독설을 뱉고 싶어도 그 눈물은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거울과 유리로 치장된 벽과 황금장식으로 빛나는 거대한 홀에 들어섰을 땐, 아무리 애를 써도 기가 죽는다.

식모 딸이 안채에 들어갔을 때, 받았음직한 그런 고독감이 서러움처럼 밀려왔다.

입구에서 궁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모두에게 신긴 푸른 비닐 덧신이 내는 부스러거림이 나를 더 외롭게 한다.

귀족들이 왈츠를 추며 놀았을 홀에서 궁전 내부 끝까지가 약 250m이며 방만 55개란다.

홀에서 끝 방까지 문을 열어놓아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광경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환영 같은 그 부귀함의 영속적인 실체를 보는 것 같다.

방마다 놓여있는 물건이며 방 자체가 모두 예술이다.



<궁전 최대의홀> (안순배)

인간의 오감(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표현했다는 모자이크 그림은 호박 빛에 치여 생각보다 존재감이 없다.

특히 촉각의 모자이크 그림은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이 방을 재건할 때,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해도 살려낼 방법이 없어 포기 했단다.

이 호박 방의 시작은 독일부터였다.

1700년, 프러시아(현재의 독일)프리드리히1세는 왕비, 소피 샤르로테를 위해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에 호방 방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완성되기 전에 왕과 왕비는 죽었다.

그 후 즉위한 프리드리히 빌헬름1세는 공사가 중단된 호박 방에 관심을 보인 표토르 대제에게 1716년, 통째로 호방 방을 선물한다.

러시아로 넘어온 호방 방은 처음에는

드디어 호박 방이다.

이 방만 철저히 촬영금지다.

이미 화려함에 익숙해진 내 눈은 호박 방이라고 특별한 감동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호박이라는 보석이 갖은 빛깔 때문에 나무결 같은 온화함이 느껴졌다.

오렌지, 체리, 레몬, 초콜릿 빛 등 여러 색 호박이 모자이크 되어있다.

24년 동안 110억 정도의 시간과 돈이 들었지만 방 전체를 완벽하게 채우지는 못해 벽면 위쪽은 그림으로 메워져 있었다.

초기 호박 방은 7t 정도의 호박으로 천정까지 치장되어 있었다.

방 크기는 다른 방보다 좀 작아 보였고 방 모서리에는 황금기둥과 거울이 붙어있어 화려함을 극대화 시킨다.



<호박방> (안순배)

겨울 궁전에 장식되었지만 1755년, 예카테리나 궁전으로 옮겨왔다.
이 때 모자이크 그림과 금장식이 첨가되어 더욱 화려한 방으로 거듭났다.
그러다 1941년, 독일 침공으로 이 방은 통째로 뜯기어져 동독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이 호박들은 다시 1945년, 연합군 폭격으로 파괴되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여기서 보물 사냥꾼과 소련의 특별 수색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색과 픽션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공식적으로 호박은 소멸되었다고 하지만 호사가들은 독일, 영국, 미국, 러시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러시아는 수색을 포기하고 이 방 재건 사업에 힘써 2003년 페테르부르크 도시 창건 300년 기념으로 방을 완성시켜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예카테리나 궁전에 온 사람 중 8할은 엄밀히 말해 이 방을 보기 위해 왔을 것이다.

또 그들 중 5할은 이 방이 가진 화려함과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스티브베리의 장편소설 <호박 방>이라는 책 때문 일 것이다.

2차 대전 후 사라진 호박을 쫓는 보물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 위에 전개 빠른 스릴러로 만든 책이다.

루브르 박물관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코드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인지 줄지어 잘 오던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아 정체가 되고 또 들어와서는 내 맘대로 멈출 수가 없다.

천천히 밀려 나오면 내가 본 것이 정말 <호박 방>이었나 싶다.

신기루 ! 맞다. 꼭 허상을 본 것 같다.

다시 돌아가 한 번을 또 보아도 역시 똑같다.

보석이란 것이 그 오묘하고 영롱한 광채를 손에서 느껴야 제 맛이 저렇게 도배하듯 방 가득 붙어있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은가?

멋진 그림보다 감동은 없다.

그러나 사치니 탐욕이니 하는 단어보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곡이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한 번 짚은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했던 환타지 같은 공간 말이다.

그래서 이곳은 영원히 모든 인류가 보고 싶어 할 꿈의 장소가 될 것이다.

호박 방 다음 방은 너무나 고요한 느낌이라 흥분한 혈압을 일시에 떨어뜨린다.

금장식의 요란함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낮은 명도의 녹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는 고전주의 양식의 방이다.

벽면은 하얀 그리스 신화 속 인물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신선하고 감미로운 봄바람 냄새가 난다.

궁을 구경하고 밖을 나오니 궁전과 꼭 어울리는 정원 위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원에 서서 궁전을 올려다보았다.

실용적 설계와 물리학적 공사로 이해될 건축이 아니라 음악과 서사시 같은

예술의 장르로 이해될 건축물을 말이다.

그러나 집이 고요한 휴식과 사랑을 품은 장소라고 정의 한다면 이 집은 가엾다.

모두를 황홀하게 하지만 그 넓은 품에도 불구하고 휴식과 평안은 주지 못했다.

각성제를 흡입한 신경돌기는 불규칙한 파장을 계속 그렸다.

궁을 빠져나와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다 멋진 포즈로 벤치에 앉아있는 푸시킨을 만났다.

예카트리나 궁 옆에는 그 옛날, 푸시킨이 수학했던 기숙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도 푸시킨 시다.

러시아 민족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푸시킨 동상 앞에는 누군가가 받친 꽃다발이 놓여있었다.

러시아에 오기 전까지 푸시킨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 푸시킨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은 모르지만 그의 시는 알고 있다.

시골 이발소나 식당에 걸려있던 그 착하디 착한 시 말이다.

< 삶이 그대를 숙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마라.....>로 시작되는 시.

구구절절 옳은 말만해서 정말 삶이 고달플 땐, 위로가 아니라 짜증이 나는 시.

러시아에 들어와 가장 많이 본 동상이 레닌과 푸시킨이다.

그리고 푸시킨은 레닌과 다른 형태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의 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사랑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가 읽은 몇 편의 서사시들은 거의 러시아 민족의 정서와 신화, 민담, 영웅담 등을 담고 있어 이해조차 하기 힘들었다.

단지 서정적 풍경을 노래하는 부분은 러시아를 보고나니 비로소 가슴에 와 닿았다.

푸시킨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푸시킨을 학문적으로 접근해 여러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민족이 그의 시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국을, 특히 대지의 어머니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정서이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러시아인들로선 쉽고 보드라운 선율까지 느껴지는 그의 시어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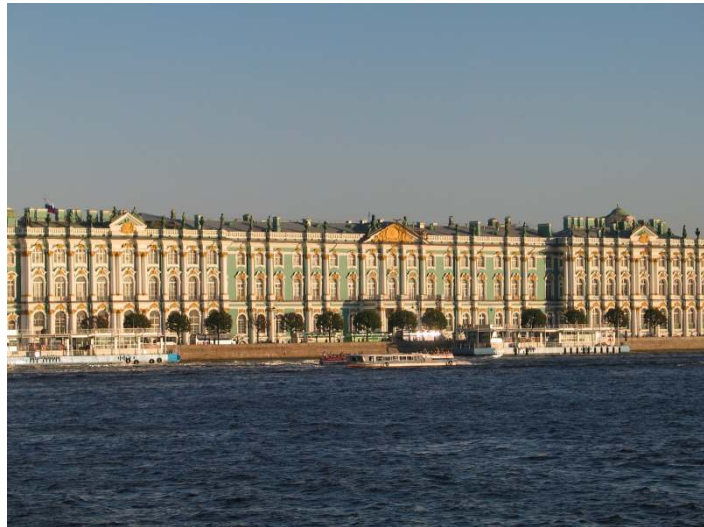
그는 외갓집 쪽 흑인 혈통을 이어받아 외모가 슬라브 민족과 달랐다.



<푸시킨 동상>

검은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를 가졌었다.
 그런 조건 속에서도 슬라브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으며 그 민족의 사랑을 저
 렇게 받고 있으니 참 행복한 시인이다.
 그의 죽음까지 너무 극적이라 인생 자체가 스탠드 셀러 소설 같다.
 황색 먼지 이는 미 서부도 아닌 순백의 나라에서 권총 결투라니.....

우리는 다시 페테르부르
 크로 돌아와 네바 강 유람
 선을 탔다.
 유람선 한 척을 전세 내어
 우리 일행만 탔다.
 유람선은 관광객 전용선인
 지 민속악극 단원이 있어
 손님들과 여흥을 즐기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모드 선내로 들어가 오락
 을 즐겼지만 나는 네바 강
 변의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배는 핀란드 만 입구까지
 내려갔다 돌아오는 코스였
 다.



<유람선에서 본 겨울 궁전>

강변의 중후한 건물들은 한 걸 같이 너무 잘 생겼다.
 우리나라 왜만한 마을 인구가 다 들어갈 것 같은 크기의 건축물들이다.
 페테르부르크 건물의 소유주는 내부는 개인이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손볼
 수 있지만 외관은 국가 소유다.
 외관은 국가의 통제 하에 다른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페인트칠도 하고 보수도 한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피한 이 계절에 집중적
 인 외관 가꾸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도시의 비슷비슷한 건축물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경이롭다고 러시아적이
 라고 말해야 한다면 참 난감해 진다.
 연극 무대의 뒷배경 처럼 멋지지만 허상 같고 따듯한 온기가 없다.
 태양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여름 하늘 밑에서도 도시의 색은 회색이다.
 핀란드 만 입구에는 우리나라 일산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쯤, 현지 가이드 손은주씨가 올라왔다.
 버스에서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프스키 대로를 구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위험하다고 거절해 목소리를 높였었다.
 우리가 아프카니스탄을 가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규제는 옳지 못하다
 고 한마디 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다.
 “은주씨, 아까 낮에 속상했지?”

“아니요. 손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전혀 이해한 얼굴이 아니다.

“은주씨, 러시아에 무슨 공부하러 왔어요?”

“영화요.”

배우는 아닌 것 같다. 얼굴이 아니라 끼가 없어 보였다.

“고향이 어디예요? 약간 사투리가 있네.”

“마산이에요.”

“어머나 ! 나도 마산과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그 곳에서 병아리 선생 했었는데...”

“설마 xx 여고 졸업생은 아니겠지요?”

“예. 그 학교 졸업생은 아닙니다.”

“영화를 전공 한다면 은주씨도 네프스키대로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 갖고 이 도시에 입성 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

“그러면 우리 마음 이해하겠네. 또 우리 손님들 얼굴 보니 다들 말 안 듣게 생기지 않았나요?” “호호호.....”

“테마세이투어 하고 일해 보는 것 처음이지요?”

“네. 처음 보는 여행사예요.”

“그럼, 러시아 한 나라만 10일씩 보는 여행상품을 택해서 오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요. 좀 놀래기는 했어요.”

대충 이 여행사를 선택해서 오는 사람들 성향을 설명하고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 믿고 자유롭게 행동해도 걱정 말라고 안심 시켰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처녀한테 미안하네.”

“러시아 가옥 구조를 보니 부부만의 공간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

“맞아요 ! 진짜 웃기지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그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걸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남의 시선 그런 것, 신경 쓰질 않아요.”

“헉 ~~~ ”

내가 전혀 예상 못한 답이라 놀랐다. 입맛까지 썼다.

필리핀을 가면 민가와 떨어져 논 한가운데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다.

개인적 공간이 전혀 없는 열대 기후의 가옥 구조상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마을 공동으로 지은 이 집을 이용한다.

먼저 들어간 부부는 하얀 깃발을 세워놓아 사용 중임을 표시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열대지방 사람들의 낙천성이 잘 드러나는 문화라고 생각했다.

또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바람 솔솔 불고 달빛, 별빛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호젓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근사하지 않은가?

그런 답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야만적인 답을 듣게 될 줄이야 !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에는 <코무날카>이라는 주거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 말로 글썄? 집단거주지라고 해야 하나?
혁명과 함께 옛 귀족의 집들은 일반인들이 방 한 칸씩 차지하면서 슬럼화
되었다.
공동으로 부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자신의 방으로 가기위해 다른 사람의 방
을 지나가게 된다. 사생활 보호는 꿈도 못 꾸지만 지금도 이 도시에 존재한
다.
심한 경우, 이혼한 부부가 비싼 집값 때문에 서로의 짝을 데리고 와 같은
방에서 사는 경우도 있단다.
예의니 관습이니 하는 도덕 기준은 나라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이
다.

호텔로 돌아와 홍선생 부부가 시내 구경을 가자고 했지만 어제 체리를 많
이 먹어서인지 오늘 하루 종일 뱃속이 불편해서 참기로 했다.
내일이 있으니까....

8월 9일 (제 7 일) 러시아 최고의 고도(古都), 노보고로드

6시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오늘도 쾌청, 청명 그 자체다.
구름 한 점 없다. 러시아는 이런 날씨가 1년 중,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데 여행 첫날 모스크바에서의 날씨를 제외하면 매일 매일이 감사, 또
감사다.
눈 오는 페테르부르크는 근사 할 것 같지만 비는 상상만으로도 우울하다.

오늘은 노보고로드로 간다.
러시아 역사에서 노보고로드를 빼고 설명 될 수 있을까?
러시아 최고의 고도이며 중세 유럽, 대동맥의 중심이었던 장소로 간다.
러시아를 오기 전, 이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짧은 역사였다. 물론 미국보다야 길지만....
러시아 땅에서 인류의 흔적을 찾아보면 멀리는 70만 년 전, 흑해로 흘러
드는 강 유역, 시베리아 남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가깝게는 BC4000
년~3000년경에 신석기의 농경문화가 있었음이 고고학과 언어학에서 밝혀졌
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나라의 건국으로 불리울 수 있는 키예프 러시아의 출
연은 882년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선진 문화를 꽃 피우고(676년) 있
을 때, 이 나라는 국가라는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키예프 러시아 이전 시대를 알려주는 기록도 없고 다른 나라의 사료에도 언
급조차 없으니 이 땅은 척박하고 혹독한 기후의 세계사 밖의 무풍지대였다.

12세기에 나온 <원초 연대기>에 슬라브 민족이 바다 건너 바라기인(바이
킹, 노르만, 앵글, 고트족으로 분파됨), 루시족을 찾아가 질서가 없는 자신
들을 다스려 달라고 간청해 루시족이 이들의 지배자가 되어 들어왔다고 서
술되어 있다.

그 루시인들이 들어와 터를 잡았고 그들 중, <류리크>라는 이가 노보고로드
에 정착했다.

그 때가 862년경으로 추정되며 그의 사후, 측근인 올레그가 드네프르 강변
키예프(지금의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주변을 통합해 키예프공국을 건설한
다. 이런 연유로 이 땅은 <루시의 땅>이라고 알려져 <키예프 루시>라는 공
국으로도 불리운다.

그러나 그 당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서 수로상의 도시
국가들은 자신들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노보고로드의
자주권이 강했다.

지배자로 들어온 루시인들은 2세기도 지나지 않아 현지인에 동화되어 완전
히 슬라브족이라는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했다. 9세기 전까지 이렇게 신화와
전설 같은 민담만 그들의 역사를 대변하던 러시아가 그 후, 단 기간에 세계
의 맹주로 도약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이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이 새삼 경이

롭게까지 느껴졌다.

노보고로드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 3시간 예정이다. 도심을 벗어나 달리면서 인상적인 것은 거리를 덮고 있는 화물차량들이었다. 고속도로 양 차선에는 승용차는 별로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형 트럭 행렬이 이어졌다.

이 도로는 모스크바로 연결되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러시아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보고로드는 일멘호수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볼호프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이 도로를 통해 러시아는 노보고로드를 거쳐 페테르부르크의 핀란드 만, 발트해로 연결되어 유럽의 안방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9세기경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들이 비잔틴과의 육상 교역로를 개척하기 위해 러시아 강을 연결해(네바-라도가-볼호프-일멘호-로바트-발다이 구릉-드네프르) 흑해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으며 그 중심에 노보고로드가 있었다.

또 중국 장안부터 시작한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사마르칸트까지 연결되며 이곳에서 로마로 향하는 실크로드와는 별개로 카스피해를 통해 러시아의 실팏줄 같은 강줄기를 따라 노보고로드, 핀란드만을 지나 발트해로 연결되는 교역로가 있었다.

옛 기록에 의하면 명과 여진족 등이 러시아와 교역했으며 품목은 주로 여우, 담비 등의 모피가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 학자 중에는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이 루트를 통해 독일로 전해져 쿠텔베르크 금속활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에 활발한 교역은 막대한 부를 가져와 역사의 후발 주자였던 키예프 루시가 2세기 여 만에 유럽의 다른 부유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키예프 공후들이 비잔틴 뿐 만아니라 유럽의 왕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노보고로드 외곽에는 큰 공장은 아니지만 작은 공장들이 자주 눈에 띄어 정말 이 도시가 중세의 고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나 의심스러웠다. 우리는 도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호텔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자그마한 호텔이지만 깔끔해 여행객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

호텔 로비 대형 유리창을 통해 강변 잔디밭에서 비키니 내지는 토폴리스 차림의 여자들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늘 같은 햇살은 이 나라에서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닐것이 이해는 하지만.... 참.... 거시기 하다.

음식도 맛있었다.

이 호텔에 이렇게 많은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경우는 드문 일인지 종업원들도 친절하고 순박하다. 여기도 식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외계인에게 연주를 청했다. 거부를 모르는 귀여운 외계인은 블라디미르에서 보다 훌륭한 연주를 했다.

종업원 여자 아이들이 거의 낯을 놓고 외계인을 쳐다본다. 불이 발그스름한 예쁜 처녀아이들의 순수한 관심이 아주 즐겁고 뿌듯하다.

도심에는 중세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쿠폴이 하나뿐인 별다른 장식 없는 초기 성당들이 공원 숲 속에 숨어있었다.

하얀 두터운 벽, 작은 창문이 특징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성당들은 앙증맞기까지 했다.

노보고로드에만 크고 작은 성당이 82개나 된다니 러시아에 처음 기독교가 상륙한 성지답다. 수즈달에 비해 고저능한 정취는 없지만 부유했던 중세 도시의 면모는 남아있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도시의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하루를 머물렀으면 참 좋겠다.



<귀여운 외계인의 피아노연주>

운전수 아저씨가 자신이 경치 좋은 곳을 안내하겠다고. 러시아에 들어와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처음 만나 신기하기까지 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를 지나 어느 숲속에 멈추어 섰다. 작은 아니, 거의 무너져가는 성당이 있었다.

옆으로 강이 흐르고 있고 성당의 나무 울타리에는 거미줄이 층층이 걸려 있었다. 호젓하기는 하지만 결코 감탄할 경치는 아니었다. 성당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듯 사랑받지 못하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다.

성당 내부도 빛바랜 벽화가 조금 남아있고 검은 곰팡이 자국이 역력했다.

지붕의 쿠폴도 비잔틴 반구형 돔 형태에서 러시아식 양파형 쿠폴로 발전해가는 중간 단계인 목만 긴



<폐륜성당>

반구형 쿠파이었다. 쿠파 위 십자가도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십자가에 초승달이 장식되어 있었다.

성당 이름을 물으니 <페룬 성당>이란다.

“페룬이 무슨 의미지요?”

“이집트 신 이름입니다.”

“이집트 신중에 그런 이름이 있나? 왜 이집트 신 이름이 붙었나요?”

“중세에는 이집트 신 이름을 성당에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노보고로드에 들어와 이곳 현지 가이드로 나온 60대 할머니의 대답이었다.

홍선생과 머리를 맞대고 이집트 신을 떠올려보아도 페룬이 어떤 신인지 통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찾아보니 전혀 딴 나라 이야기였다.

페룬(perun)은 슬라브 민족 최대의 민간 주신(主神)이었다.

예수를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신화 속 많은 신, 즉 정령들을 섬겼었다. 그 중 으뜸신이 페룬이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며 전쟁을 관장하고 떡갈 나무를 자신의 신목으로 삼았다.

기독교 수용 전, 노보고로드에서는 페룬 상 앞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을 지펴 놓았단다.

금빛 수염을 가진 페룬은 용모도 제우스 신과 비슷하다.

어느 민족이나 과학적 이해가 전무했던 시대에는 경이로운 자연의 변화에 의지해 살면서 주변 사물에 상상력을 보태어 신격화해 섬겼다. 자연 환경이 혹독할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했다.

슬라브 민족도 여러 신을 섬겼다.

7월 20일 경에 거행되던 <페룬의 날>은 정교 수용 후, <선지자 일리아의 날>로 변모해 지금도 축일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전통 문화 토대를 버리지 않아 이런 범신론적 자연관이 존재하는 <이중 신앙>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블라디미르 대공이 옛 것을 야만시 여기며 강압으로 그리스 정교를 일반 백성에게 수용시켰지만 국민들 가슴 속에는 그들의 신을 떠나보내지 못해 복합적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 정서가 푸시킨 시에 잘 녹아져있어 러시아 민족의 영원한 사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멍청한 러시아 할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 손은주씨도 참 답답하다.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공부 좀 했으면 좋으련만.....

지금은 성당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 옛날, 이곳에 페룬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 성당의 위치도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다.

노보고로드는 볼호프강이 있어서 발달한 곳인데 볼호프강은 일멘호수에서 흘러 나간다. 성당은 호수에서 강이 발원해 나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었다.

운전수 아저씨는 경치 좋은 곳이 아니라 노보고로드의 시원(始原)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유리예프 수도원과 수도원 종루>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장소를 본 것 같아 가슴 뿌듯했다.

유리예프 수도원으로 갔다.

강변에 위치한 수도원은 중세 교회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 52m의 종루는 남성적인 근엄함과 힘이 느껴졌다.

수도원 내 게오르기 성당은 1119년에 세워졌다는데, 이 역시 노보고로드 성당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건물이 크고 높아 남자 수도원의 품모를 가졌다.

성당의 이코노스타시스는 보수 중이라 아쉬웠다. 성당의 천정과 벽을 장식하고 있는 프레스코화는 언제 보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했다.

다른 성당에 비해 금색을 많이 써 어두운 실내 분위기 속에서 화려한 느낌보다 성스럽고 고귀한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다.

전반적으로 정통 비잔틴 성당의 모자이크 이콘과 아주 흡사했다.

인간의 신학적 느낌이 배제된 엄격한 규범이 그대로 들어나는 비잔틴 화풍이 뚜렷하다. 좌측 벽에 그려진 이 도시의 영웅 알렉산드로 넵스키의 어머니와 동생의 아름다운 벽화도 인상적이다.

노보고로드는 키예프 루시에 속해 있었지만 중앙 통치 체제의 느슨함과 상권으로 얻은 부를 바탕으로 강한 독립성을 갖고 있어, 1136년에 키예프 루시로부터 정치적으로 분리하여 공화국으로 완전히 독립했다.

또 타타르(몽골)의 침략을 받아 키예프 루시가 사라졌지만 노보고로드는 살아남았다. 몽골과 협상해 조세를 받치고 칸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 당시 이 도시의 지도자, 알렉산드로 넵스키는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굴욕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지배 기간에도 노보고로드를 넘보는 세력이 있었으니 독일,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이었다.
크고 작은 전쟁이 26차례나 있었다.
그만큼 노보고로드를 모든 나라가 탐내는 매력적인 도시였다.

거대한 몽골에는 어쩔 수 없어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넵스키는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미르(mir)와 함께 항쟁을 계속해 러시아 영토를 지켜냈다.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상인들은 항복을 권했단다.

작년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상인들의 애국관이다. 실크로드 상의 도시들은 어느 정권, 어느 종파에 소속되어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권 보장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이런 정신이 매국노적인 발상이며 비도덕적이라고 단죄하기 전에, 항상 힘의 논리로 세계가 재편성되고 아직 민족적 단결의식이 깊이 인식되기 전의 세상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목숨을 보전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의 상인들도 아무리 다른 민족보다 종교적 영향으로 공동체 의식이 컸다고 해도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인식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구의 역사에서 농민은 항상 최대의 약자였으며, 수탈의 대상이었고 고단한 삶의 대명사였지만 고지식하고 정의로웠다. 이런 연유로 알렉산드로 넵스키는 러시아를 지켜낸 민족적 영웅으로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지켜냈다. 수도원은 너무 조용해서 잠시나마 세속적인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우리는 슬슬 걸어 수도원 옆에 있는 목조건축박물관으로 갔다.

이미 수즈달에서 이런 곳을 방문했기에 특별한 감회는 없다. 전반적으로 수즈달 건물들보다 세월의 무게가 더 느껴졌다.

시내로 들어가 크레믈린으로 향했다. “오호! 제대로 된 크레믈린이다.”

약간 높은 언덕 위의 크레믈린 성채는 아주 소박하지만 운치 있고 튼튼한 중세의 멋을 다 갖추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정확하게 착륙한



<성당의 천정화>



<크레믈린 성채>

느낌이 들었다.

붉은 벽돌의 망루는 뾰족한 사각뿔 지붕을 쓰고 있다.
10세기 초 나무로 건설된 성채는 14세기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성채에는 9개의 망루가 있고 훼손된 곳 없이 온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다. 5
루블화의 뒷면에 이 성채의 모습이 들어있다.

우리는 곧장 성소피아 성당으로 갔다.
성당은 보수 중이라 주변이 어수선 했지만 내부를 구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소피아 성당은 명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성당 내 프레스코화와 이코노스타시스는 비잔틴적인 요소와 러시아 회화의 특징이 같이 나타났다.

벽화의 색채는 각각 대비가 뚜렷한 원색이 많이 사용되어 어두운 실내공간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다.



<성 소피아성당의
이코노스타시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프레스코화>

이 성당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프레스코화가 남아있다.

건설 당시(1045~50) 내부를 장식했던 프레스코화로 처음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 어머니 헬레나이다.

이미 많이 훼손 되었지만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특별히 유리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었다.

러시아 초기 성당의 프레스코화 대부분이 그리스인에 의해 그려졌으므로 이곳은 러시아인들의 그림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약탈당해 스페인까지 갔었다 회수 되었다는 금 십자가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노보

고로드의 부를 상징하듯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또 2구의 금관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블라디미르 대공과 그 부인 안나의 묘라는데 믿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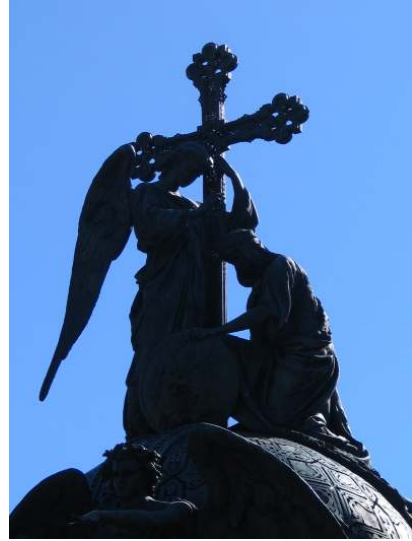
“정말 기독교를 수용한 블라디미르예요?”

“그 블라디미르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하기야 러시아 땅에서 블라디미르가 좀 많아야지.



<금십자가> (안순배)



<1000년 기념탑>

현재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블라디미르 대공은 우크라이나에 누워있어야 말이 될 것 같다.

성당을 나와 천년기념탑을 구경했다.
이 도시가 862년 건설되어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알렉산드로 2세가 세웠다는 기념탑은 어제 세워진 듯 깨끗해 150여 년 전의 작품이라고 믿기 힘들었다.
탑의 전체 모습은 종을 연상케 했다. 탑의 꼭대기에는 천사가 황제에게 십자가를 주고 있다.
그 아래에는 중세의 대공들과 영웅의 동상이 있다.
마지막 하단에는 러시아를 빛낸 수많은 인물들이 부조되어 있어 러시아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조형물이었다.

볼호프 강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가벼운 수영복 차림으로 태양을 만끽하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여 다시 한 번 내가 상상했던 러시아는 무엇이었나 싶다.
러시아 최고의 고도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도시의 역사와 맞물린 여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보고로드를 주변을 병합하여 정치적 권력을 키운 공국은 아니지만 러시아 역사의 찬란한 영광과 유산을 만든 명예로운 도시였다. 그 힘은 두말 할 것 없이 그들이 창출해낸 부였다.

키예프 루시의 다른 도시에서 귀족과 공후들의 모임인 <두마>가 권력을 휘두를 때, 이 도시는 상인과 수공업, 농민들의 집합인 <베체>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다. 단 한명의 시민이 종을 울려도 민회는 소집되었다.
민주적인 배심원 제도와 중재제도가 있어 중세 유럽의 야만적 사회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진 적인 민주 사회였다.
이런 민주적 사회가 두려워 후에, 이 도시를 점령한 모스크바 공국의 이반

3세는 민회 소집 때 쓴 종
을 모스크바로 가져가 그
상징적인 싹을 없앴고, 이
반 4세는 이 도시의 시민
들이 불온하다고 6만이 넘
는 사람을 학살했다.

비잔틴 정교회 문화도 이
도시에 들어와 러시아 민
족의 정서와 합쳐져 더욱
성스럽고 거룩한 찬미의
문화로 거듭났다.

또 몽골의 침략 속, 문화
암흑기에도 이 도시가 있
었기에 러시아 문화는 계
승 발전 할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져

매일 발기만하는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말랑말랑하고 따
뜻한 인간의 역사가 이곳은 흐르고 있었다.

가로수의 사과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주렁주렁 달려있다.



<태양을 즐기는 시민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니 7시 쯤 되었다.

저녁을 먹고 자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어제 자유 시간은 곤란하다던 손은주씨도 이제 우리를 포기 했는지 말랑말
랑해져 쪽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쪽지에는 <300루블에 상트 페테르부르크 호텔까지 갑시다>라고 써 있었다.
넵스키 거리에서 택시를 타면서 이 쪽지를 보여주란다. 마음 씹씹이가 고맙
고 귀엽다. 모두 보물처럼 그 쪽지를 간수하고 피의 성당 앞에서 헤어졌다.

모스크바 바실리 성당과 쌍둥이 같은 <그리스도부활사원>은 1883년~1907
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알렉산드로 3세가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된 아버지
알렉산드로 2세를 위해 테러 당한 이곳에 사원을 건설했다.

그래서 <피의 사원> 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 출신 건축가 알프레드 파를랑의 참여 때문인지 바실리 성당과 흡
사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느껴졌다.

갈색 벽돌과 기하학적 무늬가 입체적으로 표현된 쿠폴, 황금빛 네 개의 쿠폴,
또 목조 건축의 기둥을 장식했던 문양들이 갤러리 작품처럼 외벽을 장
식하고 있다.

너무나 완벽한 미를 품고 있어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을 듯 했
다. 쿠폴 기둥의 벽감에는 모자이크 성화가 선명하게 장식되어 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아름다운 건축물로 나를 감동 시킬 것인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깎아놓은 밤톨처럼 예쁘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부는 구경 할 수 없었다. 석양의 붉은 빛이 반사된

사원은 구세주를 향한
촛불을 밝히고
있는 듯 했다.

사원을 보고 모이
카 샷강을 따라 내려
와 넵스키 대로로 들
어섰다.

카잔 성당 앞에서부
터 나의 넵스키 대로
의 로망은 시작되었
다.

노보고로드의 영웅
알렉산드로 넵스키의
이름을 딴 이 대로는
네바 강변의 구 해군
성 건물부터 시작해

넵스키 수도원까지 이어지는 4.5km의 거리다.

노보고로드로 연결되는 이 거리는 예카테리나 여제 시대, 유럽의 계몽주의
유입과 더불어 프랑스적인 분위기의 고급문화가 만개하면서 그 명성이 시작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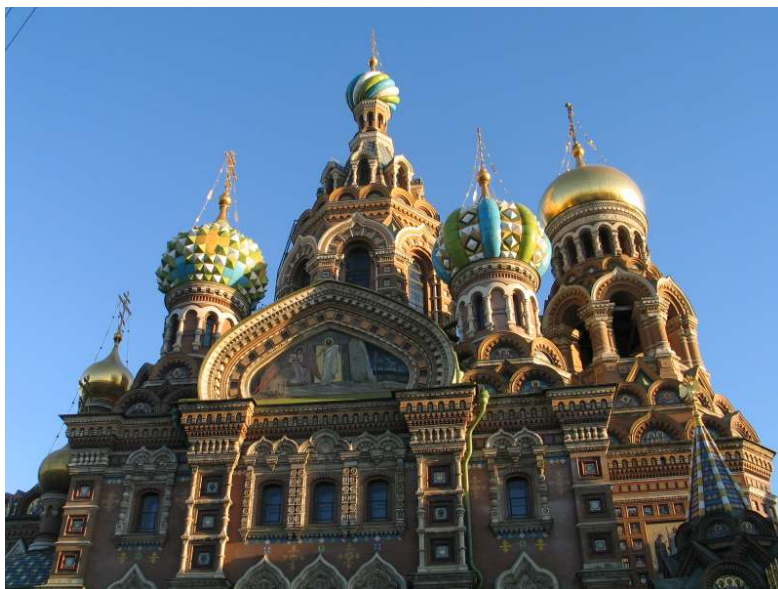
18세기 중반부터 바로크 양식의 궁전과 다양한 종파의 교회가 건설되어 유
럽의 어느 도시보다 세련되고 아름다우며 다국적 문화가 수용되는 관용과
이상향적인 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직설법적인 거리의 모습보
다 나를 설레게 했던 것은 고골과 도스
트예프스키가 소설에서 보여준 이 거리
의 은유적인 풍경과 기호적인 신비감이
다.

대문호들이 그려낸 이 거리는 아무리
부정하고 평가절하 하려고해도 불가항
력인 달콤한 이상이 뿌리칠 수 없는 매
력으로 그려졌다.

이 거리에서 그들은 구차한 자신의 일
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숨통을
조이는 고통을 맛보았고, 마약 같은 화
려한 풍경에 녹아들었다 꿈에서 깨면,
상처 입은 가슴에 소금이 뿌려진 짐승
처럼 울부짖었다.

고골이 꿈이며 사기이고 공상이며 환각
이라고 외쳐대던 이 거리가 너무도 보
고 싶었다.



<피의성당의 쿠폴>



<넵스키 거리의 신들>

거리의 첫인상은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며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적이었다.

대로 양 변의 건축물들은 전부 궁전이며 박물관이고 박제되지 않은 화화와 조각이 전시된 미술관이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속 세상이었다.

건물의 외벽은 그 하나만으로도 인류의 이상이 다 포함된 장식 조각으로 덮여있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19세기 이 도시를 여행한 드 퀴스탱은 슬라브 민족 고유의 신들을 내팽개치고 이국의 조상(彫像)들로 가득 찬 이 도시를 어리석은 모방이라고 폄훼했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다.

드 퀴스탱의 고국 프랑스 파리에도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즐비했었다.



자신들은 되고 왜 이 나라는 안되는가?

프랑스든 러시아든 나에겐 모두 똑같이 유럽이다.

이 나라를 보기 전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으면서 철저히 서구화를 표명하는 것이 가끔 못마땅하기도 했다.

우랄 산맥 넘어있는 러시아를 보았다면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러시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틀림없는 유럽이다.

아시아적인 요소는 찾기 힘들었다.

우리 4명은 거리를 걸으면서 아주 촌스러운 행보를 계속했다.

사진 찍고 입 짹 벌리고 건물들 올려보느라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뿐이라? 사람 구경만으로도 벅찼다.

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편애했다면 그 증거는 슬라브 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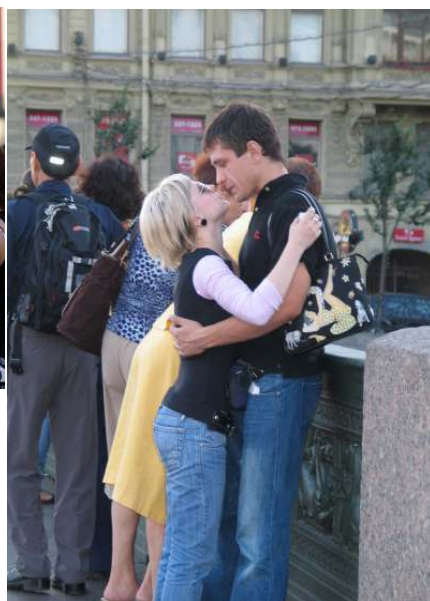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다 선남선녀일 수 있겠는가?

꼭 끼는 청바지에 선그라스를 낀 그들은 다 모델 같았다.

그들이 낀 선그라스는 이름도 없는 싸구려인데도 말이다.

화려한 쇼윈도우 속의 명품보다 이 거리 젊은이들이 더 생기 있고 멋지다.

고골 소설 속 뱀스키의 밤은 젊은 독신자들이 멋진 옷차림으로 비슷한 목적(이성에 대한 유혹)을 갖고 이 거리를 배회한다지만 오늘날의 뱀스키에는



<넵스키 거리의 젊음과 사랑>

(안순배)

짜 없는 젊은이
는 없고 모두

서로를 희롱하기에 바쁜 커플로 채워져 있다.
사랑 놀음에 바쁜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침울한 노점상과 표정 없는 행인들이 내 눈에는 오히려 현실성 없는 허상 같다.

거리는 젊음으로 충만하고 예술적 향기로 가득하다.
이 거리의 주인이 될 수도, 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관광객인 나로서는 이런 포만감이 좋고 행복하다.
고골과 도스트예프스키처럼 애증의 눈초리로 이 거리를 걸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내가 좋다. 자유로워 좋고 아름다워 좋고 낭만이 흘러 좋다.
이 도시에 처음 들어와 이삭 성당 지붕 전망대에서 본 페테르부르크는 온기가 없는 그림 같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잘 짜여있어 쓸쓸하기까지 했다.
인간이 생명의 씨앗을 품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보여 지기 위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 세워진 도시는 가여웠다.
그런 도시에 이런 거리가 있다.
“고골 아저씨! 당신의 콤플렉스를 다 내려놓은 지금은 이 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E-메일 한 통 기다려도 될까요?”

넵스키 거리를 관통하는 폰탄카 운하 위에 걸려있는 아니치코프 다리까지 왔다.
다리의 교각 모서리에 세워져있는 4마리의 말과 조련사로 유명한 다리이다.
이곳의 경치도 넵스키 거리의 백미다.
우리가 이 다리에 도착했을 때, 하루를 마감하는 햇살이 황금빛 분가루를



<폰탄카 운하> (안순배)

날리며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말과 조련사의 조각상은 너무나 정교하고 역동적이었다.
특히 말 몸통과 다리의 실핏줄까지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소름이 돋는다.
1850년 건축가 클로드트가 이 말을 세웠을 때, 니콜라이1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클로드트, 자네는 말보다

훨씬 훌륭한 말을 만들었군.” 하며 칭찬했단다.
150년이 흐른 지금도 4마리의 말은 콧바람을 일으키며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 했다.
해는 완전히 사라졌다. 밤 10시 쯤 되었나보다.



<이니치코프다리의 교각>

우리는 폰탄카 운하를 따라 네바강 쪽으로 내려갔다.
목적지는 센나야 광장이다.
마음 맞는 4명이 몰려다니니 무엇이 무서우랴
“스킨헤드(외국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애송이들)! 다 나오라고 해.”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하릴없이 거리를 배회하던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다.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하다.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박장대소하고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다.

운하를 따라 걷다보니 또 다리가 보였다.

성문 같은 교각을 가진 아주 특이한 석조 다리가 눈길을 끌었다.

이 도시에 중첩된 세월을 대변하는 듯 연륜이 느껴졌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확인을 해보니 그 다리는 보통 다리가 아니었다.

고골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소설, <외투>에 등장하는 역사적 장소였다.

소설 속 주인공,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소심하고 가난한 하급공무원이다.

러시아는 춥고 긴 겨울의 나라이다 보니 겨울 외투는 삶을 지탱하는 필수품이면서 한 인간의 부와 명예를 대변할 뿐 아니라 인격까지도 나타내는 상징적 기호로 작용한다.



<스타로-칼린킨다리>

이 지지공상의 주인공은 낡아빠진 외투로 동료들의 놀림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약, 저축, 절약, 저축.....을 해 겨우 멀리서보면 담비가죽으로 보이는 고양이 가죽으로 된 80루블 짜리 외투를 장만한다.

그것도 6개월간 흥정에 흥정을 해서 말이다.

그가 새 외투를 입고 관청에 나타나자 모두들 그의 외투를 구경하러 모여들 정도였으며 급기야 계장대리가 그의 외투를 위해 파티까지 열어줄 것을 약속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자부심이 된 외투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밤길에 외투를 강탈 당한다. 주인공은 충격과 밤의 추위로 결국 후두염에 걸려 죽고 만다.

그가 죽은 뒤부터 이 <스타로-칼린킨 다리>위에 유령이 나타나 도둑맞은 외투를 찾아다니고 또 외투란 외투는 모조리 빼앗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자체는 황당무계 하지만 고골의 신랄한 사회적 풍자와 진한 휴머니즘이 가장 잘 녹아있는 소설이라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작가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극찬했다. 내가 본 다리는 가여운 유령이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자신의 외투를 찾아 헤매던 슬픈 전설의 장소였던 것이다.

고골은 소설을 구상하면서 그 다리를 수없이 건너다녔을 것이다.

우리는 다리를 보고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섰다.

넵스키 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골목길은 인적도 없고 어둡다.

그리고 잿빛 건물은 기가 다 빠진 몰골로 음습한 기운이 흐른다.

드디어 센나야 광장이다. 센나야 ! 센나야 !
 센나야 광장은 내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다.
 지하철역이 광장을 다 차지하고 있고, 역 앞 광장은 겨우 체면위지를 위해
 조금 비워둔 것 같다. 역 건물 전면에는 우리의 LG 로고가 자랑스럽게 빛나
 고 있었다.



<센나야 광장의 지하철역>

광장 가장자리에는 술집
 과 식당이 자리 잡고 있
 고 많은 사람들로 소란스
 럽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중심무대이기도 한
 이곳은 이 도시의 하층민
 들이 주변에 모여 살면서
 그들의 비루한 삶의 애환
 이 다 고여 있는 상징적
 장소이다.

1730년대부터 이 도시에
 모여든 건설노동자들이

이 광장을 중심으로 슬럼을 형성했다.
 <센나야광장>은 <건초광장>이라는 의미이다.
 이 광장에서 짐승들이 도살되어 즉석에서 팔리고 건초나 장작도 파는 시장
 이 섰다.
 또 죄수들을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삶에 떠밀려 흘러온 사람들의 종착지였으며 인간 존엄성을 상실한 말종들의
 전시장이기도 했다.
 대낮부터 술 취한 주정뱅이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퇴물창녀와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같이 빈곤에 찌들어 암울한 미래에 못견디어
 하는 반사회적 성향의 인텔리겐치아가 모여든 장소였다.
 이곳은 항상 좁고 어두우며 악다구니와 폭력이 난무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의 하수구였다.

<죄와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랜 망설임 끝에 이 광장에서 전당
 포 노인을 살해할 결심을 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한다는 신념하
 에.....
 그러나 살인과 동시에 생명을 경시한 원죄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살인죄라는 사법적 판결의 두려움보다 인간 본성의 내면의 갈등으로 더 지
 쳐간다.
 쓸모없는 인간을 죽이고 괴로워하는 자신을 더 용서할 수 없어 심신이 무너
 져 갈 때, 창녀이며 성녀인 소냐의 사랑과 충고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광
 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대지에 키스하고 자수했다.

넵스키 대로에 있는 성스러운 성당이 아니라 센나야 대지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죄와 벌을 동시에 내려놓았다.
 세상사에서 받은 상처와 죄는 우리가 딛고 있는 대지와 사람에게서 용서받고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훨씬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한 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도스트예프스키여 !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만이 이런 용서와 화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이 광장에 발을 딛고 서니 감개무량하다.
 책 속의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튀어나와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긴장감이 느껴져 내 심장의 진동이 들렸다.



<평화의 탑>

이 광장에는 최근에 세워진 평화의 탑이 있다.
 세계의 모든 언어로 <평화>라는 단어를 새겨놓았다.
 물론 한글로 쓴 <평화>도 목 좋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평화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힘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완성된다고 믿는다면 저 <평화의 탑>은 가장 이상적인 장소에 세워진 것 같다.
 도스트예프스키가 그려낸 19세기의 센나야와 현재의 센나야는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문 열린 술집의 실내는 여전히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돌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넵스키 대로에 비해 불량해 보이는 젊은이들과 멍한 얼굴로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

래 머물 곳은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도스트예프스키가 <죄와벌>을 썼던 하숙집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한국에서 사진을 보고 그 집을 머리에 잘 입력했다고 믿었는데 모두 똑같은 건물들이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곳에서 도스트예프스키도 만났고 라스콜리니코프도 만났다.
 낫 놓고 앉아있는 가여운 소냐와 리자(<지하 생활자의 수기>에 나오는 창녀)도 보았다.
 우리는 광장을 빠져나와 그리보예도프 운하를 따라 다시 넵스키 대로로 향했다.

이 운하 역시 <죄와벌>의 중심무대이다.

운하 위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수없이 걸어 다닌 다리들이 걸려있다.

우리의 출발지였던 피의 성당이 보일 때쯤, 이 도시의 이국적 동물의 상징인 그라핀이 네 교각을 장식하고 있는 멋진 반콥스키 다리도 볼 수 있었다.

아직 이 밤의 탐험은 끝나지 않았다.

카잔 성당은 조명을 받아 러시아 왕실 문장 속 독수리처럼 커다란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그 웅장함이 하늘을 찌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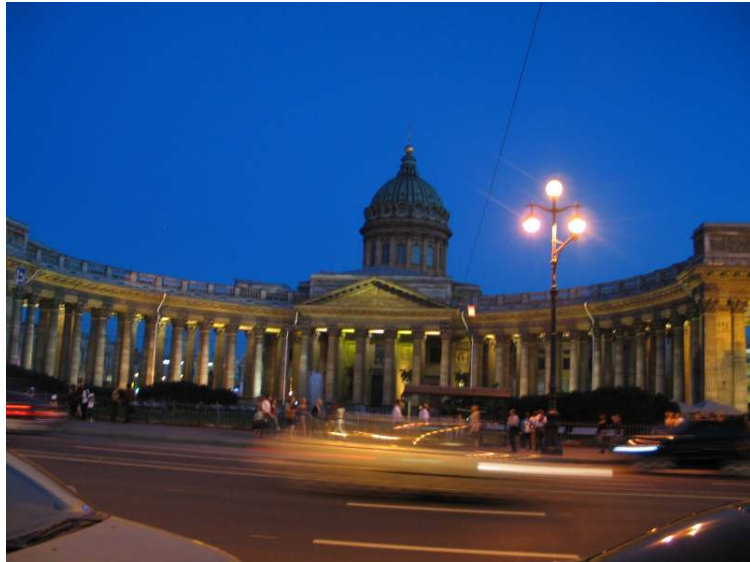
카잔 성당 바로 앞에 있는 문학 카페로 갔다.

푸시킨이 자주 와서 차도 마시고 시도 쓰며 문인들과 교우하던 장소이다.

현재도 카페는 성업 중

이며 푸시킨의 밀랍 인형이 앉아서 시를 쓰고 있다.

푸시킨이 수없이 밟고 다녔던 돌계단 하나가 이제는 박제가 되어 유리관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밤의 카잔성당>

너를 사랑한다, 표토르의 창조물이며.

나는 사랑한다,

너의 엄숙하고 정연한 모습을,

네바 강의 힘찬 흐름을,

강변의 화강암 독을,

고운 문양 새겨진 철책을,

(중략)

빛나라. 표토르의 도시여.

러시아처럼 굳세게 서 있어라.

그러면 무서운 자연의 위력도

네 앞에 굴복하리라.

- 청동 기마상 -



<문학카페의 푸시킨>

이렇게 페테르부르크의 영원함을 찬미한 시인은 그 역시 이 도시보다 더한 찬사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황홀한 이 밤.

실내 카페는 가당치 않다. 우리는 불 밝힌 카잔 성당이 보이는 노천카페에서 맥주 한 잔씩 하기로 했다.

러시아 맥주의 대명사, 발찌카를 주문했더니 없단다.

3시간 정도를 걸어 다니다 한번 앉으니 이제 일어서기조차 싫다.

할 수 없이 다른 맥주를 시켰다.

발찌카는 김정일이 훌쩍 반해 수입까지 했다는 맥주로 알콜 농도와 제조 기법을 기준으로 1~9번까지 9종의 맥주가 있다.

모스크바에서 김정일이 즐긴다고 해서 마셔본 4번은 너무 맛있해 화끈한 9번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실패다.

밤 깊은 뱃스키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잔 술로 하루를 늘리고 있다. 나 역시 오늘을 보내기 싫다.

저 빛나는 20대의 청춘이 부럽지 않은 페테르부르크에서의 내 청춘을 보내기 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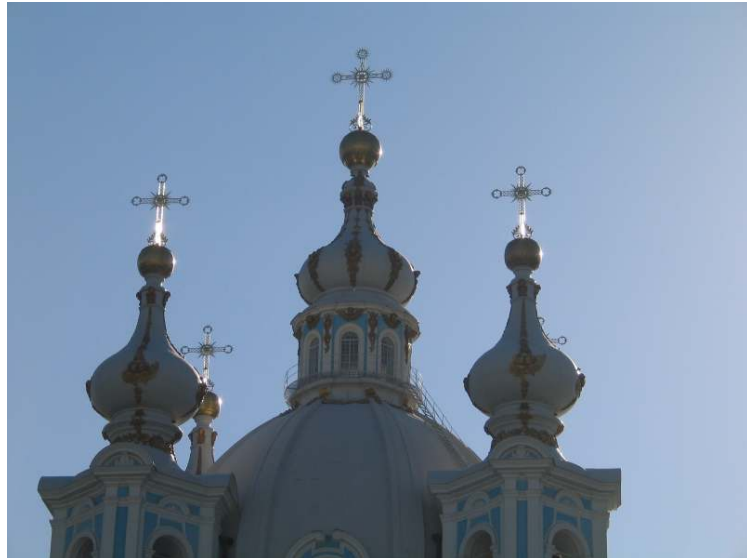


<페테르부르크의 밤을 늘린 카페>

8월 10일 (제 8 일) 영혼의 사치를 무한대로 용인하는 곳, 에르미타쥐 박물관

어제 2시 경에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7시 기상. 그래도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오늘은 온종일 페테르부르크를 보고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돌아간다. 스몰리이 사원으로 갔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원을 보았지만 이 건축물이 아름답기로는 으뜸이다.



<스몰리이 사원의 쿠폴>

여왕의 도자기로 불리

우는 영국 <웨지우드 도자기>를 보는 것 같다. 라이트 블루와 흰색의 대비가 눈이 시릴 정도로 청아하다.

특히 쿠폴은 양파 모양이라기보다 러시아 황실의 부활절 계란 <삐산카> 같다. 목수가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장인이 빚어낸 건축물이다.

표토르 대제의 딸, 엘리자베타 여제가 모스크바의 노보제비치 여자 수도원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해 라스트렐리라는 건축가가 짓기 시작했다.

이 도시 바로크 건축물 중 가장 유럽의 바로크 양식에 가까워 좀 더 우아하다. 현재는 콘서트 홀로 이용 된단다.

연주가 없는 날은 문을 닫아놓아 내부는 구경할 수 없었다.

이 사원 뒤쪽으로 러시아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귀족의 여자제들을 교육시킨 스몰니이 인스티튜트가 있다.

아주 품위 있고 단아한 멋이 흘렀는데 건물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오니아식 기둥이 인상적이다. 정숙하고 지성미 넘치는 여성 교육장이라는 명성에 딱 어울린다.

이곳은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의 혁명본부가 있었다니 건물의 일생 치곤 참 극적인 반전이지 싶다. 지금도 정부기관으로 쓰고 있는지 경비가 삼엄했다.

이 건물 앞에는 단정한 정원이 있다.

새 아침을 노래하는 새 소리가 참 맑게 들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

공원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마주보고 있었다. 흉상의 두 인물은 이곳이 성공한 혁명의 본부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산주의>하면 마르크스만 알았지 무지한 나는 엥겔스를 몰랐다. 엥겔지수의 엥겔과 구별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엥겔스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공동으로 공산당 선언(1848)을 했으며 공산주의의 성서라는 <자본론>을 마르크스가 1권을 쓰고 엥겔스가 2,3권을 완성시켰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을 때까지 금전적 지원을 하며 그를 도왔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제시했다면 엥겔스는 그 이론을 멋진 글 솜씨로 세일즈 했던 것이다. 예수님 사후, 바울, 요한이 없었다면 이 지구상에 기독교의 전파는 쉽지 않았을 것이 자명한 것처럼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전파의 일등 공신이였다.

그들의 흉상을 보고 있자니 이제는 실패한 이념이지만 러시아인들에게 공산주의는 벗어날 수도 다시 걸칠 수도 없는 외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마을 곳곳에 서있는 레닌 동상과 붉은 광장의 레닌 묘는 러시아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매일 보고 있자니 불편하고 박물관에 집어넣자니 실패를 인정해야하는 자존심이 너무 아프고 반대 여론도 걱정인 것이다.

푸틴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니 러시아 땅에서 레닌 동상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지도 모른다.



<도스트예프스키의 묘>

넵스키 대로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 알렉산드로 넵스키 수도원으로 갔다. 정확하게 수도원 입구에 위치한 치흐빈 묘역으로 갔다. 누구를 찾아서? 당연히 도스트예프스키지! 많은 예술가들의 묘역이라고 해서 좀 색다른 그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면 맥이 풀린다.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선 묘역은 짙은 녹음과 촘촘히 들어선 오래된 석관과 비석들로 어둡고 칙칙하다.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모여 있어 놀랍다.

“죽음은 원래 이런 것이야.” 하며 바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간다. 아무리 미화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죽음은 쓸쓸하고 허무하다. 모두 똑같이 대지로 돌아갈 뿐이다. 위대한 영혼은 없다. 위대한 행적이 있을 뿐....

묘역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처음 만난 사람은 도스트예프스키다. 별다른 장식 없이 턱수염 무성한 흉상이 놓여있다. 센나야 광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는 아주 고요한 묵상에 빠져있었다. 방해 받기를 거부하듯 말이다.

더 들어가니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 루빈스타인, 림스키코르사코프, 무소르크스키, 차이코프스키 묘가 모여 있다.

그 중 차이코프스키 묘가 가장 아름답다. 악보를 든 천사가 앉아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으니 천국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는 듯 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슬픔을 영원히 새긴 조형물도 있지만 죽음으로 지겨운 삶을 털어낸 흥가분함을 표현한 조각도 있다.

이 죽음의 도시에서도 낙천적인 망자는 있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묘>

묘역을 나와 수도원 진입을 시도했다.

사제가 입구를 막고 서서 관광객은 출입을 금지 시키고 있었다.

이럴 땐 작은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다. 몸집 큰 러시아인들 사이에 몸을 숨

기고 슬쩍 따라 들어갔다.
성공 !

수도원은 이 도시와 역사를 같이 한 곳으로 표토르 대제가 모스크바에서 천도하면서 러시아 정통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보고로드의 영웅 알렉산드로 넵스키의 이름을 명명한 성지다.

수도원은 아주 고색창연하여 옛 건축물의 흔적과 새로운 것들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는 듯했다.

수도원 입구에 있는 성모수태고지 교회는 교회와 황실의 유물 보관소화 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 교회를 지나 소박한 꽃밭을 지나면 삼위일체 교회가 있다.

이 교회 купол은 양파형 모양이 아니라 넓은 목을 가진 반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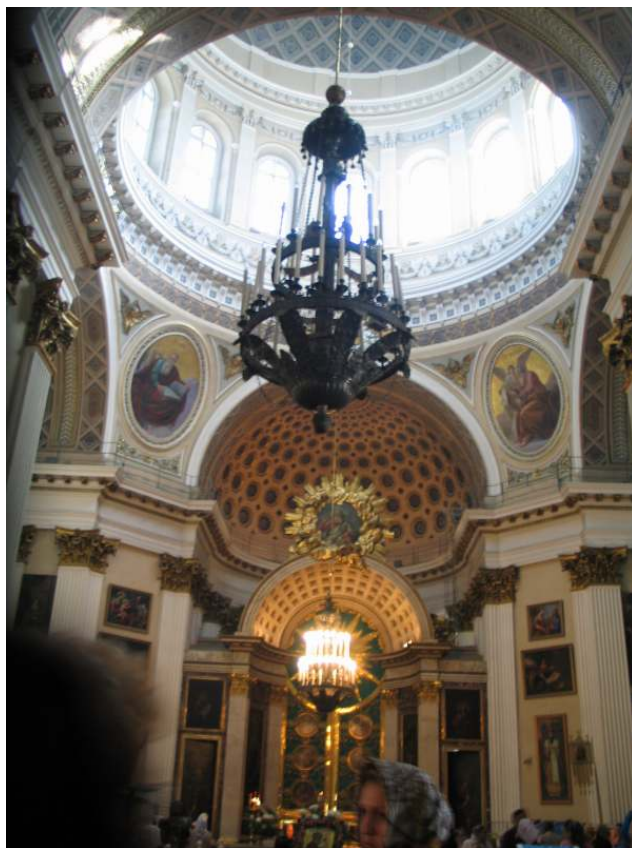
으로 그곳을 통해 쏟아진 햇살이 회중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역시 신자들만의 장소여서 고요하고 이콘도 너무 많지 않아 절제된 성스러움이 느껴졌다. 수준 높은 갤러리 같기도 했다.

넵스키의 관도 이곳에 모셔져있다.

정원에는 노보고로드에 수즈달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기적을 보여 그들을 눈멀게 하였다는 <표상의 성모상> 동판이 비석처럼 서있어 이곳이 노보고로드와 인연이 깊은 곳임을 암시한다.

19세기까지 병원, 양로원, 사제양성부설학교 등을 거느릴 정도로 번성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저 옛 영화를 가늠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축소된 모습이였다.



<수도원내 삼위일체교회의 내부>

오전 마지막 일정으로 바실레프스키섬 입구에 서있는 <해전기념원주>, 로스트랄 등대로 갔다.

라도가 호수에서 발원한 네바강은 74km를 달려와 페테르부르크를 끌어안고 돌아가다가, 바실레프스키 섬에 부딪혀 큰 네바와 작은 네바로 나뉘어 흘러 곧 핀란드 만으로 흘러들어 간다.

두 네바로 나뉘는 지점에 로스트랄 등대 2개가 서있다. 19세기 말까지 이 강을 운항하는 밤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지금은 기념축일에만 불을 밝힌단다.

이 등대는 1805년, 바다의 영광을 이 도시에 부여하기 위해 로마식 해전기념원주를 본받아 원주 뒤에 있는 증권거래소와 같이 세워졌다. 등대는 200여 년 전의 기념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보존도 잘 되었지만 무엇보다 32m 높이의 무게감과 정교하고 특이한 장식이 이 도시가 지향하는 예술적 취향을 이해하게 한다.

로마 해군이 적의 선박을 나포하면 뱃머리를 잘라 승리기념원주에 장식으로 매달았다는 설을 그대로 옮겨 이 등대에도 모조 뱃머리를 조각해 놓았다.

또 등대를 떠받치고 있는 사각 기단 네 귀퉁이에는 루살카 뱃머리와 남녀 해신 조각상이 있다.

등대 뒤 증권거래소 건물은 줄지어 서있는 기둥들로 인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시킨다.

기둥 위에는 말 4필과 남녀 신하를 거느린 바다의 신 넵툰이 앉아있다.



<로스트랄 등대> (안순배)

등대 주변에는 결혼한 신랑신부가 어찌나 많은지 하얀 꽃잎이 떨어진 듯 했다.

키스하고, 샴페인 잔 깨뜨리고, 비둘기 날리고, 꽃다발 던지고.... 모두 똑같은 의식을 치른다.

네바 강 수면을 뚫고 올라온 분수가 유연한 춤을 춘다.

모두 기계에서 찍혀 나오는 봉어빵처럼 똑같은 크기로 웃고 떠들고 사진 찍



<네바강의 분수>



<행복한 커플>

다 사라진다. 러시아에서 여름은 결혼의 계절인가보다.
미래를 같이 하기로 약속한 커플은 네바 강에 과거의 자신들을 다 털어내고
어제와 다른 내일을 향해 사라진다.

점심은 굉장한 곳에서 먹었다.
오늘은 니콜라이 궁전의 점심초대를 받았다.
궁전을 들어서면서 설마 이런 곳에서..... 믿을 수가 없다.
정원을 지나 궁으로 들어서면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시종들의 안내
를 받아 3층 식당으로 들어선다.
천정이 까마득한 홀에서 코스 요리를 즐겼다. 비어있는 궁을 발 빠르게 레
스토랑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특별히 개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소니 분명 고부가가치를 창출
해 낼 것이다. 음식 자체는 특별할 것 없는 서양식 스테이크 코스지만 기분
은 그저 그만이다.
거리의 음식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만 가끔 갖는 우아한 식탁은 솜사탕 같
은 보드라운이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사를 누렸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한 후, 고뇌하며 거닐었다는
공원을 걸어보고 에르미타주로 갔다. 자 ! 드디어 에르미타주다.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목표로 정했던 곳.
루브르, 대영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작품만
도 270만 점이 넘어 매일 구경을 다녀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작년 열사(熱砂)의 땅, 투루판 베제쿨릭에서 동토(凍土)의 땅, 이곳을 그리



<니콜라이 궁전식당과 계단> (안순배)

워했었다. 아름답게 장식되어있던 석굴들은 도굴에 의해 텅 비어 처참한 물
골로 보는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었다.

그 베제클릭 벽화를 샌드위치처럼 포를 떠 가져간 나라가 독일과 러시아였
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박물관이 폭격을 맞아 통째
로 사라지게 했다.

이런 연유로 베제클릭 벽화는 베제클릭에 없고 이 러시아 땅 에르미타주에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베제클릭의 암굴을 보면서
이곳을 내가 채워야겠다고 다짐 했었다. “내년 여름에는 무조건 에르미타
주에 가는 거야!!”

러시아 여행을 의논하면서 마사장님께 에르미타주에서 시간 충분히 주기,
중앙아시아 유적이 있는 곳 안내해 주기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대한 시간은
배려하겠지만 베제클릭 벽화는無理란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으니 현지에 가서 본인의 능력껏 하란다. 기운이
빠졌지만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5년이 걸려도 다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은가?

소박한 목표를 정했다.

1. 베제클릭 벽화보기
2. 네덜란드관에 가서 렘브란트 그림 실컷 보기
3. 마티스의 <춤> 꼭 보기.



<요르단 계단>

박물관 앞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
지 않아 쉽게 입장했다.

입구를 통과하니 곧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계단(요르단 계단)이 나타났다.
백색 벽에 황금빛 장식문양과 대리석
조각만 설치된 계단은 호사스러움의
극치다.

눈부신 아름다움에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바로크적 장식의 최고봉이다. 계단을
올라서니 바로 파빌리온 전시관이다.
바닥에는 로마풍 모자이크가 깔려있고
천정에는 크리스탈 샹드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특히 황금의 공작새 시계는 왕실의
부름, 또 그들의 사치를 짐작케 했다.
겨우 시작인데 무엇을 보겠다고 비장
한 결심을 하고 이곳에 들어온 내 자
신이 한심하고 가소롭다.

마사장님이 “가보세요. 그냥 남들 구
경하는 것만큼만 보아도 충분하실 겐

니다.” 하더니... 여기서 무엇을 선별한단 말인가?

전시물뿐만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것 전부가 예술이고 감동이다. 멈추어 서서 하나에 집중하면 황홀한 정신적 충만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 박물관은 대영 박물관이나 루브르처럼 처음부터 국가적 사명감으로 국민 모두의 교육 장소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왕실의 컬렉션으로 시작되었다.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짜르가 표토르 대제라면 이 도시에 영광을 부여한 짜르는 예카테리나 여제(1762년~1796년 재위)였다.

표토르 대제의 손자며느리인 그녀는 독일인으로 러시아에 시집와 무능한 남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대단한 군주였다.

그녀는 철저히 러시아인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카톨릭에서 정교회로 개종해 국민의 신망도 높았다. 재위기 간동안 최대로 영토를 확장해 현재의 러시아 국경을 확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예술과 인민의 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유럽계몽사상을 페테르부르크로 옮겨왔다는 찬사도 받았다. 지적 호기심도 많아 유럽의 많은 사상가들과도 교류했으며 글쓰기를 즐겨 러시아 최초의 여성문인이라는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녀의 치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축에 대한 열망이다.

그녀 스스로 “건축 사업을 멈출 수가 없다. 술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 라고 자신을 평했다. 이집트 람세스 2세에 버금가는 건축 광이였다.

이런 그녀의 예술적 감각의 집대성이 이 겨울궁전과 세계 각처에서 모



<황금의 공작새>



<예카테리나 여제>

은 예술품들이다.

예카테리나 여제는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겨울궁전 옆에 <소에르미타쥐> <대에르미타쥐> <에르미타쥐 극장>을 증축했다.

그녀 사후, 니콜라이1세는 <신에르미타쥐>를 다시 증축하고 <대에르미타쥐>와 함께 1856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다 소비에트 정부시절, 5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세계 3대 국립박물관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곳의 소장품은 세계 어느 박물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족적 취향이며 최고급품이다.

고급품만이 인류의 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의식과 음악, 미술, 문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체계라면, 최고의 이성적 특성과 뛰어난 손재주와 재능으로 탄생된 상층문화는 존경과 사랑 받아야함이 마땅하다.

인류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예술품의 진수를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영롱한 이슬 같은 문화재를 말이다.



<다빈치작 리트의마돈나와 베누아의 마돈나>

계속되는 감탄 속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모자>(리트의 마돈나) 앞에 섰다. 곱슬머리 예수를 껴안은 마리아는 너무 맑고 투명하다.

모나리자를 닮은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지 잔잔한 슬픔이 배어 있다. 예수보다 성스러운 얼굴의 그녀는 우아한 동정녀 그 자체다.

예수의 손에 들린 새는 앞으로 올 그의 수난을 상징한데 밝은 주황색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림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다.

밀봉에 가까운 액자는 얼마나 이 그림이 소중한 보물인지를 대변했다.

다른 곳보다 유독 사람이 많았고 두꺼운 유리가 감상에 방해가 되었지만 주변에 전시된 많은 마리아의 그림 중에 그 우아한 표정이 압권이다. 또 하나

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돈나가 있다.

꽃을 손에 쥐고 있는 마돈나(베누아의 마돈나)이다. 앞의 성모자에 비하면 신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머리 위의 금빛 관이 성스러움을 대변한다.

화풍도 르네상스 적이기 보다 어두운 채색이 민속화 같은 느낌을 준다. 레오나르도 작품답지 않게 창밖의 텅 빈 풍경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궁금하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주제로 그렸지만 아주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광은 평생을 살면서 흔하게 오는 기회는 아닌 듯 싶다.

그것도 이름만으로도 너무 거대해 전율이 느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파엘 회랑>



<라파엘 회랑 천정>

라파엘 회랑 !

개인적으로 박물관 건물 중 최고의 장소였다.

천정을 받치고 있는 아치형 버팀대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 지어 서있고, 그 아치와 천정, 양 벽면은 그림으로 덮여있다.

그림은 통째로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아니라 나무판에 그린 한 점, 한 점이 모여 거대한 작품을 이루고 있다. 예카테리나 여제의 명에 의해 바티칸 궁전의 회랑을 모사했다는 그림들의 큰 모티브는 성서 이야기였다.

건축과 회화, 종교가 완벽한 앙상블을 이룬 회랑은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였다. 회랑 끝에서 주님이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우리는 기사홀을 구경하고 일행들과 헤어져 베제클리크 벽화를 찾아 나섰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물어 물어 어렵게 찾았다.

우선 이곳에는 관람객이 아무도 없다. 우리 부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나타났더니 안내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볼 정도였다.



<베제클릭 벽화>

문화의 변방지대처럼 화려한 장식들은 다 사라지고 조용한 정도를 지나 괴기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감격스러웠다. 친근한 불교 벽화를 보니 내 피붙이를 보는 듯 살갑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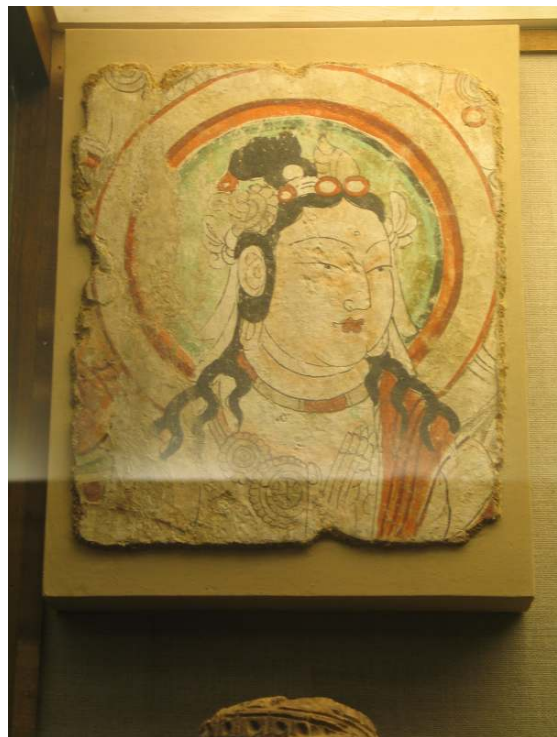
생각보다 전시된 벽화는 많지 않았다. 고려 탕화와 꼭 닮은 벽화는 수난의 기억을 몸에 남기고 이국의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화려한 채색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 돈황의 당나라 벽화와 흡사해 수준 높은 세밀하고 풍만한 인물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선명한 금칠이 너무나 생생해 오히려 먼 이곳까지 오게 된 벽화의 역사를 떠올리고 우울해 지기도 했다. 불교 설화 벽화뿐만 아니라 위구르족 복식의 색다른 벽화도 눈길을 끌었다.

벽화 외에 간다라 지역의 초기 불상도 제법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분량으로 따지면 굴 하나를 채울 만큼도 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남아있어주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러시아의 약탈자 페트로브스키는 독일이 일차적으로 베제클릭을 쓰고 지나간 뒤, 후발주자로 들어갔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벽화는 독일로 실려 갔다.



페트로브스키는 처참히 상처 입은 벽화들을 보면서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러나 베제클릭은 서양의 약탈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과 홍위병, 주변 농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야만적인 노략질에 의해 옮겨온 문화재를 보면 내 자신도 큰 딜레마에 빠진다.

이 벽화가 베제클릭에 있었으면 사라질 확률은 100%였다. 그러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남았다.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기 힘들 때, 가슴에 서늘하고 허허로운 바람이 지나간다. 문화의 소멸론을 드리대면서 태어난 곳에서 사라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나는 어렵게 살아서 우리 곁에 있어주는 저들이 고맙다.

더욱 어려운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베제클릭의 벽화 일부분이 전쟁과 보관상의 소홀로 문화재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을 떠올리면 이렇게 훌륭히 보존하고 있는 이들에게 머리까지 숙여진다.

우리도 해외에서 찾아오고 싶어 하는 문화재를 떠올리면 가슴이 무겁다.

자 ! 이제 렘브란트로 가야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정답은 렘브란트 그림이 있는 홀이다.

이곳은 특히 세계 최고의 렘브란트 컬렉션을 자랑한다.

한 화가의 그림으로 무려 20여점이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순도 높은 걸작으로 말이다.

입구에서부터 들어서질 못해 우왕좌왕 했는데, 이유는 <돌아온 탕자> 때문이었다.

나도 이 그림을 가장 보고 싶어 했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가보다.

그림이 바로 입구에 붙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몰려있었다. 먼빛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렘브란트 그림 중 감성을 가장 자극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어두운 그림 속에서 한 줄기의 빛

이 늙은 노인의 얼굴과 보기에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고 먼 길 돌아온 병자 같은 아들을 끌어안은 손과 아들의 등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빛은 그들을 무심히 그러나 복잡한 심정을 감춘 중년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한 렘브란트의 회한과 또 구제받고 싶은 욕망이 완숙한 자신의 화풍에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돌아온 탕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의외의 수확은 루벤스 흠이었다.
사람도 많지 않고 대작이 주는 압도적 기운이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풍만한 육체와 화사한 피부 빛은 생명의 환희며 축복이다.
살아서 튀어 나올 듯한 역동성과 거친 호흡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포만감을 주었다.

얼마 전에 덕수궁에서 열린 합스부르크가의 전시회에서 루벤스의 단 한 점(시몬과 에피게니아)의 그림 앞에 벌 떼처럼 몰려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미안하기까지 하다.

추한 어릿광대 같은 <바쿠스>는 가끔은 비틀고 싶어지는 인간 심리가 잘 묘사되어 웃음 짓게 한다.

이 방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시몬과 페로>는 실지로 보니 더 충격적이다. 죄를 짓고 굶겨 죽이는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아비 시몬을 딸이 몰래 숨어들어와 자신의 젖을 수유해 살린다는 뒷이야기를 알고 보아도 그 느낌은 지독하다.

너무 고운 딸과 괴물 같은 아버지의 표정 대비는 소름 끼친다. 이 그림을 보면서 효니 미덕이니 하며 숭고한 모혈을 유추해내는 평론가들의 정신세계

화가가 표현하고자하는 욕구와 관객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완벽히 일치하는 듯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렘브란트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그 행복의 원천인 아내 사스키아를 그린 <플로라>는 섬세하고 따뜻했다.

결코 미인은 아니지만 여신처럼 아름다운 화관을 쓴 아내를 그린 렘브란트의 사랑이 담백 든 그림은 그 마음이 저절로 느껴져 미소를 띠게 했다.



<플로라>



<시몬과 페로>

가 더 불가사의하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림과는 다른 구도여서 혼란스럽다.

루벤스는 개인 공방을 갖고 많은 화원을 거느리면서 그림을 찍어내듯 그려서 주문에 났다. 그래서 같은 주제의 그림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에 있다는 그림과는 많이 다르다. 웬지 이곳의 그림이 루벤스의 역작 같은 느낌이 든다.

마지막 목적지 마티스에게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못 찾아 꽤 고생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행복한 고생이다. 방방이 숨어있는 새로운 소장품들의 발견은 큰 기쁨이었으니 말이다.

마티스의 <춤>은 같이 걸린 피카소와 고갱까지 밀어내고 가장 멋진 자리에 걸려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 대한 아무런 상식과 선입견이 없는 신랑조차 가느다란 탄식을 쏟아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초록빛 풀밭에서 나신의 남녀가 손을 잡고 군무에 열중해 있다.

색은 파랑, 초록, 구릿빛 갈색뿐이다. 사람의 표정은 고사하고 인체의 선조차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다.



<마티스의 춤>

이 점이 마티스의 위대함이다.
다섯 명만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이 폭발하는 힘과 함께 천지를 흔든다.
화가는 적은 수의 색채만으로도 자유롭게 감정을 다룰 줄 알았고, 단순하고 선명한 선만으로 깊고 풍부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었다.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저런 원초적 유희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일었다.

이 대작 말고도 마티스의 작품이 많아 놀랐다. 마티스의 작품이 이 러시아에 많은 것은 세르게이 미바노비치 슈추킨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안목 때문이다.
슈추킨은 1906년부터 마티스와 피카소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들의 그림을 꾸준히 사들였다. 이 <춤>도 슈추킨이 마티스에게 춤이라는 주제로 그려보라고 부추겨 탄생했다.



<피카소의 만남>

파리의 비평가들이 이들을 (마티스와 피카소) 경멸하고 비판할 때도 그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 슈추킨은 <춤>에 이어 음악도 표현해 보라고 주문해 바이올린 소리와 성악이 들리는 <음악>을 그렸다.

마티스는 슈추킨의 초대로 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11월에 이곳에 온 마티스는 몸서리치는 추위에 질려 한 달도 못 버티고 유럽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다.

“후후후..... 하기가, 눈보라 속의 마티스?” 어려운 이야기다.

우리가 3층 구경을 끝냈을 쯤에는 우리 주위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박물관 닫는 시간이 6시니 이제 30분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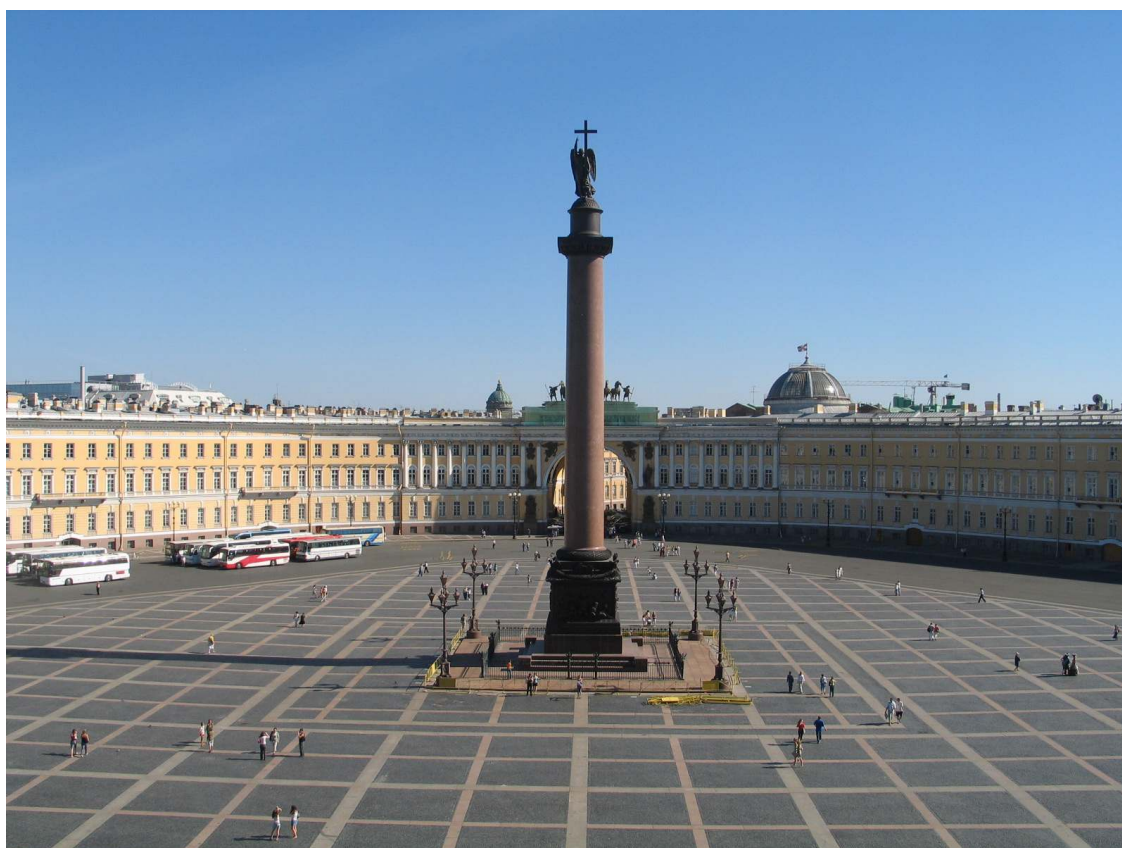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피카소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물을 분해한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 청색시대의 그림이 꽤 있어 좋은 볼거리였다.

더 이상 원도 없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다 아프다.

잠시 쉬기 위해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오~~ 우 세상에 ! 대한항공 선전 CF에서 이 겨울 궁전과 궁전 광장, 알렉산드로 기둥의 파노라마를 보며 멋지다고 생각 했었는데, 그 경치가 여기에 있었다.

그림보기에 바빠 놓칠 번 한 장관이었다.



<마티스방에서 내려다본 궁전광장>

내려오면서 렘브란트 홀을 한 번 더 가고 싶었지만 찾기도 힘들고 기력도 없다. 우리는 천천히 전시물이 아닌 겨울 궁전 자체를 즐겼다. 2층 프랑스 예술관을 지나다 방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천사 조각상에 훌쩍 빠져 버렸다. 그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사랑의 메신저 큐피터였다. 앙증맞은 날개가 달려있고 등 뒤에 숨긴 화살 통에서 화살을 뽑아들면서 주위에 조용히 하라는 암시로 손을 입술에 대고 있다. 얼굴에는 어린아이다운 천진함과 귀여움이 뚝뚝 흐르고 한편으로는 개구쟁이 같은 장난기가 가득했다. 10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 최고의 조각가 에티엔 로리스 팔리코네의 작품으로 완성된 당시에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조각은 처음 봤다. 만져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고 저려올 지경이었다. 우리 부부는 미래의 손자를 보는 기분으로 그 곁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으로 감시원 할머니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에카테리나 여제는 자신의 소장품을 구경하러온 이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어 주지 시켰단다. 그 내용 중에는 사회적 지위와 파벌, 야심도 다 문 밖에 두고 오라고 주문했다. 참 귀여운 그러나 의미심장한 주문이다. 이런 예술품 앞에서 누가 감히 불손하고 불경스러운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인간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란 걸 여왕은 예측한 것이다.



<사랑스러운 큐피터>

이 박물관 소장품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평온한 세월만 보낸 것은 아니었다. 2차 대전 당시 이 도시가 독일군에 의해 900여 일 동안 봉쇄된 적이 있었다. 그 때, 박물관 직원들과 주민들은 독일군을 피해 22칸짜리 열차로 소장품들을 우랄 산맥 근처의 도시로 대피시켰다. 또 2000여명의 예술가들이 이 궁전의 지하 방공호에 모여 살면서 궁전을 지켰다. 내가 이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이곳의 소장품은 이제 한 나라의 보물이 아니라 세계인의 유산이라고 느꼈다. 이곳에 온 모든 만국인에게 에르미타주는 감동을 주었고 예술의 힘과 고귀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궁전 광장으로 나오니 아직도 태양은 뜨거웠다.
 광장 가운데 우뚝 서있는 알렉산드로 기둥은 엄청난 존재감을 발하고 있다.
 러시아의 자존심과 긍지가 만들어낸 표상이다.
 나폴레옹전쟁 승리기념으로 세워졌다는 원주는 그 무게만도 700톤이 넘고
 전체 높이는 47m나 된다. 하나의 화강암을 세워 만드는 데만 3년
 (1812~1814)이 걸린 러시아 공학의 정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 기둥은 이곳에 서서 이 도시의 민중들이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왔
 는지 다 내려다 보아야 했다.

1905년 1월 9일, 일요일.
 굶주린 노동자와 가족 15만 명이 황제에게 청원서를 전하기 위해 평화시위
 를 하며 이 광장에 몰려들었을 때, 황제의 군대가 발포해 5000여 명이 눈발
 에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다.
 또 1917년 10월. 아브로라호의 대포가 겨울궁전을 향해 발포되고 세계 최초
 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볼셰비키에 동조한 노동자와 혁명가들이
 이 광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도 내려다보았다.
 또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이 도시가 봉쇄되어 많은 민중들이 추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도 묵묵히 보아야 했다.
 러시아의 근대사를 다 지켜본 저 기둥은 앞으로 올 러시아의 미래사를 감지
 하고 있을까?

광장 입구, 개선문 위에 서있는 승리의 여신이 바라는 승리는 무엇일까?

현재의 광장은
 아름다운 도시의
 상징이며 평화로운
 햇살과 예술의 향
 기만이 가득한 꿈
 의 장소이다.
 이제 이 도시를 떠
 난다. 나에게 허락
 된 시간은 끝났다.
 언제 다시와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밤 10시 비
 행기로 다시 모스
 크바로 왔다.



<궁전광장의 개선문> (안순배)

8월 11일 (제 9 일) 새로운 러시아의 영적 성지를 꿈꾸는 곳, 구세주 성당

러시아 여행의 마지막 날.
오늘도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다.
푸시킨 공원으로 갔다. 이 땅
에 들어온 순간부터 끝까지
푸시킨이다. 몽골에서 징기스
칸을 만나듯 말이다.
푸시킨 스카야 극장 앞의 푸
시킨은 뚜렷한 흑인의 피가
느껴지는 동상이었다.
벤치에는 노인들이 모여 각자
의 아침을 쏙쏙히 먹고 있다.
이 공원은 공산주의 체제를
못 잊어하는 저런 노인들과
야당 인사들이 모이는 대표적
장소란다. 근처에 있는 고리끼 박물관을 찾아갔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들
어갈 수 없었다.



<구세주 성당>

모스크바 첫날, 지나가면서 보기만 한 구세주 성당으로 갔다.
모스크바 최대의 성당은 백조처럼 깨끗하고 고고하다.
블라드미르의 우즈벤스키 성당과 흡사하지만 지붕의 돔은 러시아 정교회 쿠
폴이 아니라 비잔틴 풍이다. 흰 석조 건물과 황금빛 거대한 돔은 장엄함 그
자체다.
줄도 서질 않고 쉽게 입장이 되었다. 첫날 긴 줄에 질려 구경을 포기했었는
데 말이다. 그러나 발목이 조금 보이는 반바지를 입은 사람조차 입장을 금
지 시킬 정도로 엄격했다.
들어서는 순간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았다.
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회중석의 규모도 놀랍지만 천정을 장식하고
있는 프레스코화는 틀림없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었다. 바티칸시티 시스타
나 예배당의 <아담의 창조>와 <최후의 심판>과 똑같은 화풍이었다.
지금까지 사각 틀에 갇혀 움직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서있기만 한 성자들
만 보다 환한 채색과 압도하는 크기의 그림을 보니 거대한 생동하는 힘이
느껴졌다.
성부가 성자를 무릎에 앉히시고 주위에 성령(비둘기)이 날고 있었다.
바티칸이 카톨릭의 중심이며 성지이듯 이 성당이 정교회의 중심이며 성지화
시키겠다는 러시아의 확실한 의지가 보였다.
이코노스타스도 벽의 모습이 아니라 유럽의 8각형 탑 모양으로 평면이 아닌

입체적 형태가 아주 특이했다.

이 성당의 역사는 이 나라의 역사만큼 기구했다. 나폴레옹전쟁 전승기념으로 니콜라이1세에 의해 19세기에 세워졌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 때, 인위적으로 폭파시켜 버렸다 (1931년).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란 백해무익 정도가 아니라 마약으로 여겨져 스탈린은 종교 말살의 상징으로 이 성당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

이 시기, 세르기예프 빠사드의 <성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조차 이 모욕을 피할 수 없어 성당의 종들이 끌어 내려지고 파괴되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파괴된 성당 자리에는 야외수영장이 들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현실적 장소로 쓰였다.

그러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새로운 러시아가 탄생되면서 이 성당도 다시 세워졌다.

이 성당의 건립과 함께 러시아 정교회의 위상도 재 자리를 찾았지만 러시아라는 국가도 새로운 국가의 웅비를 다짐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

단순한 성전의 모습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러시아 유명 인사들의 영결식도 주로 이곳을 이용하고, 얼마 전에는 90년 만에 국내, 해외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 <교회일치선언>도 했다고 들었다.

공산당의 교회 탄압에 많은 종교인들이 러시아를 떠났었다. 그들은 세계각지에서 선교와 함께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았고, 자국의 정교회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반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소련 시대에 종교적 탄압은 있었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정교회를 뿌리 채 뽑을 수 없었으며 또 분명한 의지도 없어 정교회 세력은 많이 축소되었지만 음성적으로 예배, 세례 등의 활동은 있었다.

대통령 푸틴도 5살 때, 아버지 몰래 어머니와 숨어서 세례를 받았단다. 엘



<구세주성당 내부> (안순배)

친도.... 늦게라도 성당을 보게 되어 참 다행이었다.

톨스토이 박물관으로 갔다. 일정에 들어있지 않아 못 간다고 뺏대던 특전사 아저씨도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의 계속된 요청에 두 손 들었는지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갔다.

박물관은 톨스토이 생전에 겨울을 나던 집이었다. 대문호가 살았던 동네여서인지 너무 조용해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집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한 나무집으로 아담한 정원이 딸려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할머니 한 분이 우리 모두에게 엄한 눈초리로 비닐 덧신을 신겼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분이지만 어찌나 고압적인지.... 문화 지킴이를 지나 여성보안대 위원장 같다.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저런 할머니를 무수히 만났다. 퇴직이라는 것이 없는 건지 모두 사회주의 정권 때 뺏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융통성 제로다.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려니 해도 우습다.

이층 계단을 올라가니 서재가 있고 많은 수의 작은 방과 넓은 거실이 있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귀족 가문의 품위와 정갈함이 느껴졌다.

박물관에서 본 일반 서민 집과 비교하면 상류층이 누린 안락함이 곳곳에 배여 있다.

<부활>이 탄생되었다는 서재는 좁지만 문호의 방다운 기가 느껴져 감격스러웠다.

개인적으로 톨스토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너무 훌륭해서 버겁고 공감대 형성이 힘들다.

너무 완벽하고 큰 사람이라 같이 놀아볼 틈이 없다.

톨스토이 자신은 태



<성 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의 모독>



<톨스토이 박물관 내부>

어나면서부터 양손에 쥐고 나온 금 손가락, 은 손가락을 비우려고 애를 썼지만 평생 이 집이 주는 안락함 속에 살다갔다.

도스토예프스키처럼 평생을 가난과 간질병, 도박, 사형 직전의 경험, 쥐가 들끓는 형무소 생활, 시베리아 유형 등을 겪은 사람과는 출발점이 달랐다. 인간성의 크기로 보면 <세기의 현자>이며 <인류의 양심>이며 합리적인 신앙인인 그를 존경하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문학가로서는 별루다.

내 그릇이 그에게 너무 못 미친다.

피를 토하듯 또 상처받고 흠집 많은 예술가가 써 내려간 글이 역시 많이 부족한 나에게 감동적이고 살갑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톨스토이 같은 지성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영광인 것은 확실하다.

인간의 희망이며 지구를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이며 끝없이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그는 <톨스토이즘>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교주로 추앙받아 마땅하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진리를 사랑 한다>고 말한 톨스토이는 큰 사람이었다.

점심을 먹고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탄생 했다는 영광의 장소, 호수로 갔다.

이런 경우 참 맥 풀린다. 우아하고 깨끗한 백조가 한가롭게 떠다닐 거라고 아직도 소녀 같은 낭만을 버리지 못한 나에게 정통으로 한 방 먹이는 풍경 말이다.

호수는 웅덩이처럼 작고 지저분해 낭만을 깬다. 우랄 산맥의 서



<백조의 호수 탄생지>

쪽은 늪과 같은 저지의 연속이니 호수라고 알프스의 눈이 녹아 모여든 그런 청정호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늪 가운데 흙탕물이 모여들면 호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색무취가 기본인 <보드카>란 말도 깨끗한 물, 성스러운 물이란 뜻이란다.

이런 호수를 보고 그렇게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을 쓴 차이코프스키의 내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호수는 한 많은 노보데비치 수도원의 그림자를 길게 늘려 담고 있었다.

16세기에 세워진 이래로 왕실의 오랜 사랑을 받았던 수도원은 표토르 대제가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복누나, 소피아와 첫째부인, 에브도키아를 영원히 가두면서 두려운 장소가 되었다.

지금은 페테르부르크의 넵스키 수도원처럼 공동묘역으로 더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엘친과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안장되었다.

아르바트 거리로 가는 도중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들렀다.

운전기사아저씨는 운전 경력 30년에 이렇게 모스크바 시내 교통 상황이 좋은 날은 처음이라 한다. 어딜 가도 체증이라는 것이 없이 술술 다니고 있다.

모스크바 대학은 무엇보다 가지가 찢어지게 열린 사과나무 가로수가 인상적이었다.

그 중, 개량되지 않은 품종의 사과나무는 열매가 어찌나 귀엽고 조그마한지 활짝 핀 꽃송이 같았다.

대학 본관 건물은 학구적인 느낌보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로 영친근감이 생기질 않는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스탈린 양식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 건물과 흡사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무부 청사다.

강의실만 4500여 개나 된다는 32층 건물 꼭대기, 높은 첨탑에는 구 소련의 상징인 거대한 별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도 없는 적막한 교정에서 뜨거운 햇빛과 이글거리는 지열 속에 있으려니 왠지 서글프고 외롭다. 주인 없는 집에 멀뚱히 앉아있는 꼴이었다.

18세기 러시아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대학자이며 이 대학의 설립자인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멋진 동상이 외롭게 교정을 지키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얼굴이 중후한 학자풍으로 바뀌어있다.

우리는 대학을 나와 잠시 레닌 언덕에 들렀다 아르바트 거리로 갔다. 우리나라 명동거리와 비슷한 곳으로 상점들이 줄지어서있고 거리의 행인은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이다.

푸시킨이 잠시 살았던 집도 있고 여러 문인들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좋아하는지 의문이 가는 거리 풍경이다.

어떤 개성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한국인의 피를 나누어가진 빅토르 최의 추모벽이 있어 우리로서는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외계인이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현금을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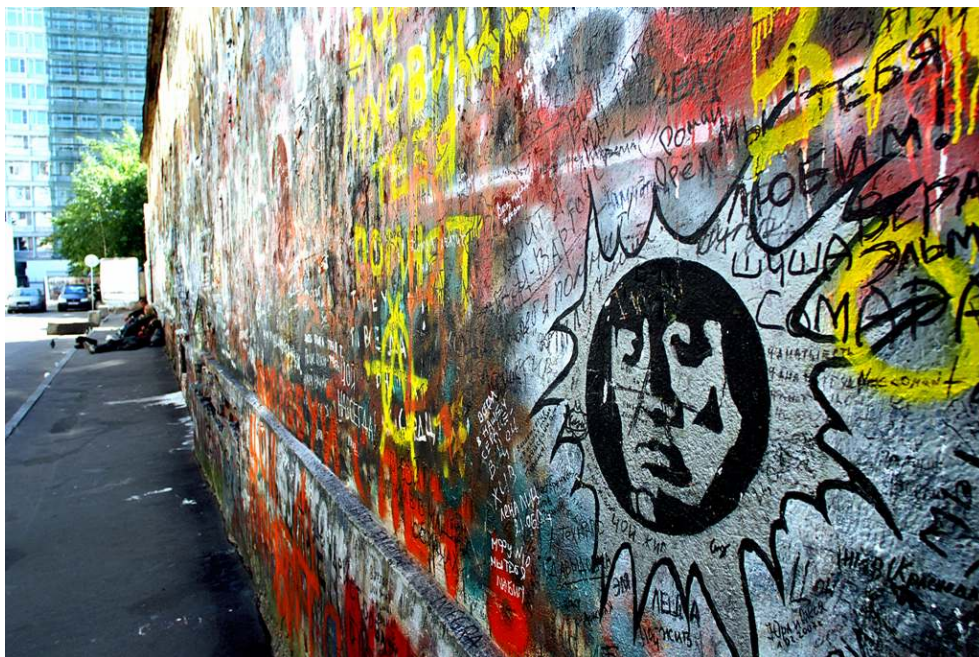
가끔은 이런 자유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스크바대학> (안순배)

조잡한 기념품만 즐비한 거리를 지나 곧장 추모의 벽으로 갔다.
 꼬질꼬질한 히피 스타일의 젊은이 몇 명이 어지러운 낙서가 가득한 벽에 기대 누워있고, 의외로 너무 조용하다.
 생전의 그의 삶이 그러했듯 아르바트라는 변화한 거리에서도 그의 공간은 음울한 소외된 장소였다. 벽 가운데 조그마한 감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는 누군가가 부쳐놓은 여러 대의 담배가 푸른 연기를 내며 타고 있었다.

“너는 왜 그렇게 빨리 갔니?” 그에게 물었다.



<아르바트거리의 빅토르 최 추모벽> (안순배)

빅토르 최(1962년~1990년)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소련연방이었기에 교육은 페테르부르크에서 받았다.
 페테르부르크의 낡은 아파트 보일러 화부로 일하면서 작곡을 했고 1984년, 러시아의 비틀즈라고 불리게 된 <키노>를 결성, 8장의 음반을 냈다.
 그 중 그를 러시아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준 <혈액형>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는 1990년,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라트비아 공화국 리가에서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울하다.
 결코 곱지 않은 음색과 단조로운 반복이 계속되는 멜로디는 모든 노래가 비슷하다. 그러나 그의 웅얼거리는 목소리는 아프리카 타악기가 내는 울림이 있다. 원초적 본능을 움직인다.

그의 노랫소리에는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눈빛과 <라스베가스를 떠나

며>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들어 있다.

노래 가사를 읽어보아도 페테스트로이카의 선동이나 개혁을 꿈꾸는 고르바초프의 동지애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음유 시인이며 자신의 젊음이 벅차 몸부림치는 청년이며 자유를 향해 울부짖는 가여운 짐승이었다.

명분 없는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죽은 젊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인 <내 집을 비핵화지대로 선포 한다>에는 러시아에서 보기 힘든 반전사상 같은 인류애도 들어있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 음악의 혁명이었듯이 그의 모던 러시아락은 음악의 혁명을 넘어 체제 혁명의 상징이 되었다.

모두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추앙했고 그는 갑자기 키노마니아들의 교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정점에서 사라져버렸다.

너무도 허망하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이 불안했던지 아니면 죽음을 예감 했었는지 마지막 음반의 수록곡 <여름이 지나 간다>의 가사 일부분은 나를 아프게 했다.

여름이 지나 간다.

오디오가 망가졌다.

난 조용히 앉아있다. 이것으로 온통 기쁘다.

난 응답을 기다려요. 더 이상 희망은 없지요.

곧 여름이 끝나버려요.

이 여름이

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음악이 탄생했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보일러실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외계인에게 “블리히나 15번지 찾아볼 수 있을까?”

“거기는 왜요?”

“빅토르 최 작곡실.”

“아~~ 참, 서울 가서 무작정 방학동 15번지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찡끔. ‘나무라는 것도 우리 아들이랑 똑 같네’

내가 그에게 관심이 많은 것도 결코 남 같지 않은 핏줄의 당김이겠지.

이제 러시아 땅에서도 그는 서서히 잊혀져가는 신화가 되었다.

그를 따르던 젊은이들은 모두 뱃살 출렁거리는 중년이 되어 시퍼런 자신의 청춘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최는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라는 저 낙서만 영원할 것이다.

공항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일러 잠시라도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말로는 들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없이 내려가니 실체 없는 공포심이 밀려왔다.

지하 7층 깊이의 지하철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통과프레처럼 깊숙이 내려갔다.

궁전 정도는 아니지만 박물관 같은 부조나 모자이크 그림들이 굉장하다.

스탈린 시대에 건설되었다는 지하철은 유사시 피난처 역할을 염두 해두고 만들었다. 실지로 2차 대전 당시 방공호 역할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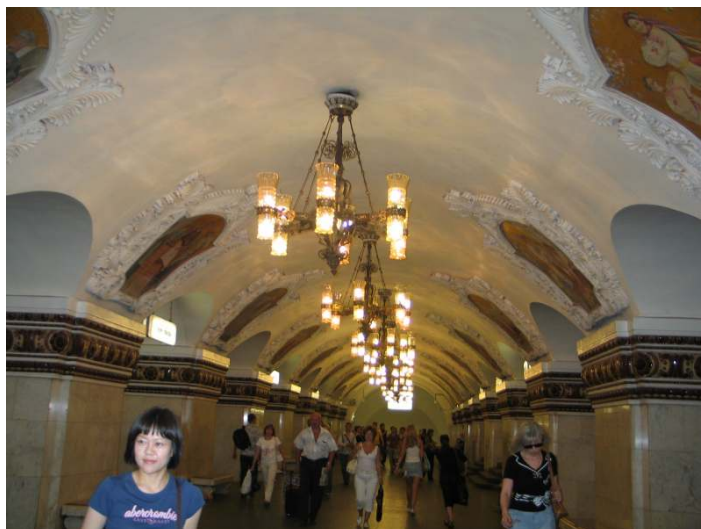
훌륭한 역사(驛舍)에 비해 지하철은 우리네 협궤 기차랑 비슷하다.

덩치 큰 역사로 요란한 진동과 함께 들어오는 낡은 지하철을 보자니 웃음이 나왔다. 타보니 어두운 조명과 엄청난 소음이 아주 죽여준다.

지하철에서의 쾌적하고 조용한 독서? 러시아인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두 정거장을 갔다가 돌아왔다.

이것으로 나의 러시아 기행은 끝이 났다.



<지하철역>

이번 여행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는 듯 싶더니 공항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일이 벌어졌다. 남들보다 일찍 도착한 우리는 여유 있게 출국수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뒤로 밀렸다. 새치기 하는 인종들이 너무 많다. 물론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이다.

표 예약도 되지 않은 대기자들이 여권 사이에 두툼한 돈을 끼워내면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는 욕을 하면서도 내 자리가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우리 부부는 표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일행 중 7명이 떨어졌다.

심사대를 통과해 불안한 마음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곱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난리가 났다.

외계인이 끼여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외계인이 큰 소리로 우리는 내일 갈거니 조심해서 잘 가란다.

이번 여행을 함께한 일행들, 참 특이하다.

어떤 경우라도 화를 내던지, 초조해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 느긋한 여행의 고수들이다.

나중에 말을 들으니 하루 더 있게 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충분히 즐겼단다.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 머물면서 공항 근처 <다차> 문화체험도 즐겼단다.

러시아 전문가들이나 유학생들이 말하는 러시아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가 들어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뒤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단 1 건도 없단다.

검은 거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상에 우리 민족은 어떤가?

뒷거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믿지 않는가?

그러니 러시아에 들어와 사업하는 우리 민족, 빠르고 효과 확실한 이런 풍토 십분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 가시는 분들 ! 새치기에 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간 많으신 분들은 밀려도 괜찮은 일정을 즐길 수도 있으니 화내지 말고 하루 더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탄 홍선생 부부는 1등석으로 왔다.

마음 졸인 대가치곤 괜찮지?

여행을 정리 하면서...

식탁에 앉아있으면 구청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든 구립 축구장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춥고 눈이 오는 밤에도 중년의 남자들은 떼를 지어 공 하나를 따라다닌다.

푸른 자작나무와 뜨거운 태양이 빛나던 러시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크레믈린, 스킴달, 네바강, 뱀스키 거리, 센나야 광장, 겨울 궁전.....

축축하고 우울하고 쓸쓸할까?

하얀 눈 속에서 또 다른 낭만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 같아 가슴이 아려오면서 그림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날, 내가 상상하고 교육 받았던 나라를 그리며 글을 썼었는데 그런 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외견상으로는 과거의 어두웠던 시간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유럽의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흠 잡을 곳 없어 보였다.

단지 많은 레닌 동상과 여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삼엄했던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정교회의 성당, 수도원이었다.

러시아 여행을 계획한 목적 중에 성당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보았다.

그래도 더 보고 싶다. 지금도 보고 싶다.

인류는 종교라는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없는 능력, 아니 괴력을 발휘해 여러 창조물을 탄생 시킨다.

건축, 음악, 회화, 조각, 문학.....

나라에 따라 특별히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면에서 종합 예술, 예술 종교의 정점이었다.

성당에 들어서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멋진 코러스를 이루며 내 속으로 들어왔다.

도스트오프스키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미>란 의미가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다.

황홀한 정신적 충만감에 이런 높은 경지의 예술을 느끼고 향유하는 내 자신이 대견하여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눈물도 찼다.

그걸 하느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라고 말한다면 꿈을 깬다.

설령, 그것이 성령이라고 쳐도 나무토막 같은 내 속에서 그런 고귀한 감정을 끌어낸 인간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런 성당들로 둘러 쌓여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종교는 종교일 뿐이다.

우아한 종교 속에서도 스탈린 같은 괴물이 나오고 자신의 욕심이 먼저인 부도덕한 사생아들은 많고도 많다. 이런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다.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칸딘스키와 러시아 거장전에서 페로프의



<익사한 여인>

<익사한 여인>이라는 그림이 인상 깊었다.

수즈달 처럼 성당의 쿠파로 가득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도시의 강에 여인이 물에 빠져 죽어 건져놓았다. 여인의 차림새로 보아 가난에 찌들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진 여인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었다.

그 불쌍한 여인을 역시 삶에 찌든 초로의 경찰이 담배를 물고 낚 놓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눈 빛에는 어떤 연민이나 감정이 들어 있지 않다. 그 그림에서 애도의 상징이 있다면 그녀 몸에 걸린 물품의 조그마한 꽃들이었다. 종교가 이 세상을 구원 할 수는 없지만 종교란 그 물품의 꽃처럼 인간의 위로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러시아는 종교가 멋진 문화라는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리처드 도킨스(만들어진 신의 저자)는 나 같은 사람을 회색분자로 여기고 욕하겠지만.....

나도 흑백으로 나누면서 신의 존재, 종교의 타당성을 정하라고 욕박지른다면 도킨스 쪽에 가깝다. 그러나 종교가 만들어낸 수준 높은 예술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인간이 종교라는 신념 없이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내가 본 세상은 그랬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교회를 억압했던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 국가로 거듭나고 그 종교적 이상으로 슬라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한다지만 그건 단지 바램 일 뿐일 것이다.

실지로 러시아에서의 정교회 신자는 30%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신자도 거의 여성과 노인들이란다. 실지로 성 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의 예

배를 구경 했을 때, 대부분 여자였다.

러시아 땅에서 정교회가 모든 것보다 위라는 개념은 이미 묵은 사상이 되었다.

자본주의 단맛은 그 유혹이 너무 강해 한번 맛을 보면 벗어날 수가 없다.
현실에서 돈이 예수님보다 전지전능하다는 걸 알았으니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겸손, 순명, 비움 같은 교리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힘든 이야기다.

자본주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바라보는 것.

솔직히 흥미진진하다.

세계사의 전면에도 늦게 나타나 한때는 미국과 세계의 힘을 양분했던 러시아의 힘이 흥미롭다. 중국을 가면 그들의 발전 속도에 놀라고 그 발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불신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미개함에 혐오감을 느끼지만 러시아는 정말 모르겠다.

반듯해 보이지만 자본주의의 온갖 병폐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나타나고 그러면서 대국이라는 긍지와 자존심은 잃지 않았으며 사회 전반의 기본바탕은 잘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더 더욱 동, 서양에 걸쳐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시베리아의 지하자원은 그들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러시아를 열흘보고 그들의 미래를 점칠 수 없지만 멋진 예술의 나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런 민족에게 공산주의 같이 똑같은 크기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분배하며 똑같은 옷을 입힌다는 몰개성적인 사상은 절대 오래갈 수 없는 이념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러시아 여행은 나에게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길 참 잘 했구나 하는 원초적 기쁨을 잊지 않게 해 주었다.
이 깊은 밤. 러시아를 그리워하며 푸시킨이 긍정적인 인생을 노래한 시를 읽어본다.

보라 ! 양광(陽光)이
때로 하늘을 금색으로 물들이고
때로 얇은 구름으로 보일 듯 말듯 한다.
은빛 달은 은은히 감돌고
전원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싹트고
장미 꽃 봉오리가 부풀어 오른다.
풀 밑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언덕 위에는 포도 가지가 빛나고
정적 속에 산들바람의 한숨이 새어나온다.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다.
환희로서 인생의 꽃을 생취하라.
하늘의 혜택을 조용하게 받아들이자.
이 세상은 나쁜 쾌락과
불행의 골짜기가 아니다.
그대여! 행복 하여라.
미혹되지 말라.
모두의 은혜의 근원을 잊지 말라.
진실과 법은 존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 때 그대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무상(無常)으로 떠나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벽을 확신 할 수 있을 것이다.